6.15주간

주체90(2001)

6.15Weekly

제27호 (12월 21일~12월27일)

사진으로 본 2001년 10대 뉴스













노작 - 통일적 민주주의 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







백두산여장군의 숭고한 동지애

2001년 청년학생운동

민족자주통일의 궤도를 힘차게 달려온 통일운동



6.15주간 편집부

6.15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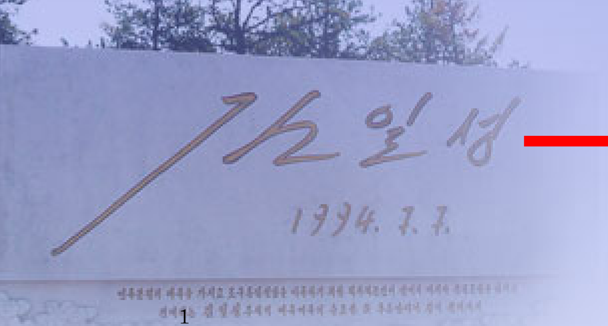
6.15WEEKLY

제27호 (12.21~12.27)



통일적 민주주의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

1950년 5월



1

우리 나라가 일제의 오랜 식민지적 압박에서 해방되고 우리 인민에게 민주주의적 자주독립국가건설의 광활한 길이 열려진 때로부터 거의 5년 이 지나갔다. 조선은 자유로운 나라로 되었으며 조선인민은 처음으로 자기 조국 땅에 자기의 정권을 세웠다.

해방직후 우리 조선의 방방곡곡에서는 지방인민위원회들이 조직되었다. 노동자, 농민, 문화인, 소상인, 기업가를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의 대표들로 조직된 인민위원회들은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었다. 인민위원회의 지도 밑에 조선인민은 자기 나라에서 민주주의 건설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자기 조국을 통일된 자주독립국가로 발전시키려는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염원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소련군대가 일본군대를 쳐부순 뒤 한 달이 지나서 미제침략군대가 남조선에 들어 왔다. 미제침략군대가 들어오자 남조선에서는 반동이 머리를 쳐들기 시작하였다. 조선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의 독립을 바라지 않으며 조선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꾀하고 있다는 것을 곧 똑똑히 알게 되었다.

해방직후부터 소련군대가 들어온 북조선과 미군이 들어온 남조선은 정 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소련군대는 1945년 8월에 조선인민에게 다음과 같은 첫 선언서를 발표하였다.

≪조선인민들이여, … 조선은 자유로운 나라로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조선역사의 첫 페이지로 될 뿐이다. 화려한 과수원은 사람의 노동과 정력의 결과이다. 이와 같이 조선의 행복도 조선인민이 영웅적으로 투쟁하며 꾸준히 노력하여야만 달성할 수 있다. 조선인민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당신들의 손에 있다. 당신들은 자유와 해방을 찾았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당신들에게 맡겨졌다. 소련군대는 조선인민이 자유롭게 창조적 노동에 착수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들을 지어줄 것이다. 조선인민은 자체가 반드시 자기의 행복을 창조하는 자로 되어야 할 것이다.≫

소련군대는 이 선언서에서 약속한대로 인민위원회를 백방으로 지지하였으며 우리 조선인민에게 자기 손으로 민주개혁들을 실시하고 행복한 새 생활을 개척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지어 주었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사태가 전혀 달리 벌어졌다. 미군은 남조선에 들어오자마자 다음과 같은 맥아더의 포고령을 발포하였다.

≪조선 북위 38도 이남의 지역과 동 주민들에 대한 모든 행정권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하에서 시행함. 주민은 본관 및 본관의 권한하에서 발표한 명령에 즉속 복종할 것. 점령군대에 대하여 반항행동을 하거나 또는 질서보안을 문란히 하는 자는 용서 없이 엄벌에 처함.

군정기간 중 영어를 모든 목적에 사용하는 공용어로 함. …≫

미군정당국은 남조선에서 이 포고령을 실시하면서 인민의 의사에 따라 인민들 자신이 조직한 인민위원회들을 해산하였으며 우리 인민에게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빼앗았으며 애국적인 인민들을 투옥, 학살하였다. 미제는 우리 조국 남반부를 자기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반동적 정책을 실시하였다.

1945년 12월에 채택된 모스크바3국외상회의 결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열린 소 미 공동위원회에서 소련대표단은 통일적 민주주의 조선정부수립을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하였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 이러한 민주주의적 통일정부가 서면 자기들의 침략정책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소련의 정당한 제의를 끝끝내 거부하였으며 모스크바회의 결정의 실행을 파탄시켰다.

미군정의 지시에 따라 ≪반탁≫이라는 구호 밑에 처음부터 모스크바3상회의 결정실행을 반대하여 나선 매국노 이승만을 비롯한 조선의 반동분자들은 조국과 인민의 이익을 저버린 추악한 반역자들이다. 그들은 조선인민의 이익에 완전히 맞는 모스크바3상회의 결정의 실행과 소 미 공동위원회의 사업을 파탄시키는데서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이리하여 일본강점자들의 압박에서 해방된 조선은 38선을 계선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갈라지게 되었으며 남조선인민들은 또다시 외래침략자인 미제국주의자들의 통치 밑에서 허덕이게 되었다.

2

해방 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치정세 하에서 통일적 민주주의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북조선인민들 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은 모든 민주주의적, 애국적 역량을 집결하여 우리 나라 북반부에 통일적 민주국가건설의 튼튼한 정치 경제적 토대를 닦는 것이었다.

우리 당은 이와 같은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투쟁강령을 내놓았다.

1. 모든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들과 애국적 역량을 집결한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에 튼튼히 의거하여 참다운 인민의 정권기관인 인민위원회들을 강화할 것.

2. 민주주의 국가건설의 중요한 장애물인 일제통치의 나쁜 결과들을 없애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적 자유를 보장하며 직업동맹과 그 밖의 민주주의적 사회단체들을 조직하고 강화할 것.

3. 일본제국주의자들과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토지가 없거나 토지가 적은 농민들에게 거저 나누어주는 토지개혁을 실시함으로써 봉건적 소작제도를 영원히 없앨 것이며 일본제국주의자들과 민족반역자들의 공장, 제조소, 운수기관, 은행, 광산, 산림들을 국유화하고 일제가 마스고 간 공장, 기업소, 철도를 복구하며 인민들의 생활을 높일 것.

4.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민족간부들을 키우며 민주주의적 교육제도를 실시하며 학교기관들을 늘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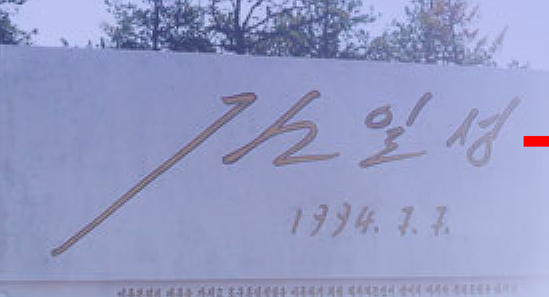
조선을 민주화하기 위한 이 투쟁강령은 조선인민의 각계각층의 이익에 맞는 것이며 그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 우리 당은 이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장에 굳건히 서있었다.

인민의 정권기관으로서의 인민위원회들을 더욱 강화하며 민주주의 건설에서 그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1946년에 지방인민위원회들의 민주주의적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이에 기초하여 중앙정권기관인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창설되었다.

인민위원회선거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따라 비밀투표로 실시되었다. 선거는 가장 광범한 인민대중의 진정한 의사가 자유롭게 표시되는 조건에서 진행되었다. 이것은 조선역사에서 첫 민주선거였다.

지방인민위원회의 선거에는 총유권자수의 99.6%가 참가하였다. 선거규정에 따라 선거에 참가하지 못한 자는 다만 4,387명밖에 안되었는데 그들은 친일파, 정신병자 또는 재판에 의하여 선거권을 빼앗긴 자들이었다.

이 선거를 통하여 도, 시, 군 인민위원회의 위원으로 3,459명이 당선되었는데 그 가운데 노동자가 510명, 농민이 1,256명, 사무원이 1,056명, 문화인이 311명, 상인이 145명, 기업가가 73명, 종교인이 94명, 그 밖의 위원이 14명이었다.



이와 같이 인민위원회들은 노동계급의 영도 밑에 노동자, 농민의 튼튼한 동맹에 기초하여 조선인민의 각계각층의 대표들로 구성된 참다운 인민의 정권기관이다. 인민위원회들은 인민 자신에 의하여 세워졌다.

지방인민위원회들과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선거는 인민위원회들을 국가주권기관으로서 법적으로 튼튼히 하였다.

인민위원회들은 광범한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사업하며 인민의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인민에게 충실히 복무하며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그들과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민주주의 독립국가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민주개혁을 해야 하였다. 민주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파괴된 인민경제를 복구 발전시킬 수 없었으며 근로자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없었으며 우리 나라에 인민민주주의 제도를 세울 수 없었다.

제일먼저 실시된 민주개혁은 전체 인구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을 봉건적 지주의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는 토지개혁이었다.

1946년 3월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토지개혁법령을 발포하고 일본제국주의자들과 민족반역자, 지주들의 토지 100만 325정보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땅이 없거나 땅이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었다.

토지개혁이 실시된 결과 우리 나라 농촌발전의 장애물이었던 봉건적 토지소유관계는 없어졌으며 농촌에서 반동의 중심으로 되어 있던 지주와 토착고리대금업자들은 경제적 토대를 잃어버렸다.

토지개혁은 농민들을 봉건적 착취와 예속에서 영원히 해방하고 토지의 주인으로 되게 함으로써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 숙망을 실현하였으며 그들의 정치적 열성과 애국심과 생산의욕을 높였으며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을 지어놓았다.

토지개혁은 우리 나라 농촌경리를 발전시키기 위한 새 길을 열어 놓았다. 토지개혁은 도시와 농촌의 연계를 튼튼히 하였으며 인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며 공업에 원료를 대주는 문제를 더욱 원만히 풀 수 있게 하였다.

토지개혁의 뒤를 이어 일본놈들과 민족반역자들이 가지고 있던 중요한 산업, 운수, 체신, 은행들이 국유화되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8월 10일에 산업국유화법령을 발포하였는데 이 법령에 따라 일본제국주의자들과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이 가지고 있던 공장, 제조소, 은행, 운수, 체신기관들은 국가의 소유, 전체 인민의 소유로 되였다.

이 모든 기업소들은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인민을 가혹하게 착취하고 조선을 강탈한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다. 조선인민은 거의 반세기동안이나 가난과 굶주림에서 허덕이면서 일본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앞잡이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위하여 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산업국유화의 결과 인민의 것으로 된 생산시설들은 근로대중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되게 되었으며 우리의 민족경제를 부흥 발전시키기 위한 밑천으로 되었다.

산업국유화는 북조선에서 반동분자들과 친일파들의 경제적 토대를 빼앗아내었으며 인민경제에서 국가적 부문이 지배적 자리를 차지하게 하였다. 산업국유화의 결과 인민경제의 계획적 발전에 필요한 조건들이 마련되었다. 노동자들은 자기자신과 자기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되었으며 그들 속에서 우리 나라 역사에서 일찍이 보지 못한 애국적 증산운동이 널리 벌어지게 되었다.

산업국유화법령과 함께 노동법령이 발포되었다.

일제강점시기에 조선노동자들은 가혹한 착취를 받았으며 그들은 하루에 12~14시간이나 노동하였다. 여성노동자들과 미성년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비참하였다. 노동보호와 사회보험 제도는 전혀 없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발포한 노동법령은 노동자들과 사무원들의 노동조건과 물질적 생활형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게 하였다.

노동법령에 따라 노동자, 사무원들에게는 8시간노동제가 실시되었으며 유해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7시간노동제가 실시되었다. 열 네 살부터 열 여섯 살까지의 미성년노동자들에게는 5~6시간노동제가 실시되었으며 열 네 살 아래의 소년노동은 금지되었다. 노동자, 사무원들에게는 한해동안에 두 주일 내지 한달 동안의 유급휴가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사회보험과 노동보호에 관한 모든 대책들이 실시되고 있다.

남녀평등권법령이 실시된 결과 조선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은 남자와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 생활에 참가하게 되었다. 지금 각급 인민위원회 위원들 가운데는 여성이 1만 1,509명이나 있으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가운데는 여성이 69명이나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는 벌써 1946년에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개혁들이 실시되었다. 우리 앞에는 역사적인 민주개혁의 커다란 성과를 튼튼히 하고 가장 짧은 기간에 인민경제를 부흥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 수준을 높일 임무가 나섰다. 이 임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해방 후 5년 동안에 많은 일을 하였다.

우리 나라의 공업을 부흥 발전시키는데는 많은 난관이 있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패망할 때 공업, 운수기관들을 마사버렸으며 탄광, 광산들을 물에 잠기게 하였다.

일본제국주의 식민지통치의 결과 우리 인민은 자기의 민족간부들을 가지지 못한 채 해방되었다. 우리에게는 공업을 부흥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준비된 기술인재와 기업소들을 능숙하게 운영할 줄 아는 간부들이 없었다.

일제통치시기에 조선의 공업은 일본경제에 예속되어 있었으며 그 부속물로 되어 있었다. 심한 식민지적 편파성을 띤 우리의 공업은 필요한 기계와 원료, 자재들을 자체로 생산할 수 없었으며 공업의 기술적 장비는 뒤떨어지고 낡은 것이었다.

그러나 모든 난관들은 전체 조선인민의 애국적 투쟁에 의하여 타개되었다. 조선인민은 앙양된 창조적 노동으로 모든 난관을 용감하게 이겨내었으며 인민경제의 부흥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는 1947년과 1948년의 인민경제부흥발전계획들을 성과적으로 완수하였으며 1949년-1950년 2개년 인민경제계획을 실행하는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최고인민회의 제2차 회의에서 채택한 2개년 인민경제계획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임무를 내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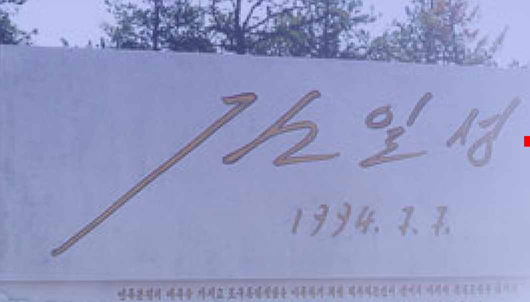
1. 전쟁 전 공업생산수준을 넘어설 수 있도록 생산의 장성속도를 더욱 높일 것.

2. 일제통치의 악독한 결과인 공업의 식민지적 편파성을 없애며 자주적 민족경제의 토대를 쌓을 것.

3. 조국이 통일된 다음 미제가 파괴한 남조선경제를 짧은 기간에 복구할 수 있는 물질적 조건들을 준비할 것.

4. 기본생활필수품의 생산을 더욱 풍부히 하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높일 것.

북조선근로대중은 2개년 인민경제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일떠섰다. 공장, 기업소들과 건설 장들에서는 2개년 인민경제계획을 기한 전에 끝내기 위한 노동자들의 생산경쟁운동



이 널리 벌어지고 있다. 오늘 생산경쟁운동에는 3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과 기술자들이 망라되어 있으며 많은 기업소들이 1949년 계획을 앞당겨 끝냈다.

공업부문에서 2개년 인민경제계획의 첫해인 1949년 과업은 102.8%로 넘쳐 수행되었으며 1950년 계획도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지금 흥남 화학공장과 함남지구 큰 세 개 기업소 종업원들의 호소에 따라 북조선의 모든 곳에서 조국해방 다섯돐을 기념하는 생산경쟁운동이 널리 벌어지고 있다. 많은 기업소들이 올해 8.15까지 년간계획을 끝낼 것을 결의하였으며 은율광산과 함흥화물차사업소를 비롯한 적지 않은 기업소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2개년 계획을 벌써 올해 2월말에 완수하였다.

지난 몇 해 동안에 북조선인민경제의 지도적 부문인 공업은 훨씬 발전하였다.

1946년에 비하여 공업생산이 1947년에는 153.3%, 1948년에는 217.9%, 1949년에는 336.7%로 높아졌다.

우리는 공업을 복구만 한 것이 아니라 많은 공장들과 탄광, 광산들을 새로 건설하였으며 새로운 선진기술로 개건, 확장하였다. 1949년에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유리공장이 남포에 건설되었다. 이 공장은 건축공업과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유리제품들을 보장하여줄 것이다. 길주제지공장, 평양전구공장들이 확장되었다. 문평아연공장 건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공장은 우리 나라 유색야금공업에서 큰 기업소의 하나로 될 것이다. 올해 말에 조업을 하게 될 강서전기공장은 우리 공화국의 인민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큰 수력발전소, 야금공장, 기계제작공장, 방직공장들이 건설되고 있다. 올해에 건설이 끝나게 될 평양방직공장은 일제통치시기에 북조선의 방직공업이 생산하던 것보다 4배가 넘는 많은 천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일부 공업부문의 생산은 벌써 일제통치시기의 제일 높은 수준이던 1944년 수준을 넘어섰다.

기계생산은 1944년에 비하여 246.9%로, 경공업품생산은 152.7%로 각각 늘어났다. 공업의 식민지적 편파성은 점차 없어지고 있으며 민족경제의 토대가 닦아지고 있다. 공업생산이 나날이 높아지고 공업부문에서 내부축적이 늘어나고 있으며 공업분야에 남아있던 모든 결함들이 빨리 없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반드시 지적하여야 할 것은 38선을 계선으로 한 나라의 인공적 분열이 조선의 경제발전에도 커다란 지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 남조선은 북조선에서 많이 생산하는 전력, 석탄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물자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북조선은 남조선으로부터 여러 가지 공업원료들과 농산물들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남북의 분열은 특히 남조선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 5년 동안에 우리는 농촌경리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이룩하였다. 토지개혁의 결과 땅의 주인으로 된 농민들의 생산의욕이 매우 높아졌다. 광범한 농민대중 속에서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으며 관개공사가 전인민적 운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전부터 북반부는 우리 나라의 공업지대였으며 남조선은 우리 나라의 곡창이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의 결과 남조선에 반동통치제도가 섰으며 북반부인민들은 남반부로부터 식량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우리 인민 앞에는 우리 조국 북반부를 식량과 원료를 얼마든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지대로 만들어야 할 긴급한 과업이 나서게 되었다.

농촌경리발전을 위한 공화국정부의 옳은 정책과 농민들의 애국적 증산투쟁에 의하여 우리는 식량문제를 기본적으로 풀었다.

공화국북반부의 곡물생산량은 일제 때 수확이 제일 높은 해였던 1939년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 1944년의 곡물수확고에 비하여 1948년에는 110.4%, 가물이 몹시 심하던 1949년에도 109.8%로 높아졌으며 목화는 1944년에 비하여 1949년에는 191%로 늘어났다.

토지개혁의 결과 농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은 훨씬 높아졌다.

1949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림성이 2,466호의 농호를 망라한 42개의 농촌을 조사한데 의하면 이 농촌들에서 초등학교 수는 해방 전에 비하여 7배로, 구락부 및 도서실수는 48배로 늘어났으며 초등학교 학생 수는 2.5배, 중등학교 학생 수는 10배, 대학생 수는 6배로 각각 늘었다.

이 농촌들의 알곡수확고는 1944년에 11만 7,000가마니였는데 1949년에는 15만 가마니에 이르렀다. 1944년에 이 농촌농민들은 소작료를 물고 식량이 모자라 지주들에게서 8,000가마니의 양곡을 꾸어먹었으나 1949년에는 나라에 3만 3,000가마니의 현물세를 바치고 나머지를 다 자기의 식량으로 남겨두었는데 2만 2,000가마니를 시장에 팔고도 새 수확 년도까지 그들에게는 1만 가마니나 남게 되었다.

이 농촌들에서 지난 3년 동안에 새로 지은 집은 전 농가의 18%나 되며 새로 사들인 소는 628마리나 된다.

우리 나라 농촌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실례들은 해방 후 5년 동안에 우리 조국 북반부의 농촌경리가 어떻게 발전하였으며 농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가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지금 우리 나라 농촌경리발전에서는 국영농장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나라 북반부에는 15개의 국영 농 목장과 9개의 종축장들이 있다. 이것들은 농민들에게 새로운 영농방법과 축산기술을 보급하며 기계화된 대규모경리의 우월성을 보여 주며 많은 개량종곡과 개량종축들을 농촌에 대주고 있다.

공화국정부의 결정에 따라 1950년에 북반부에 처음으로 농기계임경소들이 나왔는데 그것은 농촌에서 영농방법을 개선하며 선진농업기술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있다, 우리 농민들은 농기계임경소들의 작업을 통하여 농촌경리기계화의 우월성을 직접 체험하고 있다.

우리 앞에 나선 당면과업의 하나는 민족간부를 길러내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앞으로의 발전과 번영은 오직 국가를 운영하며 경제와 문화를 건설할 줄 아는 준비된 간부들을 길러내는가 못 내는가에 달려있다. 그것은 간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이며 더욱이 우리에게는 민족간부가 매우 적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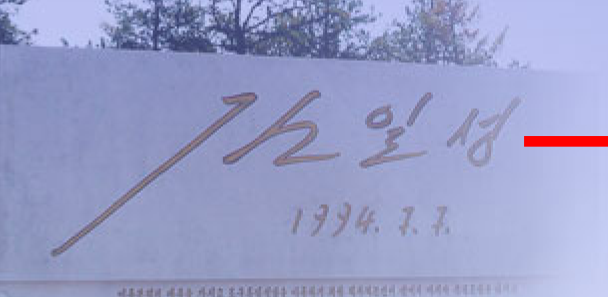
이로부터 우리는 인민교육과 문화건설 사업에 깊은 주의를 돌리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이미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1949년에 공화국북반부의 인민학교 수는 1944년에 비하여 2.8배로, 학생 수는 1.7배로 늘어났다.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 수는 22배로 늘어났으며 그 학생 수는 23배로 늘어났다. 전문학교 수는 12배로 늘어났으며 그 학생 수는 10배로 늘어났다.

일제 때에는 한 개의 대학도 없었으나 오늘은 15개의 대학에서 1만 8,000여명의 대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이밖에도 우리는 직장기술학교들과 재직간부양성기관들을 통하여 수만 명의 간부들을 길러내고 있다.

지난날 우리는 자기의 기술간부를 자체로 키워낸 일이 없었으나 올해부터 우리는 자기 손으로 키워낸 기사, 기수들을 직장으로 내보내기 시작하였다. 1949년에 기술전문학교 졸업생수는 3,



500여명에 이르렀으며 대학들을 졸업한 학생 수는 1,100여명에 이르렀다.

인민대중 속에서 널리 벌어진 문맹퇴치사업은 이미 기본적으로 끝났으며 지금은 성인들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학교와 성인중학교들이 2,300여 개나 나와 거기에서 약 16만명의 근로자들이 공부하고 있다.

보건부문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공화국북반부의 방방곡곡에는 의료기관들이 설치되고 일제통치의 악독한 결과인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없어졌으며 노동자들을 위한 많은 휴양소들과 요양소들이 건설되었다.

이와 같이 해방 후 5년 동안에 민주주의 독립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가 이룩한 성과는 매우 크다.

우리 인민은 어떻게 하여 이러한 빛나는 성과들을 이룩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첫째로 공화국북반부에 인민의 정권이 서고 이 정권이 실시한 민주개혁들이 우리 인민의 이익에 완전히 맞으며 우리 조국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보장하여주기 때문이며, 둘째로 우리 공화국정부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에 집결된 전체 인민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그리고 조선에서 가장 광범한 인민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이며 가장 강대한 정당인 노동당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지도적 역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며, 셋째로 우리가 자기 사업에서 소련과 그밖에 다른 인민민주주의 나라들의 풍부한 경험을 옳게 섭취하였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인민민주주의 제도의 승리를 보장하였다.

오늘 우리 조국 북반부의 인민들은 통일적 민주주의 독립국가건설을 위하여 굳은 신심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

3

우리 조국 남반부에는 북반부와는 전혀 다른 정세가 조성되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 대한 모스크바3국외상회의 결정을 거부하고 소 미 공동위원회의 사업을 우정 파탄시켰다. 그들은 남조선을 동방침략의 군사기지로, ≪월가≫의 독점자본가들을 위한 원료공급지와 판매시장으로 만들고 있다.

그들은 1948년 초에 조선에서 소련과 미국 두 나라 군대를 동시에 철거시키고 조선문제의 해결을 조선인민 자신에게 맡기자는 소련정부의 정당한 제의를 거부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유엔총회에 끌고 가서 거수 기를 이용하여 ≪유엔임시조선위원단≫을 꾸며내었으며 그 협조 밑에 1948년 5월 10일 남조선단독선거를 하였다.

조선의 모든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들과 인민들은 남조선단독선거와 단독괴뢰정부를 세우는 것을 반대하여 억센 투쟁을 벌이었다.

1948년 4월에 노동당의 제의에 따라 열리었던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들의 대표자연석회의에는 1,000여만 명의 당원과 맹원을 가진 남북조선의 56개의 좌익, 우익, 및 중간 정당들과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이 회의에는 오직 이승만과 같은 반역도배만이 참가하지 않았다.

4월 남북연석회의는 ≪유엔임시조선위원단≫이 미제의 식민지약탈 정책의 도구라는 것을 철저하게 폭로하고 5월 10일 남조선단독선거를 배격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망국적 단독선거에 의하여 세워지는 정부를 조선인민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또 그것은 절대로 조선인민을 대표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반동파들과 미제국주의자들은 무력과 테러와 협박으로 남조선에서 단독선거를 하고 민족반역자들과 지난날의 일제의 앞잡이들과 미제의 앞잡이들로 구성된 반동적 이승만 괴뢰정부를 꾸며내었다.

이른바 ≪국회의원≫가운데에는 조선인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나 농민은 한사람도 없다. 이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반동적 괴뢰정부의 반인민적 성격을 똑똑히 알 수 있다.

남조선에서 단독선거를 실시하고 괴뢰정부를 세운 것은 조선의 인공적 분열을 영구화하려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술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조선 30여 개의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은 1948년 6월에 다시 협의회를 열고 단독선거를 비법적인 것으로 선포하는 것과 함께 남북조선총선거를 하고 통일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며 민주주의적 중앙정부를 세울 것을 결정하였다.

조선최고인민회의 대의원총선거는 1948년 8월 25일에 남북조선 전지역에서 실시되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무력에 의거하여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이 가혹한 탄압과 테러를 감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반부에서 유권자총수의 77.52%가 선거에 참가하였으며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진행된 북반부에서는 유권자총수의 99.97%가 선거에 참가하였다.

이와 같이 최고인민회의는 조선 전지역에서 실시한 선거의 결과 세워진 조선의 최고입법기관이다.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는 우리 조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선포하였으며 헌법을 채택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세웠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은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이미 실시한 모든 민주개혁의 성과를 법적으로 튼튼히 하고 근로자들에게 진정한 민주주의적 권리를 보장하여주었으며 민주주의 통일국가창건을 위한 광활한 전망을 열어 놓았다. 이 헌법은 우리 인민의 세기적 숙망을 담은 것이다.

조선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비준된 공화국정부는 연립내각으로 구성되었는데 거기에는 남북조선의 기본적인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이와 같이 총선거의 결과 세워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에서 유일한 합법적 정부이며 전체 조선인민의 지지를 받는 정부이다.

소련정부는 조선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의 요청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 자기 군대를 철거시켰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승인하고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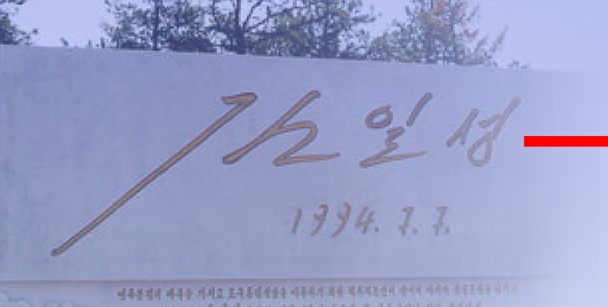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과 함께 통일된 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조선의 모든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들과 인민대중은 인민공화국정부의 두리에 굳게 뭉쳐 공화국의 정치 경제적 기초를 튼튼히 하며 조국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다.

영웅적 남조선인민들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앞잡이들이 인민의 의사를 반대하여 꾸며낸 이승만 괴뢰정부를 때려 엎기 위한 전인민적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이고 있다.

4

남북조선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남북조선의 전혀 다른 정치경제정세는 날이 갈수록 어느 길이 조국과 인민을 번영에로 이끄는 옳은 길인가를 더욱 똑똑히 보여준다.

미국군대는 소련군대가 북조선에서 철거한 뒤에도 남조선에 계속 주둔하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반인민적 괴뢰정부와 ≪한미군사협정≫, ≪한미경제원조협정≫을 맺고 우리 조국 남반부를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이승만 반역도당이 통치하고 있는 우리 조국 남반부는 반동적 테러와 폭력적 탄압이 지배하는 암흑의 땅으로 되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앞잡이인 ≪유엔조선위원단≫의 비호 밑에 이승만 매국역도는 좌익역량 뿐 아니라 자기들의 반동통치에 불만을 가지는 우익분자들까지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 이승만 경찰은 이른바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성불가침≫을 규정한 법령을 지키지 않고 열 두 사람의 ≪국회의원≫을 검거 투옥하였다.

이승만은 우익지도자인 김구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주장하였다 하여 그를 학살하였다. 이승만 도당은 괴뢰정부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았다 하여 많은 진보적 문화인들을 학살하고 있다.

이승만 도당은 미제의 총칼에 의거하여 탄압과 테러, 학살의 수단으로 남조선에서 자기의 통치를 유지하려고 날뛰고 있으며 집단적인 인민학살까지 감행하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앞잡이 이승만 도당의 반동통치로 말미암아 남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사태는 근로대중의 분노와 강력한 반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오늘 남조선의 모든 곳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정책을 반대하며 이승만 반동통치제도를 때려부수기 위한 인민들의 무장유격투쟁이 널리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세에서 우리 나라의 모든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들 앞에는 국토완정과 조국의 통일을 위한 새로운 투쟁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긴급하게 나섰다.

우리는 모든 애국적 민주역량을 묶어 세워 반동과의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이기 위하여 1949년 6월말에 남북조선 71개의 정당, 사회단체들을 망라하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하였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대회는 우리 조국에 조성된 정세를 토의하고 이승만 괴뢰정부의 테러통치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남반부인민들을 해방하며 미제의 사촉 밑에 동족상쟁의 내란을 일으키려는 이승만 도배의 책동을 짓부수고 조국과 인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평화적 통일방책을 내놓았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제의가 정당하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뻔한 것이다. 그것은 미군이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가며 미제의 침략도구인 ≪유엔조선위원단≫을 당장 물러가게 하고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들의 합법성과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것은 다른 나라의 간섭이 없이 남북조선에서 총선거를 실시하고 조선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국가제도에 대한 문제는 전체 조선인민이 자유롭게 선택하자는 것을 요구하였다.

평화적 조국통일에 대한 이 제의는 전체 조선인민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이것은 남조선에서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앞잡이들인 반동분자들의 침략적이며 반인민적인 목적과는 전연 맞지 않았다. 오직 미국무력의 비호 밑에서만 자기의 지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승만 도배는 이 제의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승만 도배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조선인민을 무서워하며 조선인민을 배반하고 있는 자기들의 반인민적 정체를 더욱더 뚜렷이 드러내놓았다.

조선인민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방해하는 이승만 괴뢰정부를 때려부수기 위한 투쟁에 일떠섰다. 이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을 매우 당황하게 하고 있다. 미제는 조선의 내정에 간섭할 구실을 만들기 위하여 이승만 도배를 부추겨 38연선에서 무장충돌사건을 자주 일으키는 한편 조선문제를 또다시 비법적으로 유엔 제4차 총회에 상정시키고 자기의 거수 기를 이용하여 제3차≪유엔조선위원단≫을 조선에 보내는 것과 같은 음흉한 책동을 감행하고 있다.

조선인민은 ≪유엔조선위원단≫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알고 있다.

미제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예속화정책의 도구인 제1차≪유엔임시조선위원단≫은 남조선에서 단독선거를 하고 이승만 괴뢰정부를 세우는 것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파견되었으며 제2차≪유엔조선위원단≫은 미제의 조종 밑에 이승만 괴뢰정부가 감행하는 인민에 대한 테러와 학살을 정당화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였다. 제3차≪유엔조선위원단≫은 이승만 괴뢰정부를 멸망에서 건져내며 조선을 영원히 미제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꾀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 새로운≪유엔조선위원단≫의 침략활동이 시작된 것을 계기로 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의 조종 밑에 이승만 매국도당은 이른바 ≪유엔경찰대≫를 남조선에 끌어들일 데 대하여 떠들고 있으며 심지어 일제와의 ≪동맹체결≫까지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의 어떠한 침략적 음모도 결코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 조선인민은 우리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청객들을 요구하지 않는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오늘의 조선인민은 어제의 조선인민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 인민은 승냥이무리들이 자기를 뜯어먹는 대로 내맡겨두는 온순한 양의 떼가 아니다.

오늘의 조선인민은 자기의 조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가지고 있으며 튼튼한 정치 경제적 기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 인민은 해방 후 5년 동안 공화국북반부에서 민주주의 건설을 통하여 주권을 쥔 인민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직접 체험하였다. 36년 동안에 걸친 일제의 식민지적 압박에서 해방된 조선인민은 자기들이 쟁취한 권리와 자유를 그 누구에게도 도로 내주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식민지노예로 되지 않을 것이다. 조선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조국을 예속시키며 약탈하는 것을 결코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 인민은 자기 조국의 완전독립과 민주주의적 발전을 보장하며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평화통일방책을 실현하는 투쟁에 일떠서고 있다. 이 투쟁은 우리 공화국의 정치 경제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이 힘차게 벌이고 있는 민주건설에서 그리고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앞잡이 이승만 매국역도를 반대하는 남반부 인민들의 대중적 항쟁과 날로 늘어가는 인민들의 빨치산투쟁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조선인민은 자기 조국의 완전한 자유와 독립을 위한 정의의 투쟁에서 결코 외롭지 않다. 평화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온 세계 인민들이 우리의 투쟁을 지지하고 있다.

노동당과 그가 지도적 역량으로 되어 있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그 두리에 뭉친 전체 조선인민은 자기 조국의 완전한 독립과 통일을 향하여,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힘차게 나아갈 것이며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고야말 것이다.

세기와 더불어

3. 로야령을 넘어

≪세기와 더불어≫ 제3권 제9장 제1차 북만원정



...

우리는 마을에서 자지 못하고 이름모를 산골안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냈다. 다음날 고보배와 오대성이 정찰임무를 받고 나가 주보중이 거처하고 있는 산막을 찾아냈다. 나는 그 산막에서 20～30명의 대원들을 데리고 병치료를 하고 있는 주보중을 만났다. 라자구 전투에서 박격포탄에 맞은 그 상처자리가 화농이 심하여 여러 달이 지나간 그때까지도 채 아물지 않았었다.

주보중은 지팡이를 짚고 대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산막에서 퍽으나 떨어진 곳에까지 나와 우리를 맞이하였다.

≪보시다시피 나는 아직 이런 신세요.≫

그는 지팡이를 들었다 내리고 나서 씁쓸하게 웃었다. 그런 다음 내 손을 으스러지게 틀어잡았다.

≪이렇게 다시 만나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소. 많이 도와주시오.≫

짤막한 인사였으나 그 음성과 눈빛에는 절절한 기대가 비껴 있었다.

나와 주보중과의 상봉은 우리의 항일무장투쟁사에서 새로운 장을 상징하는 하나의 사변이었다. 이 상봉을 시발점으로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은 중국인공산주의자들이 영솔하는 유격부대들과의 전면적인 공동투쟁의 길에 들어섰다.

우리가 중국공산주의자들이 지도하는 무장대들과의 합작을 중시한 것처럼 만주지방의 중국공산주의자들도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이끄는 무장부대들과의 연합전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방으로 노력하였다. 9.18사변 후 장개석의 무저항주의에 반기를 들고 반일부대, 구국군, 홍창회, 대도회 등의 명칭을 가진 각양각색의 항일의용군 부대들이 도처에서 태어나 일본의 침략에 도전해 나섰을 때 조중 두 나라 공산주의자들은 다같이 그들과의 통일전선에 중대한 의의를 부여하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막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노력이 얼마나 큰 결실을 가져왔는가 하는 것은 여기서 구태여 되풀이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세기와 더불어

1934년 이후부터 항일의용군의 활동은 점차 쇠퇴기에 들어섰다. 일본군의 공세가 심해지자 적지 않은 항일의용군 지휘관들은 부대들을 데리고 중국관내로 들어갔고 부분적으로는 투항하거나 비적화되었다. 일부세력은 사충항처럼 민족주의적인 사상으로부터 공산주의사상으로 지도이념을 바꾸는 방향전환의 대로에 들어섰다. 적들은 이러한 반일부대들을 가리켜 《정치비》라고 불렀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만주지방에서의 항일무장투쟁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조직지도하는 반일인민유격대들과 중국공산주의자들의 영향하에 있는 이러저러한 반일부대들을 연합하여 하나의 정연한 체계를 갖춘 군을 내오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주보중은 녕안반일유격대의 탄생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고 하면서 그 경의를 중언부언 설명해주었다. 녕안반일유격대의 밑천으로 된 것은 그가 라자구를 떠날 때 데리고 온 20명 가량의 반일병사들이었다.

길동국이 해산되고 수녕중심현위가 조직되자 군사부를 책임진 주보중은 그20명을 모체로하여 곧 무장대오를 늘리는 사업에 착수하였다. 대오는 얼마 안 있어 50여 명으로 성장하였다. 조선사람들로 구성된 유격대가 주보중의 부대에 편입되었던 것이다. 부대는 뒤이어 여러 차례의 교섭끝에 이도하자지방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던 평남양 부대와의 통합을 실현하였다.

주보중은 평남양을 통합부대 대장으로 선출하고 자기는 군사책임을 맡았다.

평남양의 본명은 이형박이다. 이형박이 본명 대신 평남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된 데는 깊은 사연이 있다고 한다.

평남양이란 남쪽을 평정한다는 뜻이다. 당시 일본침략군 무력은 녕안현 남쪽 지대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이형박은 이 일대에 둥지를 틀고 있는 일본침략군과의 결전을 자기의 사명으로 내세웠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이형박의 무장대오는 평남양부대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고 그 대오의 지휘관인 이형박이도 점차 평남양으로 불리워지게 된 것이다.

이 일화만 보더라도 평남양이 용기가 있고 애국충정에 끓는 호걸남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반일감정이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부하들의 무규율 때문에 애를 먹고 있었다. 이것은 이 부대의 통솔자이고 실권자인 주보중에게도 골칫거리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를 만나자 주보중은 자기를 대신하여 평남양과의 사업을 해 주었으면 하였다.

《평남양이 비록 영웅심이 강한 사람이지만 김사령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을 품고 있소. 자기를 구원해준 생명의 은인이 조선공산주의자였으니까.》

내가 그 믿음은 고맙지만 어깨가 무거워진다고 하자 주보중은 웃으면서 《나는 우사령과 오사령을 설복한 김사령의 특출한 감화력을 믿을 뿐이오.》라고 하였다.

주보중은 반일부대와의 관계 때문에도 골치를 앓고 있었다.

녕안현 일대에는 크고 작은 반일부대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 반일부대들 중 적지 않은 부대들이 공산주의자들을 적대시하였다. 이것은 녕안반일유격대의 활동에서 시급히 제거하지 않으면 안될 커다란 암초였다.

동경성 서쪽 북호두를 중심으로 출몰하는 대평, 사계호, 점중화, 인의협 등은 한때 평남양과 손을 잡았다가 갈라진 반일부대들이었다. 이 부대들이 공산주의자들에 대해 적의를 품고 있는 데다가 정안군이 귀순까지 권고하며 쐐기를 박고 있어 그 장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동경성 서북쪽에서 비적행위를 일삼은 쌍산, 중양 등의 반일부대들도 역시 정안군의 위협을 받고 있었으며 녕안 동쪽의 당도구 일대의 군소 반일부대들 중에서 가장 세력이 강한 강애인 부대도 일본군 13여단의 《토벌》에 혼쌀난 다음부터는 동요하고 있었다.

강애민의 관할하에 있는 부대들이 그 13여단의 등쌀에 견디지 못해 동만으로 쫓겨나온 적이 있었다. 그때 그 부대들은 식량을 약탈하며 돌아가다가 귀순신청까지 하였는데 우리 동무들이 그것을 겨우 저지시켰다.

주보중의 말에 의하면 마창 부근에 있는 채세영 부대도 이전보다는 활동이 미미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녕안에서도 왕청의 관 부대사건과 같은 점중화사건이 있었는데 그 맹랑한 변고 때문에 자기 부대는 합법적 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하소연하였다.

점중화사건이란 주보중이 평남양과의 통합을 실현하기 전에 생긴 불상사였다. 평남양의 부대가 내분으로 복잡한 진통을 겪고 있을 때 반란자들은 평남양을 위시한 반대파들에게 술을 먹인 다음 무장해제를 단행하고 도주하였다.

평남양도 싸창 없는 신세가 되었다. 평남양은 알몸만 남은 부대를 재건하기 위하여 심복부하들과 함께 귀순을 모색하고 있던 남호두 근방의 점중화 부대를 무장해제시켰다. 그리고 그 총으로 자기 부하들을 무장시켰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북만의 반일부대들은 평남양의 이름과 결부되어 있는 녕안유격대를 적으로 선포하였다.

결국 주보중의 요구는 자기네 부대를 합법화하자면 반일부대와의 관계를 풀어야 하는데 내가 그 중계자의 역을 맡아 달라는 것이었다.

주보중이 제일 크게 걱정한 것은 녕안지방의 혁명운동 실태였다. 그는 이 일대에서 혁명을 승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무능이나 불찰에 잇는 것처럼 몹시 안타까워하였다.

《동만사람들의 시점으로 보면 녕안은 혁명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무풍지대나 다름없소. 대중



의 기세가 왜 이다지도 저조한지 모르겠소. 혁명에 궐기하라고 호소해도 인민들이 곁을 주지 않는단 말이오. 이 고장 농민들의 동향이 어떤지 아시오? 지주가 못살게 굴어도 자기들은 얼마든지 살도리가 있다는 거요. 산중에 가면 흔한 것이 땅이요, 그 땅을 일구면 생계도 유지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피를 흘리며 고생스레 혁명을 하겠는가 하는거요. 국민의 관점으로 보면 땅이 넓은 것이 흐뭇한 일이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것이 계급의식을 무디게 하는 장애로 되고 있으니 우리로서는 북만주에 토지가 많은 것을 자랑해야 할지 한탄해야 할지 알 수 없는 형편이오.≫

주보중이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 땅이 많은 것이야 4억이나 되는 중화민족을 위해서 다행한 일이지.≫

주보중도 이마의 주름살을 펴고 유쾌하게 웃었다.

≪그렇지, 광대한 영토와 비옥한 토지야 만민복지의 원천이니까. 그러고 보면 내가 공연한 걱정을 한 것 같소.

김 동무, 이상 열거한 것들이 내 고충이니 잘 도와주시오. 녕안 땅에서 혁명을 앙양시킬 방도만 찾아도 발편잠을 자겠는데 나로서는 아직 속수무책이오.≫

주보중이 우리를 북만 땅에서 만났을 때 한 이야기는 대체로 이런 것이었다.

나는 주보중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능력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북만혁명이 안고 있는 난관에 비추어 볼 때 그의 육체적 조건은 너무도 나빴다. 주보중은 화농이 심한 창상자리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었다. 게다가 그의 수하에는 준비된 핵심역량이 많지 못하였다.

우리는 팔도하자의 산막에서 며칠동안 주보중과 함께 북만혁명의 발전방도를 모색하였다.

우리는 북만혁명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고충을 풀어줄 수 있는 돌파구를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는 데서 찾았다.

인민을 각성시키고 동원시키는 것만이 북만혁명을 침체상태에서 건져낼 수 있었다. 그러자면 인민들 속에 들어가서 정치사업을 해야 하며 동시에 유격대의 군사활동을 강화해야 하였다. 무장대오란 전투 속에서 커가는 법이며 혁명도 싸움속에서만 성장해 갈수 있는 것이다. 싸움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군사활동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반일부대들과의 관계도 적대관계로부터 동맹관계로 전환시킬 수 없고 점중화사건으로하여 저락된 평남양의 영상도 개선할 수 없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서 서로의 생각이 같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가 주보중의 산막에 가 있을 때 거기에는 국제공산당 만주특파원인 오평도 와 있었다. 오평은 그때 우리에게 상해에서 가지고 온 항일구국 6대강령이라는 문건을 보여주었다. 6개 항목으로 된 이 문건의 원명은 ≪대일작전에 관한 중국인민의 기본강령≫이었다. 이 문건은 중화민족무장자위위원회 준비회의 명의로 발표되었는데 거기에는 송경령, 장내기, 하향응, 마상백 등 이름있는 인사들의 서명이 있었다. 문건에 서명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중화민족무장자위위원회의 성원으로 되는데 그 성원수가 벌써 수천명이 된다고 오평은 설명하였다.

항일구국 6대강령은 일제가 공공연히 중국의 보호자로 자처하면서 무력에 의한 화북강점을 기도하고 장개석이 공산군에 대한 제5차 ≪토벌≫작전의 포문을 연 조건하에서 중국공산당이 내세운 반제통일전선정책을 반영하고 있었다. 중국혁명에서도 공산주의자들의 지향은 민족역량을 최대한으로 집결시키고 동원하는데 귀착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항일구국 6대강령을 시기적절한 문건이라고 보았다.

우리는 10일가량 오평과 마주앉아 폭넓은 담론을 하였다.

나는 오평과의 담화를 통하여 중국공산주의자들이 모택동의 전략사상에 따라 장개석의 포위를 돌파하고 북상항일의 기치 밑에 2만 5천리 대장정을 개시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국혁명이 1차 국내혁명의 실패로 인한 퇴각으로부터 부분적인 진공에로 이행하여 성과를 확대해 가고 있는 사실은 우리를 크게 고무해주었다.

중국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마련된 북상항일의 거세찬 흐름과 더불어 중국 본토에서 활발히 벌어지고 있던 항일구국운동은 동만을 비롯한 만주지방 조중 양국 공산주의자들의 혁명투쟁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줄 수 있었다.

주보중은 공동활동을 위해 우리에게 1개 소대가량의 병력을 붙여주었다. 원정대는 그 한개 소대와 함께 팔도하자의 산막을 떠났다.

며칠 후 경박호반의 석두하라는 곳에서는 조중 공산주의자들의 형제적 우의와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의 위력을 시위하는 공동투쟁의 첫 총성이 울렸다. 혁명군의 출격소식을 듣고 북호두를 떠난 200여명의 일본군≪토벌대≫가 경박호 복판에서 우리의 기관총 과녁이 되어 무리죽음을 당하였다.

우리는 연이어 방신구 근방에서 일본침략군대에 맵짠 타격을 가하였다. 북만주의 광막한 대자연 속에 연전연승만을 아로새기며 거들거리던 무적황군의 신화에는 마침내 금이 가고 때가 끼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동만유격구들에 대한 일제의 위공작전에도 하나의 뚜렷한 돌파구를 열어놓게 하였다.

녕안지방 사람들은 또다시 ≪로꼬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며 쾌재를 올렸다.

그 소문을 듣고 맨 처음으로 우리한테 달려온 사람이 바로 녕안반일유격대 대장 평남양이었다. 우리가 남호두지방에 가서 훗날 우리 왕청부대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그곳 구당조직의 핵심당원



을 만나고 서청구자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는 주보중의 전령병과 함께 내 앞에 불쑥 나타나 자기 소개도 없이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하고 연방 탄성을 질렀다.

나는 대오에 휴식명령을 내리고 그와 격식 없는 담화를 하였다.

≪지금 온 북만 땅에 **김일성**부대 소문이 자자합니다. 내 부하들은 그 소문을 듣고 여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놈들은 꼼짝 못하게 하는 김사령의 손이나 좀 잡아봅시다.≫

평남양은 두 손으로 내 손을 감싸쥐고 정겨운 시선으로 나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지금 우리 부하들이 동경성 북쪽에 가 있는데 정안군 아이들한테 혼났다는 정보를 받았수다. 일본군이나 정안군만 만나면 노상 꼼짝도 못하고 골탕을 먹어야 하니 이거야 어디 분통이 터져서 살겠습니까.≫

≪그럼 한 번 정안군과 맞다들어볼까요?≫

≪김사령네 부하대하구라면야…. 같이 싸우면 담도 커지고 배우기도 하겠지요.≫

나는 평남양의 소원대로 그가 데리고 온 40명의 가량의 대운들을 우리 원정대오에 합류시키고 그 대신 주보중이 나에게 붙여주었던 1개 소대는 평남양을 안내해온 전령병과 함께 팔도하자의 산막으로 돌려보냈다. 동시에 적의 ≪토벌≫로 하여 새롭게 조성된 동만의 긴박한 정세를 고려하여 연길중대 동무들을 간도로 돌려보냈다.

평남양이 나를 찾아올 때 주보중은 동만에서 온 통신원도 같이 보내주었다. 그 통신원이 우리에게 간도소식을 다 말해주었다.

우리는 북호두 부근을 행군할 때 전 대오에 외발자국 행군을 하도록 명령하였다.

적의 집결지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을 통과해야 했으므로 흔적을 지워버릴 필요가 있었다. 외발자국행군이란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이 행군해도 한 사람이 지나간 것처럼 선두사람이 낸 발자국 위에 발자국을 덧놓으며 나가는 행군법을 말한다.

내가 각 중대들에 임무를 주어 외발자국 행군법 뿐 아니라 발자국을 없애는 법, 분산행군법, 마을에서 숙영하는 법 등을 하나하나 익히게 하는 것을 보고 평남양은 조선인민혁명군은 유격전에 완전히 도통한 군대라고 하였다.

우리는 신안진 부근에서 평남양부대와 함께 다께우찌중좌가 이끄는 2개 대대의 정안군을 요정내고 뒤이어 중양이라는 반일부대와의 협동작전으로 대해랑하 강변에서 다른 정안군 부대를 족쳤으며 팔도하자골의 노전가라는 곳에서 정안군 기병중대와 보병 6중대를 타격하였다.

위축되었던 반일부대들이 연이어 우리를 찾아와 원정대에 합류된 것은 이런 전과 속에서 이루어진 귀결이었다.

팔도하자의 산막에 돌아와 주보중을 잠깐 만난 우리는 12월 하순에 대평, 사계호, 점중화, 인의협 등 반일부대들의 요청에 따라 또다시 목단강을 건너 신안진 부근에서 정안군을 들이치고 위만경찰서를 습격하여 도로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에서 조직한 것이었다.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군사활동에 참가하여 적들을 연속 답새기는 과정을 통하여 녕안유격대는 반일부대들과 지방의 참군 요망자들로 대오를 부단히 확대하였다.

≪김사령, 내 이제는 무서운 것이 없소. 일본군도 정안군도 다 제낄 자신이 있소. 김사령 신세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신안진 부근에서 정안군과 싸운 그날 평남양은 내 손을 잡아 흔들며 자신있게 말했다.

≪신세랄 것도 없지만 생각이 있거든 적을 많이 치시오. 군대야 싸움 속에서 단련되는 게 아니겠소.≫

나는 평남양의 손을 잡고 열정적으로 그를 고무해주었다.

우리는 원정 과정에 채세영, 강애민과도 만나 반일연합전선 문제를 의논하였다.

일본군 13여단의 공격에 만신창이 되어 갈팡질팡하던 강애민은 나를 만나려고 동만에까지 나갔다가 우리가 북만에서 활동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발로 찾아왔다. 패전을 거듭해온 부대의 지휘관치고는 믿기 어려울만치 명랑하고 혈기왕성해 보였다.

≪김대장 부대에 응원을 요청하려고 사실은 왕청에 갔댔는데 방진성이란 사람은 자기네도 형편이 어려워 남을 지원할 여지가 없다고 하면서 딱해 하지 않겠습니까. 김대장, 우리를 좀 도와주시우다.≫

강애민은 대부대의 지휘관이라는 체면 같은 것은 전혀 염두에도 두지 않고 자기의 고충을 솔직하게 터놓았다.

방진성은 우리가 북만으로 온 다음 우리 부대의 연대장으로 부임된 중국지휘관이었다.

우리는 평남양 부대와 군소반일 부대들과의 협동작전 과정을 통하여 많은 것을 체득하였다. 원정대가 자기의 사명으로 내세웠던 군사정치적 목적은 비교적 원활하게 성취되어 가는 셈이었다.

훗날 원정을 끝내고 간도로 돌아간 우리는 북만에서 주보중이 녕안반일유격대를 기간으로하여 동북인민혁명군 제5군을 건설하는 데 성공하였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우리 원정대와 더불어 북만의 설한 속을 누비며 전투적 우의를 두터이하던 대부분의 반일부대들이 5군 산하에 들어갔다.

5군의 간부들 중에는 북만원정 시절의 나의 지기들이 적지 않았다.

평남양은 제1사 1연대장을 하다가 사장으로 승급하였고 채세영은 제2사장을 하다가 부군장으로 되었다. 강애민은 2사에서 5연대를 지휘하였다. 그 부대들에는 우리와 함께 혈로를 헤쳐온 조선공산주의자들도 적지 않았다.

나는 5군이 조직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 로야령 너머에서 녕안 땅을 그려보며 주보중을 축복하였다.

. . .

천출명장과 총대

군사문제연구원 노영 / 구국전선 463호, 주체90(2001)년 12월 21일



누구에게나 존경하는 분이 있듯이 나에게도 숭배하고 따르는 분이 있다. 그분은 바로 세인이 경모하는 **김정일**최고사령관이시다.

내가 그분을 숭배하는 것은 한마디로 위인상에 매혹되었기 때문이다.

김정일최고사령관에 대한 나의 숭배심은 오랜 기간 이북을 연구하는 과정에 이루어졌다.

내가 알게 된 **김정일**최고사령관은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덕망을 지니신 성인일 뿐만 아니라 정치인의 자질과 능력, 군사가로서의 예지와 배짱 등 위인적 풍모를 다 갖춘 분이시었다.

그분의 탁월한 영도에 의해 이북은 중중첩첩의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며 더 좋은 내일로 나아가고 있다.

지금 일부 보수계층 속에서 이북을 헐뜯고 있지만 이들은 실상 이북의 막강한 국력을 너무도 모르고 있다.

세계에는 큰 나라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땅이 크고 인구가 많아 국력이 강한 것도 아니며 경제가 발전하고 돈이 많아 국력이 강한 것도 아니다.

오직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명예, 이익을 자기의 힘으로 지켜낼 수 있을 때라야 진짜로 국력이 강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다.

고금동서에 국력이 약해 자기의 존엄과 이익을 지키지 못한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의 세계만 보아도 유일초대국을 자처하는 미국은 힘에 의거하여 세계를 좌지우지하며 남의 나라 내정에 제멋대로 간섭하고 있다.

이라크나 아프간 등 주권국들에 대한 무차별폭격은 미국의 오만성과 파렴치상의 극치로 된다.

하지만 이 나라들은 미국의 맹폭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다.

이것은 국력이 약하면 자기를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예이다.

미국은 이북에 대해서도 고립압살정책을 실시해 왔다.

국토분단이후 반세기이상 지속되어 온 미국의 대북정책은 이북을 없애기 위한 제재의 연속이었고 군사, 정치적 압력과 공갈의 연속이었다.

60년대의 ≪푸에블로≫호사건이나 70년대의 판문점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은 이북을 침략하기 위한 미국의 의도적인 도발이었으나 그때마다 수치스러운 고배를 마신 것은 미국자신이었다.

특히 90년대에 있은 북미대결은 절정을 이루었다.

미국은 북의 ≪핵개발≫을 구실로 이북에 대한 특별사찰을 강요했다.

미국은 힘으로 저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팀스피리트93≫합동군사훈련을 재개하고 추종국들을 동원한 집단적 제재까지 운운하며 이북을 위협공갈했다.

세계의 초점은 이북에 쏠렸고 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되었다.

노예로 사느냐 아니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사느냐 하는 판가리시각에 이북에서는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최고이익을 지키기 위해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관한 최고사령관명령이 하달되고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한다는 정부성명이 발표



되었다.

이북의 메가톤급강타에 미국은 또 한번 쇼크를 당했다.

숨죽였던 세계가 경탄했다.

마침내 미국은 항복서와 같은 대통령의 담보서한을 **김정일**최고사령관께 보내는 것으로 무릎을 꿇었다.

미국이 아무리 큰소리쳐도 절대로 굽어들지 않고 자기의 소신을 마음껏 펼치며 마치 튀어오르는 공처럼 더욱더 강경자세로 맞서는 이북의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천출명장이신 **김정일**최고사령관의 현명한 영도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 그분께서는 총대철학에 기초한 독창적인 선군정치와 선군혁명영도로 민족의 자주권도 지키고 경제도 발전시켜 나가고 계신다.

≪총대위에 평화도 있고 사회주의도 있다.≫

김정일최고사령관의 총대철학은 복잡다단한 오늘의 정세하에서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지켜낼 수 있는 보검으로 되고 있다.

사실 동유럽에서의 소련식사회주의 붕괴후 이북은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북이 미국을 위시한 제국주의연합의 포위환 속에서 증대되는 정치, 경제, 군사적 압력에도 끄떡없이 사회주의를 고수할 수 있은 것은 바로 총대중시철학에 기초한 선군정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선군정치는 한마디로 군사를 모든 사업에 앞세운다는 것이다.

즉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만들어 조국을 보위하며 군대를 핵심으로, 본보기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고 군대를 기둥으로 내세워 전반적 사회주의건설을 밀고 나가는 정치방식이다. 선군정치는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민중이라는 독창적인 군중시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경제는 주저앉았다가도 일어설 수 있지만 군대가 약하면 나라도 민족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이 이북의 지론이다.

이북은 민족적 자주권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있으며 이것을 총대로 지켜가고 있는 것이다.

이북의 국력, 이는 곧 선군정치의 위력이고 총대의 위력이다.

자고로 역사는 수많은 명장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들 중에는 창과 칼을 잘 써 명성을 날린 이도 있고 지혜로 적을 이겨 이름을 날린 이도 있다.

그러나 **김정일**최고사령관과 같이 문무를 겸비하고 천재적 예지와 무비의 담력, 배짱을 지닌 명장은 없다.

김정일최고사령관을 만민이 천출명장으로 칭송하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북은 바로 천출명장을 모시고 있기에 강한 것이다.

재일교포군사평론가 김명철씨가 자기의 저서에서 이북을 ≪전갈≫에 비유한 것은 이북의 위력에 대한 적중한 비유라고 본다.

전갈의 몸체는 비록 작지만 강한 독침으로 적수를 찔러 쓸어눕힌다.

크지 않은 이북이 전갈과 같이 그 어떤 적수와도 자신만만하게 맞서고 맞서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총대중시철학에 기초한 선군정치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 부시행정부가 대북강경책을 쓰며 전쟁도 불사할 것 같이 떠들지만 그것은 마치 고슴도치 앞에서 으르렁대며 돌아가는 허리부러진 늑대를 연상케 할 뿐이다.

나는 단언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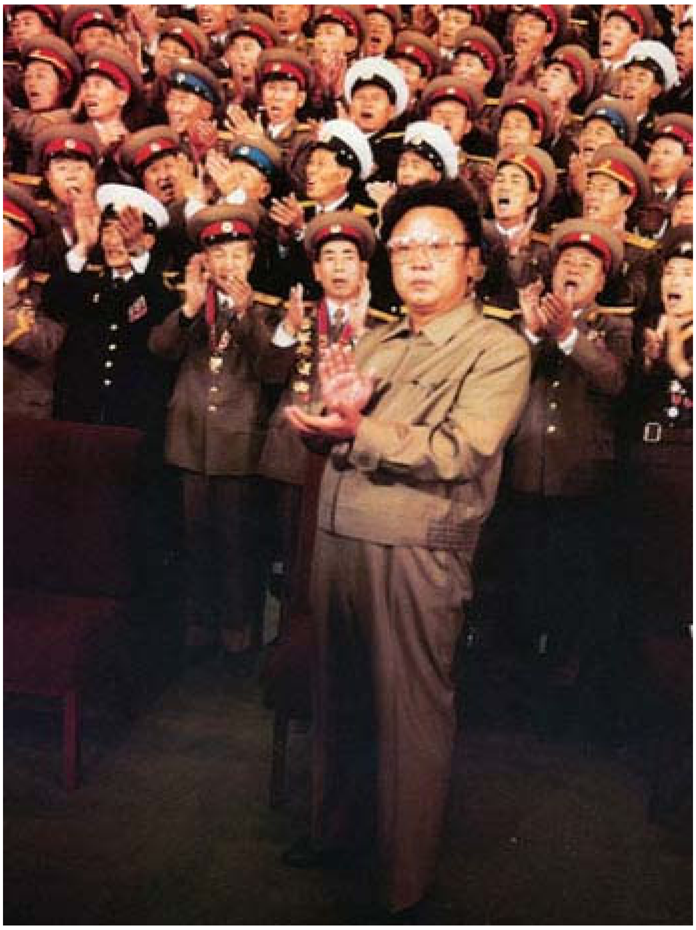
이북을 당할 자는 세상에 없다고.

나는 자신이 불세출의 천출명장을 경모하고 따르는 것을 더없는 긍지와 자랑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늘이 낸 명장을 통일조국의 영수로 모시고 7천만이 하나될 때 우리 민족은 더욱 강한 민족으로 세계에 자리잡게 될 것이다.

김정일장군님과 무적필승의 강군

진용찬 / 구국전선 463호, 주체90(2001)년 12월 21일



역사에는 이름을 떨친 명장들과 영웅호걸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인류가 바래온 그런 장군은 없었다.

인류가 이상으로만 그려보던 그런 천하명장이 우리 시대에 출현했다.

그분은 바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이시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민족과 민중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무한한 헌신성을 지니시고 그 어떤 대적도 다 물리치신다.

일반적으로 명장의 지략과 용맹은 민족의 사활을 결정짓는 침략자들과의 대결에서 과시되고 평가된다.

바로 **김정일**최고사령관을 그러한 능력의 소유자이시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김정일최고사령관의 탁월한 군사적 지략과 강철의 의지, 무비의 담력은 몇가지 공개된 사실만으로도 잘알 수 있다.

1980년 3월 미국은 ≪팀스피리트≫한미합동군사훈련에 16만명의 대병력을 동원하여 하늘과 땅, 바다에서 화약내를 짙게 풍기었다.

그들의 공격서열은 어느덧 군사분계선에 가까운 최전방으로 향해지고 있었다.

적정을 보고받으신 그분께서는 적들이 최전방가까이에 기여나오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인민군부대들의 대기동을 단행할데 대한 명령을 내리시고 몸소 작전대 앞에서 그를 지휘하시었다.

이것을 알게 된 적들은 당장 무슨 일이 터질 줄 알고 훈련비상으로부터 전투비상으로 이전하느라고 북닥소동을 피웠다. 결국 ≪팀스피리트80≫합동군사훈련은 가장 중요한 대목에 와서 파탄되고 말았다.

김정일장군님은 강철의 의지와 무비의 담력을 지니고 계신다.

1993년 북에 대한 국제반동세력의 어마어마한 ≪특별사찰≫과 ≪집단제재≫가 목전의 현실로 되어가고 있던 때 세계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불가피한 것으로 단정했다.

그처럼 팽팽한 정치, 군사적 대결이 평화적으로 해소된 예는 일찍이 없었기 때문이다.

김정일최고사령관의 명령으로 북은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그로부터 4일만에는 핵확산금지조약에서의 탈퇴를 선포했다.

이 중대소식에 접한 세계는 놀라움과 찬탄으로 들끓었다.

≪한단계 더 높은 군사적 대응≫,≪가장 정당한 자위적 조치≫ 이것이 그때 공정한 세계여론의 일치한 평이었다.

어떻게 크지 않은 나라가 ≪세계의 유일초대국≫에 땅땅 맞설 수 있는가!

세계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북에서 전쟁이 오늘이냐 내일이냐 하며 온 세상사람들이 가슴을 조이던 그 엄혹한 나날 **김정일**장군님께서 새로 건설한 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보시는 여유작작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처럼 그 어떤 대적 앞에서도 눈썹하나 까딱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무비의 담력은 결국 미국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 그래서 조미고위급회담이라는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

1993년 6월 적대적 관계에 있던 북과 미국사이에 역사상 처음으로 조미공동성명이 발표됐다.

그리고 1994년 10월 미국은 핵문제의 전면적 해결에 관한 조미사이의 기본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에 **김정일**장군님께 미합중국의 클린턴대통령은 담보서한까지 보내었다.

이것은 노련한 정치적 영도자, 비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만이 이룩하실 수 있는 위대한 승리였다.

그분께서는 이처럼 총 한방 쏘지 않고도 승리자가 되시고 평화와 사회주의의 수호자가 되시었다.

미국의 ≪**김정일**전략연구소≫와 미국방성의 관계자들이 ≪북조선군수뇌부의 영도의 특징은 첫째로 판단이 정확하고 둘째로 결심이 단호하며 셋째로 타격에서 무자비한 것≫이라고 한 사실을 통해서도 그분의 뛰어난 지략과 담력을 잘알 수 있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뛰어난 군사적 예지와 지략을 지니고 계신다.

1991년에 있은 만전쟁초기에 세계의 많은 정세분석가들과 군사전문가들은 만만치 않게 맞서는 쌍방의 기세를 보며 이 전쟁은 장기전으로 될 것이라는 것,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러한 예측을 부정하시었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전쟁은 단기전으로 끝난다는 것, 절대로 확대되지 않으며 그 영향은 한반도에 직접적으로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결론하시면서 그에 대처할 준비를 미리 갖추도록 조치를 취하시었다.

그분께서 예견하신대로 만전쟁은 불과 40여일만에 끝났다.

김정일장군님의 영군술이 오늘 그처럼 세계의 관심사로 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무장력에 대한 그분의 견해와 관점이 위대한데 있다.

지금까지 세계군사계에서는 ≪무기중심론≫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군인을 기본으로, 무기보다 그 담당자인 군인을 무장력의 주체로 보고 계신다.

그래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미 조선인민군을 하나의 사상으로 정신무장시키는 것을 군건설의 첫 공정으로 삼게 하시었다.

그분께서는 군초소들을 자주 찾으시어 군사훈련과 군사사업을 지도하신다.

1996년도만 하여도 판문점과 군사분계선을 지척에 둔 351고지 등 최전연초소들을 찾으시어 장병들에게 주체적인 전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생활을 세심히 보살펴 주시었다.

그분께서는 언제나 사병들과 함께 있는 때가 제일 기쁘다고 하시며 그들이 있는 곳이라면 최전연초소에 이르기까지 그 어디나 찾아가시고 그들의 군사임무수행에서 제기되는 문제들과 생활의 구석구석을 보살펴 주시었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한 해안초소의 여성포병들이 바닷바람에 살결이 튼 것을 보시고 약크림과 고약을 보내주시었다.

북에서는 군인들의 자그마한 긍정적 소행도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값있게 생을 마친 군인영웅들의 동상이 세워지고 구분대와 모교들이 그들의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다.

참으로 **김정일**장군님은 명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품격을 완전무결하게 겸비하신 희세의 영장이시다.

그러니 어찌 만고절세의 영장을 모신 군대와 국방력이 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북의 사회주의가 승승장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무적필승의 강군 이북군대를 당할 자는 이 세상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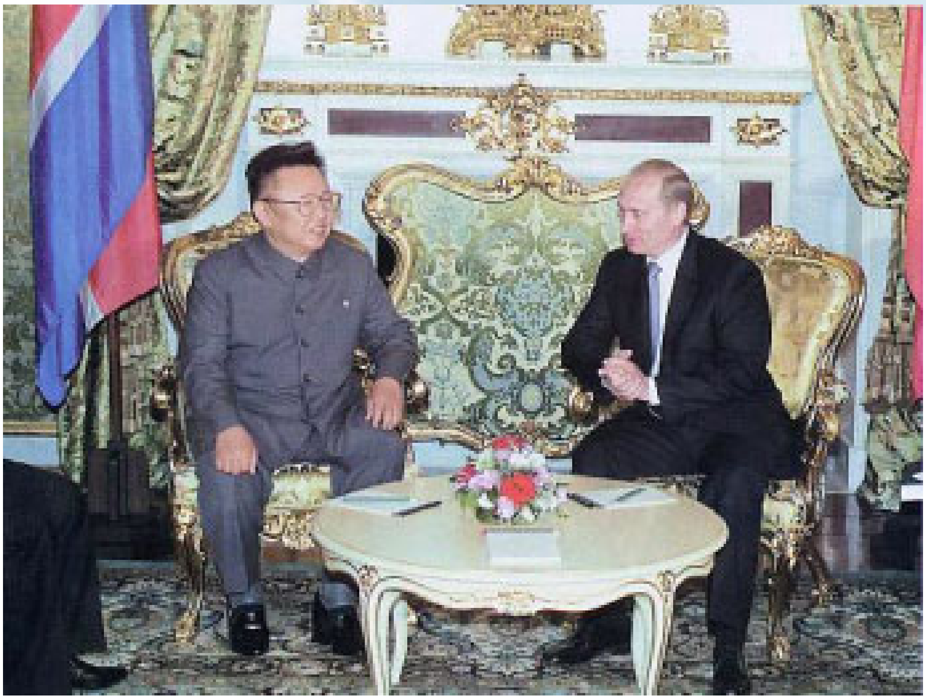
1994년 12월 미군직승기가 이북영공에 침입했다가 단방에 격추된 사실은 이북군대의 위력을 다시금 과시했다.

하기에 오늘 이 지구촌에서 그 어떤 강적도 물리칠 수 있는 무적필승의 강군이 어느 나라 군대인가고 묻는다면 세계 수억만인류는 한결같이 **김일성**주석님께서 창건하시고 **김정일**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이북의 군대라고 서슴없이 대답할 것이다.

정말 이북의 군대처럼 그렇게 일심단결되고 관병일치가 독특하며 자기 영도자에 대한 숭배심이 강한 군대와 민중은 이 세상에 없다.

그렇기때문에 세계의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는 세계 수억만인류는 세계평화의 수호자이시며 21세기의 태양이신 **김정일**장군님을 그토록 높이 존경하고 흠모하고 있는 것이며 그분의 건강과 안녕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조-러모스크바선언 발표



김정일장군님께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2001년 7월 26일부터 8월 18일까지 러시아에 체류하셨으며 8월 4일과 5일 공식방문하시어 조-러모스크바선언에 서명하셨다. 조-러모스크바선언은 전통적인 조-러 친선관계를 회복하고 한층 강화하였다. 선언은 6.15공동선언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고 주한미군철수투쟁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더욱 확대강화할 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또 1972년의 요격미사일제한조약의 유효성을 세계 앞에 분명히 밝혀 미제국주의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부쉬정권의 대북적대시정책

부쉬 행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이북 위협론≫을 내세워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였다. 미국의 대북강경발언들과 이남에서의 각종 군사훈련이 이어졌으며, 이남을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의 전초기지로 삼기 위해 무기강매 기지개편 등이 강요되었다.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으로 인해 6.15공동선언 실현이 심각한 난관에 봉착하였다.



항공기 습격사건과 미아프간전쟁

2001년 9월 11일 국제무역센터, 미국방성 건물, 백악관으로 동시다발 항공기습격사건이 발생하였다. 부쉬 행정부는 이 항공기 습격사건을 ≪전쟁≫으로 규정하고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공표하고 그 희생양으로 빈 라덴과 아프간 탈레반 정권을 지목하였다. 미국은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테러≫아니면 ≪반테러전쟁≫이라는 극단의 선택을 강요하였고, 한반도가 ≪테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이남에 비상경계령을 내려 남북관계를 가로막아버렸다.





고이즈미내각의 군국화책동





고이즈미 내각이 들어선 이후 일본의 군국주의화는 이미 그 위험수준을 넘어섰다.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테로대책특별조치법≫ 통과, ≪유사시법제≫정비, ≪h-2a≫미사일 발사, ≪자위대≫ 아프간 파견 등 올 한해 일본의 군국화를 위해 벌어진 일들은 나열하기조차 숨가쁘다.

8.15민족통일대축전



2001년은 민간차원의 남북교류가 분단이후 최초로 최대의 규모로 진행되었다. 남북노동자5. 1절대회, 민족통일대토론회, 남북농민통일대회가 민족적 단결의 의의깊은 성과들을 남기며 치루어졌다. 8. 15민족통일대축전은 그 총화의 장으로 6. 15공동선언을 기치로 한 민족통일전선의 토대를 닦았다. 한편 8월 21일 방북대표 15명이 연행되고 그 중 7명이 구속되었던 사태는 통일운동세력으로 하여금 반통일세력을 제거하는 투쟁의 중요성을 각인하게 하였다.



반이회창 투쟁

올해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반이회창 투쟁이 활발하게 벌어졌다는 점이다. 충북대에서 이회창은 학생들의 거센 저지에 부딛쳤고, 건국대에서는 대학생들의 저지로 아예 학교 문안에 들어가보지도 못하였다. 하반기에 대학생들은 이회창 정치활동 감시단을 만들어 이회창의 일거수 일투족을 국민들 앞에 폭로하였다. 인터넷 공간에는 반이회창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고, 한 네티즌은 이회창이 대통령이 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한 책까지 써냈다. 한나라당의 반개혁성 반통일성에 대한 분노로 하여 한나라당사 앞은 각종 집회와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반조선일보 운동



2001년은 반조선일보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도 특기할만하다. 조선일보거부 지식인선언, 민주노총의 조선일보구독거부, 전대기련 학생기자들의 기자회견과 전국 대학 신방과 학생회장들의 조선일보 입사거부선언, 각 대학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안티조선모임들, 그 모임들이 집결한 전국대학생조선일보반대모임, 그리고 영화인들의 반조선일보 선언, 그야말로 반조선일보운동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한총련 혁신운동



한총련 내의 관료주의와 분파주의를 극복하고 학생운동이 민족과 역사 앞에 주어진 중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이 치열하게 진행된 한 해였다. 기층으로부터의 혁신과 단결의 요구는 한총련 정기중앙위원회와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모아지며 임시의장이 아닌 후보가 의장으로 당선되는 이변을 낳았다. 올해는 이러한 혁신과 단결의 요구를 무시한 한총련 주도운동가들의 전횡과 파행에 의해 한총련이 1년 내내 몸살을 앓았던 해이기도 하다.



진보정당건설운동 본격화

2001년 민족민주운동 내에서는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던 것이 괄목할만하다. 올해 초 전국연합이 대의원대회에서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조직적 태세를 갖추기로 결의한데 이어, 민주노동당이 정기당대회를 통해 재창당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하반기 한총련에서도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였고, 지난 9월 전국연합은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건설과 민족민주정당 건설을 정치방침으로 채택하였다. 여기에 지난 12월 14일 민주노동당이 2002년 양대선거와 진보정당 재창당에 관한 방침으로 ≪완전개방형 예비선거제≫와 ≪통합진보정당의 창당≫을 제안하는 데까지 이르러, 바야흐로 진보정당건설운동에 봇물이 터진 해라 할 것이다.





인터넷선전전 강화



2001년은 청년주체주의자들의 인터넷 선전전이 비약적으로 강화된 한 해였다. 올해 내내 구국의 소리 방송이 인터넷상에 정상적으로 배포되어 신속성 정확성 안정성의 근본적 혁신을 이루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과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전위당의 노선과 정책을 전파하는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며 월간 ≪통일여명≫과 새형의 출판보도물 ≪6. 15주간≫이 정기적으로 발간되었다. 게다가 ≪고난의 행군≫시절 폐기되었던 각종 학습자료들을 전산화하여 인터넷상에 배포하는 방식으로 거의 다 복원하였으며 또 절대로 파괴되지 않게끔 되었다. 이러한 선전사업으로 인해 장군님의 위대성과 전위당의 노선과 정책, 주체사상에 대한 선전이 자연스러운 일로 정착되었으며, 청년주체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인터넷 배포체계가 그 위력을 증명하였다.

≪한민전≫중앙위원회에서 축하문

(평양 12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추대되신 10돐에 즈음하여 그이께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에서 24일 축하문을 드리였다.

축하문은 만고절세의 령장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우리 겨레가 받아 안은 민족적대경사였으며 주체위업완성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고 지적하였다.

축하문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신 10돐이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84돐을 맞는 자기들은 어머님의 한생을 감회깊이 되새겨 본다고 지적하였다.

축하문은 위대한 **김정숙**동지께서 주체위업의 찬란한 미래를 안아 키우시여 **김일성**민족의 가슴마다에 영원한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행운을 안겨주신것은 영원무궁토록 길이 빛날 특기할 대공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총대로 개척하신 주체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할 철석의 의지를 지니시고 선군혁명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조선인민군을 일당백의 강철의 전투대오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고 축하문은 지적하였다.

축하문은 지금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희세의 령장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수호의 최정상에 높이 모신 한 없는 민족적자긍심에 넘쳐 있다고 지적하였다.

축하문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로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을 마련하시여 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 주시고 온 겨레를 현명하게 이끄시기에 조국통일은 확정적이라고 지적하였다.

한국민족민주전선 대변인 성명

지금 우리 민중은 미제침략군의 대규모아파트건설책동에 대해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이 땅을 강점한 미제침략군은 아무런 사전합의나 통보도 없이 미군사령부가 있는 서울 용산기지에 2004년까지 장교가족용아파트 2개동 96가구를 짓고 연이어 10단계에 나누어 20개동 1,066가구를 건설하는 등 미군기지들에서 모두 3,800여 가구의 대규모 아파트신축공사를 계획하고 미군극동공병단을 동원해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미제침략군이 이 땅을 영원히 타고 앉으려는 흉악한 목적의 발로이며 우리 민중의 자주통일지향에 대한 정면 도전행위이다.

한국민족민주전선은 미제침략군의 대규모아파트건설책동을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미군영구주둔책동으로,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유린행위로 낙인하고 전국민의 이름으로 준열히 단죄규탄한다.

새 세기에 들어선 오늘까지도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한반도지배야망을 버리지 않고 주한미군영구주둔을 각방으로 획책하고 있다.

미국은 있지도 않는 이북의 그 무슨 ≪위협≫설을 여론화하며 현대적 전쟁장비들을 이 땅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아프간전쟁의 불티를 어떻게 하나 한반도로 옮겨 놓기 위해 갖은 모략과 책동을 다하면서 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있다.

얼마전에 있은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는 주한미군유지비의 대폭 인상을 강요하고 용산기지, 매향리사격장 등 주요군사기지반환을 회피한데 이어 이번에는 오만하게도 경향각지의 미군기지들에 대규모아파트단지건설까지 강행해 나서고 있는 것은 미국의 검은 흉심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땅 미군기지 되찾기 전국공동대책위원회≫, ≪소파개정국민행동≫을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각계층 민중은 미제침략군기지내의 아파트건설책동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강도행위로 단죄규탄하면서 결사배격해 나서고 있는 것이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현 한국군사당국이 ≪미군의 사기와 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얼빠진 소리를 하면서 용산미군기지의 아파트건설을 허가하고도 전혀 모르는 일로 발뺌하고 기지이전문제협의니 뭐니 하는 기만극으로 고조되는 각계민중의 반미기운을 무마하기 위해 오그랑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미제침략군주둔을 결사반대하는 우리 민중의 투쟁에 도전하는 대범죄행위이며 반민족적, 반통일적 매국행위이다.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갈 것을 명시한 6.15공동선언의 기치따라 우리 민중은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 있으며 그 기본장애물인 미제침략군철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민중의 견결한 반미의지를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망상에 빠져 영구강점을 꾀할 것이 아니라 침략군대를 즉시 철수하고 군사기지들을 반환해야 한다.

전국민은 21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치켜들고 미제침략군철수투쟁에 총분기해 나서야 한다.

현당국도 사대매국적인 친미굴종자세를 버려야 하며 전국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의지를 바로 보고 미제침략군철수를 강력히 요구해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 한민전은 미군영구주둔책동을 추호도 용납치 않는 전국민과 함께 반미자주화투쟁의 불길을 더욱 거세차게 지펴올려 민족자주권확립과 조국통일의 그날을 앞당겨 오고야 말 것이다.

주체90(2001)년 12월17일
서울

새해맞이 공동행사를 반드시 성대히 성사시키자

우리는 21세기의 첫해를 투쟁으로 장식하고,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할 결의에 충만해 있다. 2000년 격동의 한해를 맞이했던 감동 그대로 2001년을 6.15남북공동선언의 기치 높이 투쟁하고 또 투쟁하였다. 한계와 오류도 많았으나, 그것은 부분적이었으며, 계속전진 계속혁신의 나날이었다. 7천만 겨레의 힘찬 전진의 역사에 충청총련 15만 대학생들도 투쟁으로 화답하고, 애국으로 달려왔다.

우리는 이러한 한해의 자랑찬 역사를 15만 학우들의 승리로, 중부권 애국민중의 성과라 확신한다. 이렇듯 한해를 맞이하는 뜻 깊은 시기인 지금 이북에서의 적극적인 새해 맞이 행사 제안을 우리는 전적으로 환영하고, 이를 반드시 성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남과 북의 만남이 곧 통일이요, 통일은 곧 만남이다. 최근 들어 미국과 반통일 세력은 어떻게 해서나 남과 북의 만남을 가로막고, 민족을 갈라놓으려 한다. 이른바 악명 높은 ≪투 코리아 정책≫으로 이 땅을 영구 분열 시키려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은 이미 대세이며, 문제는 그 시기이다.

우리는 1948년의 남과 북의 재 정당 사회단체의 전체 민족이 하나로 모여 통일을 논의하였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남과 북의 민족적 대화합이 계속해서 활성화 될 것을 애타게 바라고 있으며, 이는 곧 통일로 된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다.

지금의 남북의 공동 새해 맞이 행사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전체 민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55년만에 처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행사인 만큼 그 의미는 참으로 크다. 새해 맞이 공동행사는 단순히 새해 맞이 행사가 아닌 통일을 부르짖는 민족의 경사라 될 것이라 확신한다.

당면해서는 아직도 시대 착오적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양하게 방해 나서고 있는, 미국과 반통일 세력에게 된 타격을 가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이북의 깡패 국가라 지목하고 남북간의 교류에 본질적인 악형을 끼치고 있다. 전쟁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여, 있지도 않은 이북의 인권 문제까지 조작하며 온갖 방해를 다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거짓 선전을 단호히 규탄하고, 우리 민족의 통일을 우리 민족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당국은 아직까지 이적단체를 운운하며 애국하는 조직 한총련과 범민련에 대해서만 유독 악랄하게 탄압하는 반통일 세력에 된 타격을 가하여야 할 것이다. 당국은 진정 6.15공동선언 이행의 의지가 있다며, 새해 맞이 행사의 이런저런 구차한 변명과 제약을 두기보다는 행사가 성대하고, 뜻깊게 치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나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 민족의 통일은 그 누구의 힘도 아니고 전체 7천만 민족의 힘으로 성취할 것이다. 민족의 경사로 되고, 통일의 밑거름으로 될 2002년 남북공동 새해 맞이 행사를 성대하게 치루어 내는 것도 다름 아닌 바로 우리 민족이다.

충청총련 15만 대학생들은 대국민 선전 홍보 활동부터 시작하여, 다각적으로 새해 맞이 행사를 전체 민족이 함께 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 계속해서 통일의 시간표에 먹구름을 들이밀고 있는 지금 새해 맞이 행사의 성대한 성사로 통일 정세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한 걸음 더 통일로 내 달릴 것이다. 또한 미국과 반통일 세력의 방해 책동을 15만 대학생의 힘으로 완전히 분쇄하는 투쟁을 전개함으로서 우리의 행사로 치루어 낼 것을 결의한다.

새해 맞이 행사의 성대한 성사로 6.15공동선언 이행하자!!
6.15공동선언 지지 관철로 통일 조국 앞당기자!!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 12월 20일
애국의 열정 승리의 확신
8기 충청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통일부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재개 촉구에 대한 논평

통일부는 ≪남쪽이 용단을 내려 온 겨레가 납득할 수 있는 전환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하루빨리 남북관계가 정상궤도에 들어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한 북쪽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에 대해 20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전제조건 없는 대화재개를 촉구했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북관계를 대화와 협력의 관계로 개선발전시킨 민족자주, 민족단합, 통일지향선언이다. 따라서 6·15남북공동선언 후속조치로 이어지는 남북간의 대화는 민족의 화해와 단결을 위한 대화로 되어야한다.

지난 5차까지의 남북장관급회담은 6·15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부합되게 남북간에 현안문제를 풀고 합의를 내옴으로써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발전시켰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대화 상대방에 대한 적대의사를 포기하고, 존중하며 대화성사를 위한 성의있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6차 남북장관급회담은 일련의 남북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와 합의가 이회창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반통일보수집단의 공격의 대상, 문책의 대상이 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홍순영 통일부장관의 무성의한 태도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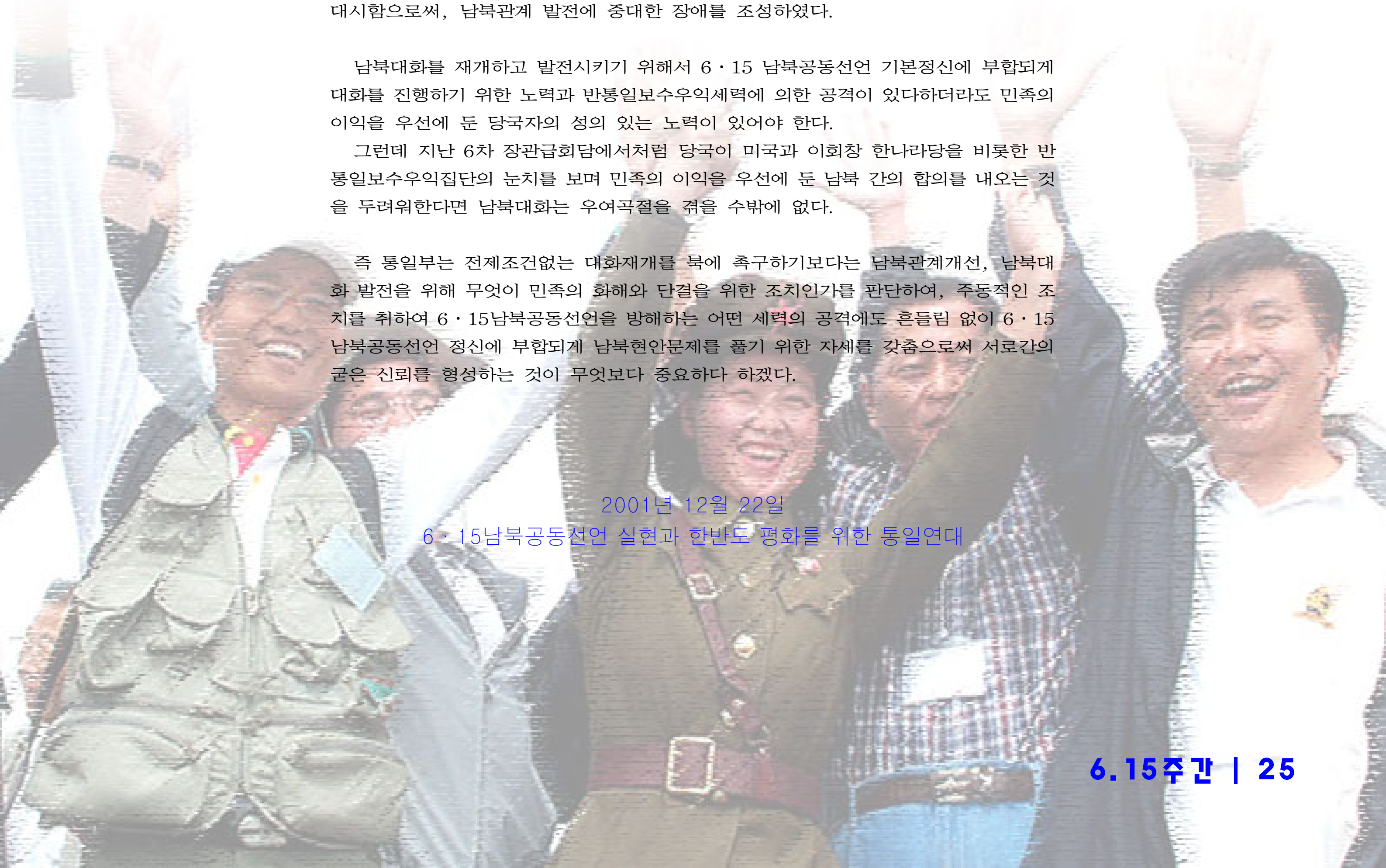
또한 미국의 아프간침략전쟁후, 우리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내정간섭은 미군사력증강배치를 비롯하여 북을 상대로 한 비상경계조치와 한미합동군사훈련으로 이어지면서, 6·15남북공동선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민족공조보다 외세공조를 강화하고 북을 적대시함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에 중대한 장애를 조성하였다.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6·15 남북공동선언 기본정신에 부합되게 대화를 진행하기 위한 노력과 반통일보수우익세력에 의한 공격이 있다하더라도 민족의 이익을 우선에 둔 당국자의 성의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 6차 장관급회담에서처럼 당국이 미국과 이회창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통일보수우익집단의 눈치를 보며 민족의 이익을 우선에 둔 남북 간의 합의를 내오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남북대화는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다.

즉 통일부는 전제조건없는 대화재개를 북에 촉구하기보다는 남북관계개선, 남북대화 발전을 위해 무엇이 민족의 화해와 단결을 위한 조치인가를 판단하여, 주동적인 조치를 취하여 6·15남북공동선언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의 공격에도 흔들림 없이 6·15 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부합되게 남북현안문제를 풀기 위한 자세를 갖춤으로써 서로간의 굳은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2001년 12월 22일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미공군사력 F-15철수에 대한 논평

주한미군 군사력 보강을 위해 증강배비된 F-15 1개 대대급 전력을 곧 철수 할 것이라고 주한미군관계자가 20일 발표하였다.

F-15 증강배치는 이북을 상대로한 준전시상황의 선포라 할 수 있는 한미연합사령관 토머스 슈워츠의 이름으로 한미연합군에게 발동된 비상경계령과 우리 군 당국의 대북감시태세 강화, 미군사력한반도 증강배치로 남북군사대결을 심각하게 조성한 우리나라 군 당국의 비상경계조치의 일환으로써, 아프간 침략전쟁후 한반도 전력공백을 막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에 이루어진 한반도 비상경계조치의 핵심인 증강배비된 미공군사력 F-15의 철수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조치를 완화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크다 하겠다.

그러나 F-15가 철수했다고 해서 비상경계조치가 완전히 해제된 것은 아니다. 또한 비상경계조치를 비롯한 첨예한 군사적 대결상태를 발생시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어 남북대화와 협력, 6·15남북공동선언 이행의 중대한 장애를 조성할 수 있는 조건이 농후하다.

이번 비상경계령 발동에서 보여진 것처럼,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이 유지되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북적대시정책을 강요하는 한 한반도는 언제나 첨예한 준전시 상태만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대결상태는 남북간의 정치적 대결상태를 조성하여, 남북관계 개선에 장애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제 비상경계조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미공군사력인 F-15가 철수한다고 하니, 통일연대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단계적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하며 환영한다.

그러나 F-15가 철수한다고 해서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군사적 긴장조치가 완전히 철회된 것은 아니다.

비상경계조치는 언제든 발동될 수 있으며, 국방부는 대북감시태세를 철회하지 않고 있고, 내년에 발간될 국방백서에 여전히 이북을 주적으로 규정한 주적론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11월에 진행되었던 한미간 연안상륙합동군사훈련과 같은 이북을 대상으로 한 한미합동전쟁훈련계획을 폐기하지 않고 있다.

이는 우리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군사적 대결장치를 존속시킴으로써 여전히 정치적 대결상태를 낳는 원인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 할수 있다.

정부와 국방부는 6·15남북공동선언 이행과,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하여 비상경계조치, 대북감시태세, 주적론, 한미합동전쟁군사훈련계획등의 군사적 대결조치 완전 철회라는 진전된 조치를 취하여야 할것이다.

2001년 12월 22일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남측의 설맞이 민족공동행사 제안에 대하여

북측 환영 입장을 내온 것과 관련한 한총련 논평

남측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2002 설맞이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가 민속놀이를 중심으로 한 설맞이 민족공동행사를 북측에 제안하였으며 북측에서는 이를 적극 환영하며 실무회담 일정 등을 합의하였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에 한총련은 조국통일의 뜨거운 심장으로 열렬히 환영한다.

이번 민간급 교류의 대한 빠른 진척은 당면 미국의 새전쟁책동으로 6.15 공동선언 지지이행의 엄중한 난관과 시련이 조성되며 침체에 빠진 자주통일의 기운에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된다고 여기며 적극 환영한다.

5차장관급 회담의 성사와 연이은 남북교류의 일정으로 높아만 가던 6.15공동선언 이행의 정국은 미제의 대북강경정책과 이남의 사대매국 외세의존적 자세와 반통일세력의 준동으로 공동선언 이행국면에 심대한 난관을 조성하였다.

당면한 정세는 민족성원이라면 누구나 민족자주적 입장에 서서 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던 그에 아무 영향도 받지 않으며 일치의 흔들림도 없이 우리민족끼리 손을 잡고 자주통일의 길로 나아갈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더욱 6차 장관급회담의 결렬로 정부당국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7차장관급회담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간급 교류의 재개는 가뭄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은 것이다. 한총련 백만청춘은 이번 설맞이 민족공동행사를 6.15공동선언의 활로 개척의 새 포문을 열고 미국의 6.15공동선언 파탄정책과 반통일세력의 준동을 분쇄하는 돌파구로 만들어갈 것이다.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의 길로 나아가려는 의지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으며, 그 누구에게도 간섭받아서는 안 되는 우리 민족의 자주성의 문제이다.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고수하며 더욱 철저한 이행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고 6.15공동선언 이행의 길로 나아가려는 민족의 의지 앞에 이남당국은 적극 협력해 나서야한다.

기간 이남당국은 민족통일대축전 남측 대표단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구속 탄압하는가 하면 국가보안법을 유지하여 통일애국세력들을 탄압하였고, 주적 개념을 유지한 채 한반도에서 외세와의 군사훈련 등을 강행하여 정세를 엄중한 국면으로 몰고 갔다. 기본합의까지 이르러 공동선언 이행의 길을 밝힐 수 있었던 6차장관급회담에서 민족자주의 입장보다 외세의존적 입장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무산시켰던 홍순영 통일장관의 모습은 민족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며 남북관계에 성실히 임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이는 남북공동선언의 근본정신인 민족자주의 궤도에서 이탈하는 모습이며 공동선언 이행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6차장관급회담의 결렬의 원인이 남측에 있는 만큼 남측당국은 한시라도 지체 없이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민족자주적 입장에서 외세와의 군사공조 및 외세의존적 망동들을 일체 중단하여야 한다. 남측당국은 6.15공동선언의 직접적 당사자이자 이행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다하여 할 것이다.

반통일세력들은 9.11 테러사건과 아프카니스탄 전쟁이후 한반도에서 외세와의 결탁을 하며 군사훈련과 이북주적론 운운하며 조국반도의 긴장을 조성하였다. 특히 이회창을 비롯한 한나라당 패거리들은 공동선언 이행에 지속적인 난관을 조성하며 남북교류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악법을 운운하고 있고 특히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면서 공동선언 이행에 난관만을 조성하며 민족대결적 책동을 일삼고 있다. 반통일세력은 온 민족이 6.15공동선언기치높이 아리랑의 곡조에 맞추어 분단의 고개를 넘어가는 시대의 흐름을 알고 민족대결 반통일적 책동을 중단하고 자신의 살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번 설맞이 행사는 바로 6차장관급회담의 결렬로 6.15공동선언의 이행의 짙게 깔린 암운을 걷어내며 6.15공동선언이행의 전도전망을 밝게 하는 뜻깊은 일로 된다. 한총련은 2002년 대망의 새해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제기되는 이번 설맞이 행사의 거족적 성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며 공동선언 이행의 길에 최선두에 설 것이다.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 12월 23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9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금강산사랑연대(준), 국민청원운동 선포



≪금강산을 사랑하는 범국민연대 준비위원회(준)≫≪금강산사랑연대(준)≫가 금강산 평화관광을 살리기 위한 ≪국민청원운동≫을 전개한다고 선포했다.

15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13일 발족한 ≪금강산사랑연대(준)≫는 20일 낮 12시 서울 명동 한빛은행 앞에서 이와 같이 선포하고 대국민 캠페인에 들어갔다.

김영일(한민족물자교류협회 회장) 공동대표는 낭독한 선언문에서 ≪금강산평화관광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 기업의 사업이 아닌 평화를 위한 몇가지불이라는 차원에서 범국민적인 평화운동으로 승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언문은 ≪국가 예산의 약 20%를 국방비로 쏟아 붓고 미국에서 매년 10억 달러 이상 무기를 구입하는 비용과 비교할 때 금강산 사업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다소 필요하더라도 휴전선을 민족화해지대로 바꿀 수 있다면 금강산 관광사업은 퍼주기가 아니라 평화를 퍼오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의섭(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 공동대표도 인사말을 통해 금강산 평화관광을 온 국민이 합심해서 해결하자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이밖에 박인환(흥사단 투사본 운영위원장) 공동집행위원장의 금강산사랑연대(준) 활동에 대한 보고와 참가자들의 서명식이 있었다.

이어 10여명의 대표들은 명동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에게 서명과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캠페인에 들어갔다.

오늘 캠페인은 취재진들의 열띤 취재로 금강산 관광사업이 갖는 중요성을 실감하게 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금강산 관광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 서명을 하게 됐다≫는 도현경(47세, 우이동) 씨는 주최측의 취지에 대해 ≪통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에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라도 왕래는 계속해야 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캠페인을 지켜보던 시민들 대부분은 금강산 관광사업이 갖는 의미나 주최측의 취지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여줘,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국민의식은 상당히 낮은 것이 현실임을 보여줬다.

이에 대해 김규철(남북포럼 원장) 공동집행위원장은 ≪시민단체의 국민여론 조성을 위한 첫 행사로 당연한 반응≫이라며 ≪지속적이면서 단계적으로 이 행사를 이어간다면 금강산 관광에 대한 인식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규철 공동집행위원장은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전개할 것≫이며 조직이 정식으로 발족하는 ≪1월 중순에는 좀 더 많은 참가단체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강산사랑연대(준)는 오늘 이 행사 외에도 ≪시민단체 금강산평화관광 다녀오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오늘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 김성훈(경실련 통일협회 이사장) 상임고문을 비롯한 시민단체 대표 30여명이 참여하는 2차 ≪평화방문단≫을 조직해 금강산에 다녀온다.

그리고 이들 2차 평화방문단이 금강산 관광에 앞서 오늘 오전 11시 30분 금강산속초터미널에서 금강산 관광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호소하는 촉구집회를 가졌다고 주최측은 전했다.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2-20

연극협회, 2차 남북 연극교류 방향 모색



한국연극협회(이사장 최종원)가 심포지엄을 열어 남북연극교류를 위한 다양한 방향을 모색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연극협회는 21일 오후 2시 대학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관에서 지난 6월, 민예총의 1차 심포지엄에 이어 2차 남북연극교류 심포지엄을 갖고 실천적인 교류를 위해서는 북한 연극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데 참석자들은 의견을 같이 했다.

정일성(연출가, 한국연극협회 남북연극교류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은 이상우(영남대) 교수가 ≪북한 정전희곡(正傳戱曲)의 수용에 관한 제문제≫를 ≪≪통일문학전집≫에서 북한희곡을 어떻게 수록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발제했다.

이상우 교수는 ≪통일문학전집에 북한 작품을 선정하는데 있어 ▲북한이 전범(典範)이 될만한 작품을 선정해 놓은 작품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법과 ▲남측이 남한의 시각에 맞춰 재 분류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우 교수는 선정 방법에 대해 ≪북한 사회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하는 입장에서 북한의 미학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우리 관점으로 관철시키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고 절충과 통합의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유민영(연극평론가, 단국대 대중문화예술대학원) 원장은 ≪북한 연극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 연극의 **김일성** 우상화에 관한 기조는 시간이 흐를수록 강조되는 느낌으로 시대변화에 적응해 보려는 조그만 움직임이 포착되기는 하지만 북한의 현체제가 지속되는 한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김문환(연극평론가), 이기택(민예총 남북문화예술교류위원장), 김창화(연극평론가, 상명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심포지엄 참가자들은 토론과정에서 실질적인 남북의 연극교류를 위해서는 북한 연극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는 데 동의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자료수집에 있어 소스를 확대시켜야 하며 ▲구체적 작품으로 미학적 특징과 실질적인 교류 가능성을 접목해 접근하는 방법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최종원 이사장은 ≪처음 시작이라 많이 부족하지만 이러한 노력마저도 없다면 그 이후는 기대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오늘 심포지엄이 갖는 의미를 기자에게 전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너무 광범위한 주제로 인해 남북 연극교류를 위한 구체적인 접근은 부족했지만 이를 계기로 실질적인 교류를 위한 다양한 방향 모색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평가됐다.

한편, 위에서 언급된 통일문학전집은 1999년부터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인멸되는 자료들을 수집, 보존코자 기획한 사업으로 2002년부터 출판사업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2-22

부시미행정부, ≪반테러전쟁의 다음 목표 이북 가능≫ 여론 유포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2월 21일



20일자 미국신문 ≪워싱턴 포스트≫지는 부시 미국대통령이 지난날 대량살상무기생산국가들이 다음 테러전쟁의 목표가 될수 있다고 말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백악관은 현재의 북한을 아프간과 이라크와 거의 같은 색깔의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다른 신문들도 이같은 여론을 돌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돌리고 있는 이같은 여론에 대해 이 땅의 각계민중들은 강력히 항의하며 미국의 호전적인 작태가 몰아올 엄청난 악결과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미 보도됐습니다만 부시미행정부는 이른바 테러를 박멸한다는 구실로 확실한 근거도 없이 아프간을 공격해 수천명의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많은 재산피해를 낸데 이어 명분도 없는 테러와의 전쟁을 더욱 확대시하면서 이북을 공격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북을 공격목표로 삼는 구실은 이북이 테러국가이고 막대한 양의 생화학무기를 생산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은 아프간에서 이북제 무기들을 노획했다고 하면서 이북에 테러지원국의 혐의를 씌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정부와 언론들이 내돌리고 있는 이같은 자료들이 이북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꾸며낸 날조품이라는 건 사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북은 지난 94년 미국과 핵확산금지에 관한 문서에 서명하고 2003년까지 미사일개발과 시험을 중단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또 이북은 테러를 반대하며 테러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도 누차 밝혔습니다. 그리고 생화학무기를 생산보유하고 있지 않을뿐 아니라 개발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천명했습니다.

지금 세계의 지각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북이 테러를 하거나 지원하지 않으며 생화학무기를 만들어 남을 해치는 행위를 절대 안한다는 걸 확신하면서 이북에 터무니없이 불량배국가의 모자를 씌워 공격하려는 미국을 단죄규탄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미행정부는 있지도 않는 사실을 날조해 이북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려 하면서 그에 대한 여론을 내돌리고 있는 것은 저들의 대북적대시정책과 북침전쟁책동을 합리화하고 한반도의 정세를 고의적으로 격화시켜 6.15공동선언이 이행되지 못하게 하려는데 그 범죄적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미국은 테러박멸을 구실로 북침하려 한다, 한반도의 위기가 이북보다 미국에 의해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면서 미국호전계층을 단죄규탄하고 있는 것은 정당하다 하겠습니다.

미국은 이북 등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불량배국가로 매도하면서 군사적으로 공격하려 하는 것은 사회주의보루를 허물고 세계를 제패하려는 야망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그 ***이 결코 합리화될수 없습니다.

제반 사실은 미국이야말로 테러왕초국이고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장본인이며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는 원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호전집단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하며 대북적대시정책과 북침야망을 버리고 6.15공동선언의 이행에 난관을 조성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미국이 우리 민중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이같은 범죄행위를 계속 자행한다면 우리 민중과 세계 진보적 인류의 보다 큰 규탄과 배격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MD전담기구 창설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2월 23일



이미 보도됐습니다만 한미군당국자들이 부시미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를 전담하는 ≪연합 및 합동 전역미사일작전기구≫를 최근에 창설했다고 미공군 계간지인 ≪에어로스페이스 파워 저널≫ 가을호가 보도했습니다.

잡지는 이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한미군당국자들이 이미 99년 12월에 이 기구의 창설에 대해 검토하고 2000년초에 기구창설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바빠난 한미군당국자들은 현재 한미연합사에는 그런 기구가 없다고 부인하지만 ≪에어로스페이스 파워 저널≫지가 폭로한 자료들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한미연합사에 미사일방어체제전담기구를 창설한 것은 매우 엄중하며 절대로 용납할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부시 미행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구축책동은 저들의 세계제패전략실현의 장애로 되는 이북을 핵으로 선제타격해 우리 민족을 공멸시키고 핵미사일독점권을 차지해 대국들을 견제, 제압하고 패권적 지위를 확립하며 미군수독점체들에 폭리를 주자는데 그 범죄적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가안보담당대통령 부보좌관 스티븐 해든리가 북한 근처에 미사일방어체제를 배비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미사일방어체제 첫 시험장을 우리 나라 동해로 설정하면서 이북 근처의 동해상에 최신형 요격미사일 30기를 장착한 이지스함 2척을 배치하려고 획책하고 있는 사실이 잘 말해줍니다. 미국은 이러한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이 있지도 않는 이북의 미사일공격위협때문이라는 당치않는 구실을 대면서 저들의 범죄적 책동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가 구축되면 가장 큰 위협과 피해를 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민족이 이 범죄적인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호전집단은 어떻게하나 한국과 그 주변에 북침을 노린 미사일방어체제를 우선 구축하려하면서 비밀리에 그 전담기구까지 내오는 시대착오적이고 반인류적인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용납할수 없는 것은 한국 군당국자들이 이 범죄적 기구창설에 동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군당국자들이 나라의 평화와 안정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미국상전의 요구와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토가 황폐화되고 민족이 공멸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친미사대매국노 반역집단이라는 것을 웅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문제시하지 않을수 없는 것은 미사일방어체제전담기구가 창설되기까지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것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 정부당국의 비열한 작태입니다. 이것은 내외의 국민들로 하여금 미사일방어체제구축에 참여할 뜻이 없다고 밝힌 정부당국의 공식입장의 진실성을 의심케하는 것으로써 정부당국은 사실여부를 하루빨리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미국호전집단이 우리 민중과 세계평화애호민중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사에 미사일방어체제전담기구까지 내오고 그 구축을 강행하고 있는 여건에서 우리 국민은 절대로 그것을 좌시할수 없으며 범죄적 미사일체제구축을 반대하는 투쟁에 모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반미투쟁에 한사람같이 나서자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2월 17일~18일



날이 몹시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땅위의 모든 것들이 다 얼어붙었는데요. 하지만 우리 민중에게 헤아릴수 없는 모든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는 저주로운 주한미군에 대한 분노의 감정은 오히려 더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서울 한복판에 월가의 엠파이어빌딩을 옮겨놓으려는 미국의 오만하고 파렴치한 행위는 온 국민을 분노로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반미투쟁에 한사람같이 나서자≫ 이런 제목의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300만 노동형제여러분!

지금 미국은 오만방자하게도 서울 용산기지를 반환할데 대한 우리 민중의 요구를 한사코 묵살하고 거기에 대규모 아파트건설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에 분격한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전국공동대책위원회와 소파개정국민행동을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들이 미국의 아파트건설책동을 기지전면반환을 요구해온 우리 민중에 대한 전면도전행위로 낙인하고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이것은 천만번 정당한 일이다.

주지하다시피 주한미군은 이땅을 반세기이상이나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우리 민중에게 헤아릴수 없는 온갖 불행과 고통만을 강요해왔다. 식민지 이 땅의 한복판을 차지하고 앉아 주인행세를 하며 온갖 못된 짓을 다해온 주한미군이 이제와서는 기지안에 대형아파트까지 건설하려고 책동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 용납할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월가의 엠파이어빌딩을 서울 한복판에 옮겨놓으려는, 다시 말해서 이 땅을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로 영원히 가로타고 앉으려는 침략자의 간악한 저의의 발상이다.

서울 용산미군기지를 비롯한 전국 도처의 미군기지들에 대형아파트들이 건설되면 우리 노동형제들은 거기에 깔려 죽고 만다. 지금 이 시각에도 미국이 식민지 이 땅에 강요한 강도적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한파에 밀려 정리해고를 당한 우리의 수많은 노동형제들이 살길을 찾아 정처없이 방황하다 길가에서, 선창가에서 굶어죽고 얼어 죽고 있으며 무리로 자살의 길을 택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 아닌가. 그런데 주한미군기지안에 대형아파트까지 건설되면 그 높이만큼 우리 노동대중에게 오늘날보다 더한 착취와 약탈, 죽음만이 강요될 것이다.

지나온 반세기이상이나 주한미군의 군홧발에 눌리어 식민지예속민의 비애를 감수해온 우리 노동대중은 이제 더 이상 극도에 달한 주한미군의 파렴치성을 용납할수 없다.

우리 노동형제들이 자기 생존을 지키고 식민지예속민의 오명을 벗자면 지체없이 이 땅에서 저주로운 주한미군을 몰아내야 한다.

1300만 노동형제들은 우리의 생존, 우리의 권리, 우리의 자유를 찾기 위해 주한미군철수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 일어나자.

경향 각지의 사업장들마다에서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전국공동대책위원회와 소파개정국민행동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반미투쟁기세에 적극 합세해 나서자. 우리 노동형제들이 앞장에서 식민지 이 땅의 미군기지반환, 주한미군철수투쟁의 거세찬 열풍을 몰아오자.

심각한 사회정치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오늘의 이 투쟁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또 하다가 말아도 될 그런 투쟁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며 끝장을 볼때까지 벌여나가야 할 투쟁이다.

지금 미군은 저들의 주한미군기지 아파트건설문제가 이 땅의 각계민중의 거센 항거에 부딪히게 되자 오그랑수를 쓰며 어떻게 하나 거저 넘기려고 획책하고 있다. 우리 노동대중은 미군에 대한 그 어떤 기대와 환상도 가지지 말고 투쟁을 끝까지 벌여 미군기지를 이 땅에서 기어이 들어내자.

각계각층과의 연대연합을 실현하는 것은 투쟁에서의 승리를 담보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각 지역별, 업종별, 산별노조간의 연대와 계층, 계급, 각 시민단체들과의 공동투쟁을 통해 범국민적인 반미투쟁으로 확산시켜 나가자.

거족적인 반미투쟁의 분출로 식민지 이 땅에서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고 자주, 민주, 통일의 새 날을 안아오자.

네, ≪반미투쟁에 한사람같이 나서자≫ 이런 제목의 글을 보내드렸습니다.

미국이야말로 우리와 한 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입니다. 이 저주로운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지 않는한 우리 민중은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수가 없는데요. 우리의 1300만 노동형제들은 물론 이 땅에 삶을 둔 사람이라면 모두가 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반미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서야 할겁니다.

치를 떠는 파주

경기도 파주시 장영철씨 /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2월 19일~20일

이 땅에서 저지른 미군의 만행을 생각할때면 우리 민중 누구나가 치를 떨게 됩니다. 지난 반세기이상이나 이 땅을 강점한 미군이 우리 민족에게 가져다 준 것이란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뿐이죠. 그럼 이번엔 경기도 파주시에서 살고 계시는 장영철씨의 글 ≪치를 떠는 파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주민들은 미군이 이 땅을 강점한 그날부터 해를 두고 계속되는 놈들의 치떨리는 만행에 이를 갈며 살아왔다.

주한미군이 파주시에서 감행한 치떨리는 만행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다. 지금도 누구나 미군에 의해 감행된 파주 ≪민가습격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미 제24사단소속 80여명의 야수들은 백주에 용주동부락에 쳐들어가 300여세대의 집들을 들부수고 재산을 마구 강탈했다. 그리고 이에 항거하는 주민들을 두들겨패다 못해 600여명의 이곳 사람들을 정든 고향마을에서 강제추방했다.

파주 ≪나무꾼사살사건≫도 잊혀지지 않고 있다.

미 제1기갑사단 8연대의 인간야수들은 땔나무를 해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40여명의 농민들을 포위하고 오리사냥하듯 마구 총을 쏘아 6명을 그자리에서 즉사시키고 10여명에게 중상을 입혔었다. 금파리에 도사리고 있던 미 제24사단 21연대의 한 양키사병놈은 통행금지지역에 접근했다고 해서 5명의 여성을 마구 쏘아 죽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율곡리 뒷산에서 꿩사냥을 하던 미24사단 34연대 3대대의 한 살인마는 도토리를 줍고 있는 늙은이를 꿩이라며 쏘아죽이고 개울에서 빨래하던 두 여인을 강간하려다가 더러운 수욕을 채울수 없게 되자 총으로 그들을 쏘아죽이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주한미군의 이러한 만행을 다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오늘도 파주는 계속되는 주한미군의 만행으로해서 우리 민중의 피가 마를 날이 없다.

탱크훈련장인 다그마훈련장과 스토리사격장을 비롯해서 파주에는 여러 개의 주한미군기지들이 있다. 이곳 사람들은 여기에서 나는 소음피해를 비롯한 심각한 환경오염과 재산피해를 보며 매일 매시각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속에 살고 있다.

정말 파주는 사람 살 곳이 못된다. 이 땅의 주인인 우리가 여기를 떠나야 하나 침략자 강탈자인 미군이 이 땅을 떠나야 하나. 파주시 주민들은 주한미군을 더이상 그대로 둘수 없다고 이빨을 갈며 반미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양키는 물러가라고 외치며 미군탱크의 무한궤도앞에 주저없이 몸을 던진다. 내가 죽든지 네놈들이 물러가든지 끝장을 보고야 말 일념으로 사생결단하고 투쟁에 나선 것이다. 죽음을 각오하고 나선 이들, 사생결단하고 반미투쟁에 나선 사람들은 비단 파주시 주민들뿐 아니다. 미군기지가 있는 이 땅 모든 곳에서 세차게 벌어지고 있는 반미투쟁은 우리 민중의 한결같은 의지의 발현이고 결단이다. 바로 이 반미투쟁에 우리 민중의 참된 삶이 있고 앞날의 희망이 있다. 우리 민중의 반미투쟁은 반드시 이 땅에서 침략자 미군을 몰아내고 식민지지배에 종지부를 찍고야 말 것이다.

네, 경기도 파주시에서 살고 계시는 장영철씨의 글 ≪치를 떠는 파주≫였는데요. 한 하늘을 이고 같이 살수 없는 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 것은 몇몇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온 민족이 단결된 힘으로 반미운동을 거세게 벌여나갈때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길수 있는거죠.



반미투쟁의 분화구에 불을 지피자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2월 17일～18일



백만 청년학생들이여!

식민지 이 땅에서 저주로운 미제침략군의 오만방자함이 극도에 달했다. 지난 시기 우방이요, 벗이요 하던 허울좋은 외피마저 벗어던진 미국의 파렴치성은 이 땅에서 종주국의 횡포 그대로이다.

최근 주한미군이 이미 반환하기로 되어 있는 용산미군기지안에서 불법적으로 저들의 아파트단지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들에게는 이 땅의 국민들과 한 약속같은 건 안중에도 없다.

보라. 식민지 이 땅을 제외한 그 어느 나라에 그것도 수도 중심에 백만평이나 되는 땅을 외국군이 차지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를. 한 곳도 없다. 그런데 오늘은 미제침략군이 그것도 부족해 서울의 한복판인 용산기지를 비롯한 주한미군기지들에 보란듯이 대형아파트까지 건설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우리 국민을 우롱하고 모독하는 이런 날강도행위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이것은 미군기지반환을 요구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도전행위이다. 이것은 미제침략군이 이 땅을 영원히 가로타고 앉아 우리 민중의 꿈에도 소원인 자주, 민주, 통일을 한사코 방해할 속셈을 드러낸 용납못할 범죄행위이다.

정의에 불타고 애국에 피끓는 우리 열혈 청년학생들은 우리 민중의 소망과 자주권이 미제의 군화발에 여지없이 짓밟히고 농락당하는 것을 더이상 묵과할수 없다.

지나온 투쟁의 나날에 언제나 시대와 역사의 부름앞에 애국의 피끓는 심장으로 화답해온 우리 열혈청년학생들이 아닌가. 우리 국민의 존엄과 자주권이 미제침략군의 군화발밑에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식민지 이 땅에서 사는 불우한 우리 청년학생들에게 있어서 학문의 방학은 있을수 있어도 투쟁의 방학은 있을수 없다.

지금의 정국은 바야흐로 폭발전야의 대세에서 교류하고 있다. 주한미군기지의 아파트건설문제가 사회정치적으로 첨예한 문제로 부상되고 사회단체들을 비롯한 각계민중이 항거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투쟁의 선도자인 열혈 청년학생들이 주한미군철수투쟁의 분화구에 불을 지펴야 할 때이다.

백만청년학생들은 《미군기지반환》, 《주한미군철수》의 구호를 들고 지체없이 반미투쟁의 불길을 지펴올리자.

지금 각계민중의 가슴마다에는 이 땅을 반세기 이상이나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우리 민중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만을 강요해온 저주로운 미제침략군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끓고 있다. 식민지 이 땅에 대한 미국의 침탈책동으로 생존수단, 생계터전을 빼앗기고 찬바람부는 한데에 내몰리고 있는 우리 아버지, 형님, 누나, 동생들의 비참한 참상을 보라.

6.25양민학살사건과 4.3제주도학살만행, 80년 광주학살만행 등 미제침략군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이 땅에서 감행한 치떨리는 살육만행의 어혈진 가슴을 부여안고 몸부림치는 각계민중의 분노의 눈길을 보라.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한사코 가로막으며 우리 겨레 모두가 그토록 바라는 나라의 통일을 차단해 나서고 있는 미제를 단죄규탄하는 각계민중의 피나는 외침을 들으라.

우리 민중의 가슴속에 쌓이고 맺힌 울분과 분노를 투쟁으로 이끌어낼 때는 왔다.

청년학생들은 우리 민중의 이 울분과 분노를 미군기지반환, 주한미군철수투쟁으로 폭발시키자.

불퇴전의 의지와 용맹을 안고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불러일으켜 식민지 암흑의 이 땅에서 거세찬 반미투쟁의 격랑을 몰아오자.

백만 청년학생들은 노농형제를 비롯한 각계민중들과 어깨겯고 이 땅에서 미국의 식민지지배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투쟁에 총궐기해 나서자.

각계민중은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딸들인 청년학생들의 의로운 반미자주화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 당면한 미군기지철폐투쟁에 모두다 동참해 나서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 고압선 피해자 전동록씨 사죄배상 요구 성명서

주한미군이 이 땅을 점령하는 한 사지가 멀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미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죄배상하고 미군기지 반환하여 이 땅에서 하루빨리 떠나라!

또 주한미군에 의해서 한 사람의 삶이 파괴되고야 말았다.

지난 7월 16일 경기도 파주시 캠프하우즈 미 제2사단에서 공사중이던 건설노동자 전동록씨가 미군부대 22,800볼트 고압선에 감전된 것이다. 현재 전동록씨는 사지가 절단되고 한쪽 귀가 멀었으며 만성 신부전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 엄청난 사고의 가해자는 분명 미군당국이다. 당시 고압선은 피복도 되어 있지 않은 나선이었다. 공사전부터 관계자들은 수차례 미군부대에 고압선을 이전시켜줄 것을 요구했으나 미군측은 ≪괜찮으니 일단 공사를 시작하라≫ ≪그럼 당신들 맘대로 하라≫며 매번 그 요구를 묵살해왔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안전사고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미필적 살인행위인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사고후 미군측이 보인 태도다. 미군측은 안전에 부주의한 전동록씨 개인으로 떠넘기고 있으며 병상에 찾아와 60만원을 던져주고 갔다. 그 어떤 사죄없이 사지절단과 청력을 잃은 대가, 한 인간의 삶의 희망을 빼앗은 대가가 고작 60만원인가.

미군측이 당시 끔찍했던 사고의 주범인 고압선을 지금까지 철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인가. 제2의 전동록씨를 만들 심산인가.

이번 사건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군당국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

주한미군이 점령한 후부터 이 땅은 주한미군의 무법지대가 되었다. 주한미군은 반세기동안 살인, 방화, 강간, 폭력 등 20만건 이상, 하루평균 6건 이상의 범죄를 저질러 왔다. 특히 이번 사고가 일어난 파주만 보더라도 주한미군의 오만방자한 범죄의 온상지가 되어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는 말로 다할 수 없다. 한국전쟁 당시 300만에 이르는 양민학살로 시작하여 현재 용산기지 아파트 일방적인 강행까지 주한미군은 이 땅의 유일한 무법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하기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주한미군의 범죄를 양산하는 한미행정협정을 인정할 수 없다.

현행 한미행정협정(SOFA)에 의하면 미군이 점유,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과 기타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국가가 국가배상법에 의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어디 이 뿐인가. 한미행정협정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이 땅을 ≪무상으로 영구히≫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권한까지 쥐고 있다. 땅만이 아니라 엄청난 건물또한 미군이 공짜로 소유하고 있으며 매년 거액의 방위비 또한 거저 먹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어디 주권을 가진 나라에서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 미군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는 못할 망정 그 배상까지 책임져야 하는 제2의 을사조약, 예속과 불평등을 상징하는 노예문서 한미행정협정은 전면 파기되어야 한다.

주한미군은 똑똑히 들어라. 지금 이 땅의 반미의식은 폭발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는 전세계 전쟁과 침략을 일삼고 이 땅에 틀어앉아 천년만년 눌러살 아파트나 지으려고 하고 한국민의 목숨을 파리목숨보다 하찮게 여기는 너희들에 대한 분노와 울분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주한미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당장 치료비를 비롯한 전동록씨의 피해를 전면 배상하라. 또한 아파트나 지을 망상에서 깨어나 미군기지 반환하고 당장 이 땅을 떠나라. 그렇지 않았을 때 너희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비참한 말로일 뿐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한총련은 ≪주한미군 고압선 피해자 전동록씨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칭)≫과 함께 주한미군의 야만성을 전 국민속에 알려나갈 것이며 미군이 사죄배상하고 이 땅을 떠나는 그 날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 2001년 12월 22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9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 최 승 환)

미군기지 아파트 계획 중단 요구 성명

주한 미군은 용산 미군기지를 비롯한 이남 전역에 위치한 기지 내 아파트 건설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얼마전 발표된 ≪용산 기지내 주한미군용 아파트 건립계획≫ 에 대해서 온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이미 1990년에 맺어진 한·미 용산기지 이전 합의각서를 통해 반환을 약속했던 미군이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용산 기지 반환에 대해 꼬리를 내리더니, 급기야는 며칠 전 맺은 한미안보연례협의회 연합토지관리계획에서 용산 미군 기지 반환 문제를 제외함으로써 용산기지를 반환하지 않겠다는 뜻을 노골화하고 나섰다. 더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주한 미군의 전투력 향상과 한미 군사동맹강화를 위해서 주둔환경개선 차원의 주한 미군 기지내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이다.

서울 용산 기지는 서울 도심 한 가운데 노른자위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또 폐유, 독극물 방류 등 환경오염 문제, 살인 강간 등 미군 범죄의 온상지로 해서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다. 이런 온 국민의 용산기지 반환의 열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미 한미간에 약속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영구주둔을 노골화하고, 우리 국민에게 피해가 생길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주한미군 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선 것은 주한 미군의 뻔뻔함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사례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호전적 기질이 아프간 전쟁과 전쟁확전의 의지에서 확연히 드러난 마당에 이 시기에 영구주둔 계획인 아파트 건립을 들고 나온 것은, 대북 강경 책동의 선봉부대인 주한미군 영구주둔을 통해서 6.15 공동선언 이후에 좋게 발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분위기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는 것이어서 내외의 우려를 더욱 크게 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미 고위관료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대북 강경발언은 이런 우려가 단순한 우려가 아님을 확신시키고 있다.

미국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이런 노골적인 강도 짓과 전쟁 놀음에 가만히 있을 우리 국민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이 땅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은 ≪미국 반대≫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미국이 저지르는 만행에 지구 끝까지라도 좇아가서 투쟁할 각오와 결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주한 미군기지내 아파트건립과 관련하여 대구도 예외일수가 없는 이 현실에서 대구 미군 기지 땅 되찾기 시민모임과 대구 남구청, 남구의회 등에서도 미군기지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고 적절한 조처를 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각 계 시민들 또한 대구에 있는 미군기지를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대경총련은 이런 노력과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표명하며, 미국이 의로운 민중들의 투쟁의 요구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이 땅에 대한 날강도짓과 전쟁놀음을 끝내 멈추지 않는다면 250만 대구시민들의 힘으로 ≪들어서라도 내쫓겠다≫는 엄중한 경고를 하는 바이다. 물론 그 최선두에는 반미로 피끓는 우리 15만 대경총련이 있을 것이다.

미국은 기지내 아파트 건립계획을 통한 영구주둔 계획을 당장 그만두고 주한 미군을 데리고 이 땅을 떠나라!!

6.15 공동선언 파기 음모! 대북 강경 책동, 한반도 긴장고조 책동 즉각 중단하라!!

12월 24일

겨레의 자랑 13기 대경총련

한미연합사의 TMD 전담기구 창설 규탄 성명서

≪이북 위협론≫ 내세워 이 땅을 세계군사패권 장악의 교두보로 삼으려 하는가.
미국은 TMD 전담기구 폐지하고 MD 계획 철회하라!
국민 몰래 ≪눈 가리고 아웅≫, 비밀리에 MD 참여해온 정부는 국민앞에 사죄하고 MD 참여 무효화하라!

미국이 한반도를 미사일방어망(MD) 구축의 전초기지로 삼고 있으며, 한국정부가 비밀리에 이 계획에 동참해 왔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지난 20일 미공군 계간지 ≪에어로 스페이스 파워 저널≫ 가을호는 한미연합사 방공 및 미사일방어과 과장을 지낸 데일 C. 에이크마이어 대령이 작성했다는 문서를 인용해 ≪한미연합사와 주한미군은 최근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 구상에 훌륭한 모델을 제시하는 조직구상을 완료했다≫고 보도하면서 ≪연합 및 합동 전역미사일작전기구(CJTMOC)≫으로 명명된 이 기구 창설에 ≪한국군도 참여했다≫고 밝혔다. 한총련은 이북을 상대로 엄중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방해하고 한반도를 미국의 세계군사패권 전략 실현의 시험장으로 전락시킨 이번 ≪TMD 전담기구≫ 창설을 강력히 규탄한다.

99년 12월부터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진 한미연합사령부의 TMD 전담기구 창설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MD 구축이 실제 완성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이다. 본토방어를 강화한다는 명분하에 MD를 추진해 온 미국은 최근 들어 ≪MD 추진을 위한 미 국방예산 증액 – 한반도 내 MD 관련 무기체계 배치 –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주한미군 병력 및 기지 재편을 골자로 한 연합토지관리계획 통과 – 탄도탄요격미사일제한협정(ABM) 탈퇴 선언≫의 수순을 밟으며 세계군사패권 장악의 음모를 진행시켜왔다. TMD 전담기구 창설은 9·11 테러 이후 구체화된 부시의 대외군사전략 ≪4개년 국방계획≫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불량국가들의 미사일 위협≫을 최대 장애요인으로 규정한 미국이 세계지배전략의 걸림돌인 이북을 군사적으로 견제, 제압하고 한반도에서 패권적 지위와 영구적 지배력을 공고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미국 본토의 ≪MD 사령부≫의 지휘에 따라 군사작전을 수행하게 되어 있는 TMD 전담기구 창설로 인해 한반도는 명실공히 미국의 군사작전 지역이 되었으며 이 땅에 MD 추진을 위한 무기체계도 신속하게 배치되고 있다. 이북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동해에 요격미사일을 장착한 이지스함을 배치할 예정이며, PAC-3 미사일, 상대방 미사일의 위치, 방향, 속도 등의 정보를 요격미사일에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 X-BAND 레이더도 한국에 배치될 예정이다. 바로 지난 3월 한미정상회담, 5월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 방한에서 천문학적 액수의 미국식 무기 강매를 주장했던 미국의 속셈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TMD 전담기구가 오산 미 7공군사령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미국이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에서 오산, 평택 등지의 땅을 주한미군 기지로 추가 요청한 저의가 어디에 있었는지 또한 명확해졌다.

제반의 사실은 미국이 한반도를 MD 구축의 전초기지, 실험장으로 삼기 위해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추진해왔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북아는 신 군비경쟁의 각축장으로, 한반도는 첨예한 군사적 대결장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미국은 북미간의 ≪총포성 없는 전쟁≫에서 패배한 쓰라린 경험을 안고 있는 국가로써 그 결과물로 양국간 합의했던 제네바기본합의문과 조미공동코뮤니케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지배전략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미국은 북미간 합의를 휴지조각 취급하고 이북을 ≪불량국가≫로 낙인찍어 비상식적인 대화 전제조건을 내걸며 의도적으로 한반도 분위기를 긴장시키고 있다. 미국에게 경고한다. 명분없는 대북강경정책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북을 상대로 한 MD 추진 계획 철회하고 북미간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북미대화에 임하라. 미국은 근본적인 정책전환을 하지 않는 이상 ≪총포성 없는 전쟁≫에서 패배한 지난날의 악몽이 현실에서 재연될 수 있음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더욱 묵과할 수 없는 것은 ≪MD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왔던 정부가 국민들을 기만하고 비밀리에 TMD 전담기구 창설에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TMD 전담기구 논의가 99년 12월부터 시작된 사실을 감안할 때, 한국정부는 그간 국민들을 상대로 철저히 거짓 선전을 해왔다. 비상경계조치 발동으로 6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결렬시키더니 이제는 TMD 전담기구 창설로 또다시 남북관계에 엄중한 난관을 초래한 반민족적 죄과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국민들 앞에 사죄하라.

거대한 대하로 굽이치는 물줄기 앞에 암초는 있을지언정 그 누구도 물줄기의 흐름은 되돌릴 수 없다. 한총련 백만학도는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커다란 암초로 되고 있는 TMD 전담기구 창설을 백지화하고 미국의 MD 계획을 철회시키기 위해 평화를 사랑하는 4천만 국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이는 6·15 공동선언 이행이라는 민족적 대의를 실현하고 기어이 한반도에 평화통일 세상을 열어내려는 이 땅 민중들의 최후통첩임을 명심하라.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 2001년 12월 26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9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 최 승 환)

미군 고압선 피해자 전동록씨 대책위 결성키로



지난 7월 미군기지 고압선에 감전되어 사지를 잃고 투병 중인 전동록씨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7일 대표자 회의를 갖고 결성 초읽기에 들어갔다.

건설현장 인부였던 전동록(54세,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5리)씨는 지난 7월16일 파주시 캠프하우즈 제2사단 공병대대 후문 옆 대우제판 카메라 조립식 공장 증축현장에서 작업 도중, 미군부대 22,800볼트 고압선에 감전되는 사고를 당한 바 있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금속연맹,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사회당, 경기민중연대, 경기민청(준),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단국대 등 시민사회학생단체는 17일 오전 11시 전교조에서 1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고압선 피해자 전동록씨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결성준비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단체 대표자 및 실무자들은 공동대책위원회 체계 및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민주노동당 이정호씨를 집행위원장으로, 경기민청 윤용배 준비위원장을 실천단장으로 추대했다.

이정호 집행위원장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대책위원회를 결성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성과였다≫며 ≪전동록씨 문제를 더이상 개인적인 문제로 다루어서는 안되고 더 많은 단체를 아울러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반미투쟁의 실천적 모범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서명과 모금운동, 포스터 및 영상 제작, 각 시민단체 사이트에 배너달기 제안 등을 통해 전동록씨 사고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또한 미군의 공식사과와 민·형사상 책임배상을 목표로 미군기지 투쟁을 공세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동록씨의 장남 전민수씨는 아버지의 현재 상태를 묻는 질문에 ≪사고후유증으로 장기손상과 신부전증 증세를 보이던 아버지에게 또다시 복부대동맥 파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다른 장기손상의 우려때문에 검사조차 못하고 경과만 지켜보고 있을 뿐≫이라고 말해 주위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더했다.

대책위는 오는 22일과 29일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대규모 투쟁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손은숙 기자(sohnes@minbo.com)
자주민보 2001-12-20



≪국방부가 아니라 매국부≫



≪지금도 한 평의 땅이 없어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철거민들이 많은데, 한국의 국방장관이 미군의 주거 안전을 논하고 있다는데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준)가 22일 오후 2시 용산 미8군 사령부 정문에서 가진 ≪용산기지 아파트 건립 백지화 촉구 시민한마당≫에서 이호승(전국 철거민협의회 중앙회) 회장은 이와같이 국방부를 규탄했다.

국방부는 용산미군기지 내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 국민여론과 서울시의 반대에 부딪치자 대체부지 물색에 나서, 용산 미군기지 옆의 수송단 기지와 유엔사 부지를 선정했다. 국방부는 용산 미군기지 내는 자연녹지라 고층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하지만 대체부지는 주거지역이라 고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김학재(서울시 행정2부) 부시장은 22일 MBC ≪100분 토론≫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미군이 용산기지 사우스 포스트(South Post) 바깥쪽 수송단(TMP) 부지 등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것은 용산미군기지가 자연녹지여서가 아니라 바로 용산 미군기지를 반환하지 않으려는 미군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라며 대체부지를 미군측에 제안한 국방부에 대해 ≪나라의 이익을 지키는 데 한 치의 빈틈이 없어야 할 국방부가 자기 나라의 이익보다도 미국의 이익을 옹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국방부를 비난하고 국방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도 이날 시민한마당에 참여해 ≪주한미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 아파트를 건립한다면 용산기지로 인해 국민복지가 땅에 떨어져 국민임을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른 우리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하냐≫며 국방부가 아파트 건립 추진을 위해 주요하게 들고 있는 이유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외 이천재(전국연합) 공동의장, 홍근수(자통협) 상임의장, 한총련 학생도 규탄연설에 참여해 정부와 국방부를 비난하는 한편 미국에게는 용산미군기지 반환을 촉구했다.

김종일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집회는 김제남 사무처장의 결의문 낭독으로 정리됐다.

이어 참가자들은 아파트 건립 예정지인 52번 게이트까지 평화행진을 진행했다.

200여명의 참가자들은 행진도중에 크라운호텔 앞 육교에 올라 아파트 건립 예정지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경찰은 ≪신고된 인도 외에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육교 통과를 저지했다.

이로 인해 한동안 참가자들과 경찰간의 마찰이 있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시민선전전≫ 등의 일정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더 이상의 마찰은 피하고 52번 게이트로 이동했다.

참가자들은 52번 게이트에서 이승헌(민주노동당) 자통국장의 사회로 정리집회를 가졌다.

정리집회는 이호승(전철협) 회장, 권오창(실천연대) 공동대표의 규탄연설로 마무리됐다.

이날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미리 준비한 ≪아파트건립 백지화≫라는 문구가 쓰여진 풍선과 홍보물을 가지고 용산역, 남영역, 이촌역, 보광동 시장 등에서 ≪시민 선전마당≫을 이어서 진행했다.

주최측은 이후 계획으로 ▲26일 아파트건립 반대, 전동록씨 피해보상, 용산미군기지 반환 요구 등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28일까지 농성을 진행하고 ▲29일 오후 3시 용산기지 앞에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민여론을 의식해 용산기지 이전문제와 아파트 건립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대체부지까지 선정하고 나서는 등 일단 서울시의 동의는 얻고 있지만, 시민사회단체가 26일 농성투쟁을 통해 국민여론을 더욱 확산시키면서 정면 대응에 나설 방침이어서 국방부의 이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한총련 소속 학생 100여명은 오후 1시 같은 장소에서 ≪6.15 파탄내는 미국의 대북전쟁도발책동 분쇄하고 주한미군 영구주둔음모 분쇄를 위한 범청학련 남측본부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 15일 ≪50일 총력운동≫ 선포에 이어 첫 번째 갖는 결의대회로 ≪50일 총력운동≫은 내년 2월 2일까지 진행되며 매주 토요일에는 결의대회가 있을 예정이다.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2-24

시민사회단체, 용산기지 앞 농성 돌입



시민사회단체는 오늘(26일) ≪미군 아파트 건립 반대, 미군 고압선 피해자 전동록씨 문제 해결, 용산 미군기지 반환≫을 촉구하며 용산기지 앞 농성에 돌입했다.

≪용산미군기지 반환 운동본부(준)≫과 ≪주한미군 고압선 피해자 전동록씨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전동록씨 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26일 오전 10시 용산 미8군 사령부 정문 앞에서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26일부터 29일까지 집중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는 홍근수 목사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한미군의 한반도 영구주둔 음모와 국방부의 민족의 이익에 배반하는 태도를 강력히 비난하고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용산 미군기지 내 아파트 건립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월 16일 파주의 미군기지 고압선에 의해 발생한 ≪전동록씨 사건≫에 대한 피해배상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주한미군에게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단체는 용산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서울의 균형적 발전과 서울시민의 복지를 위해 용산미군 기지는 조속히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용배(전동록씨 대책위) 실천단장은 오늘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농성과 29일 있을 총력투쟁에 대한 일정을 설명했다.

윤용배 실천단장에 의하면 농성기간동안 매일 오전 9시 출정식, 낮 12시 규탄집회, 오후 4시30분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며, 29일 오후 3시에 농성을 정리하면서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농성기간동안에는 용산기지 앞에서의 농성과 더불어 지하철을 중심으로 한 ≪시민 선전전≫을 병행할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 40여명은 기자회견에 이어 곧바로 농성단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에서 전동록씨 큰 아들 민수씨는 아버지의 현재 상태를 상세히 전달했다.

민수씨에 의하면 전동록씨는 현재 오른쪽 다리가 많이 부어 수술을 해야 할 상황인데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 이날 발대식에는 홍근수(자통협), 서경원(평통사), 이수갑(민족정기 수호회), 허근영(성남 터사랑 청년회)씨와 학생대표들의 ≪결의발언≫ 등이 있었다.

이번 농성을 통해 시민사회단체는 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해 국민여론을 더욱 확산시키고 이를 토대로 해서 29일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방부와 주한미군측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2-26

조선일보, 한반도 전쟁 원하나?

[언론비평] 신중해야 할 美 ≪확전≫ 보도

뉴욕타임즈를 따르는 신문들

9. 11 테러 이후, 미국의 이른바 ≪반테러≫ 전쟁이 시작되고 탈레반 세력이 거의 위축된 지금, 미국에서는 확전 논의가 불거지고 있으며 그 목표에 대한 예측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11월 말 부시 정권의 테러 관련 기자회견과 뉴욕 타임즈의 북한 관련 예측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25일 뉴욕 타임즈 일요판 부록에서 ≪탈레반 다음은 누구? 북한을 잊지 말라≫ 라는 예측 보도를 실으면서, 생물 무기와 핵무기 개발 전력이 있는 북한이 다음 반테러전쟁 대상이 될 것이라는 보도를 전하고 있으며, 3개 신문이 이 기사 내용을 소개하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한 신문의, 확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 예측기사를 가감이나 여과없이 그대로 따다가 싣는 것은 수동적이고 사대적인 보도 태도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특히 조선일보는 1면과 12면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타 신문의 추측 기사를 두 번이나 인용하면서 강조하는 모습은 특히 지적받을만 하다.

뉴욕타임즈 기사와 부시 경고의 절묘한 결합

26일 부시의 이른바 ≪대북 경고≫가 나간 후 특히 조선일보는 27일 뉴욕타임즈 보도와 연계하여 1면과 12면에서 톱기사와 표제로 부시의 ≪경고≫ 내용을 전하고 있다. 경고와 뉴욕타임즈 예측기사가 결합되어 북한이 미국의 반테러 전쟁의 다음 목표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각 신문이 모두 이 ≪경고≫내용을 보도하면서 북한에 대한 직접적 군사 행동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그러한 신중론의 비중은 작게 다루고 부시가 ≪강력히 경고≫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나서서 확전을 부추기는 조선일보

그러나 이 ≪경고≫가 나오게 된 것은 부시가 이라크 등의 테러국가에는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을 말하면서, 기자가 ≪북한에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묻자 그 질문에 대해 언급한 것이며, 강력하게 의도한 경고성 발언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실제로 27일 미국 정부는 ≪기존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다음 목표가 된다는 것은 언론의 추측에 불과하다≫ 라면서 북에 대한 군사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을 밝히고 있다. 조선일보 인터넷판인 디지틀 조선일보에는 이러한 미국 정부의 발표가 실려 있으나 신문에서는 싣지 않고 있다.

현재 3개 신문, 특히 조선일보는 추측성 기사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고, 부시의 발언에 대해서는 실제 발언이 이루어진 문맥을 무시하고 북한 관련 발언에 대한 부분만 잘라서 1면 톱기사를 써서 보도함으로써 미국이 북한에 대하여 강력한 경고를 던진 것처럼, 그리고 다음 목표가 북한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미 정부 발표에서조차 대북 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반테러전쟁≫ 당사자보다 오히려 더 흥분하여 미국이 북한에 대하여 곧 군사행동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보도를 하고, 확전대상국이 될 것처럼 강변하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는 미 정부의 공식 입장 보도를 편집에서 삭제함으로써 대북 강경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일조하고 있다.

신문이 자신들의 입장을 내세우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기사는 팩트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경우처럼 자신들의 입장을 설득시키기 위해 왜곡하고 은폐하는 것은 주장의 선악과 관계없이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신문은 냉철한 사회인식을 가지는 것이 미덕이다. 그런데 북한 관련 보도만 나오면 작은 것이라도 흥분하고 침소봉대하는 조선일보의 습관이다. 사실에 대해서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하려는 노력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감정적으로 대하화는 태도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김인규 기자 2001년 12월 20일

범청학련 북측본부 대변인 애국적청년학생들의 석방을 요구

(평양 12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 북측본부 대변인은 남조선에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하여 의로운 활동을 벌리고 있는 청년학생들을 탄압하는 폭거들이 계속 벌어 지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18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12월 11일 대구고등법원이 《한총련》의 각종 집회와 시위를 주도하고 《리적표현물》을 제작하였다는 《죄》명을 씌워 전 《한총련》 6기 의장 손준혁에 대한 항소심의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의 중형을 선고하였다고 한다.



지난 8월 평양에서 진행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였던 남조선 《청년단체협의회》 전상봉의장을 비롯한 범민련 남측본부 대표들을 《보안법》위반혐의에 걸어 구속한데 이어 10기 《남총련》 의장을 체포령장도 없이 강제련행하는 폭거를 감행한것을 비롯하여 최근 몇달사이에만도 수십명의 《한총련》 대의원들과 청년학생들이 통일운동에 앞장 섰다는 죄 아닌 《죄》로 철창속에 끌려 갔다.

성명은 범청학련 북측본부는 《한총련》 핵심성원들에 대한 남조선 공안당국의 파쑈적폭압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을 통일할데 대한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위반하는 배신행위로, 겨레의 통일열의에 찬물을 끼얹고 《한총련》을 비롯한 남조선의 통일애국단체들을 거세말살하려는 반통일적인 범죄로 락인하면서 공화국북반부 전체 청년학생들의 이름으로 이를 단호히 규탄한다고 지적하였다.

성명은 남조선공안당국은 날로 높아 가는 겨레의 통일의지를 똑바로 보고 낡은 시대의 유물인 《보안법》을 당장 철폐하고 부당하게 체포구속한 《한총련》 6기 의장을 비롯한 모든 애국적청년학생들을 지체없이 무조건 석방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한총련》에 대한 계획적인 파쑈적탄압공세

로동신문

(평양 12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 최근 남조선대구고등법원은 각종 집회와 시위를 《주도》했다느니, 《리적표현물》을 제작했다느니 하는 터무니 없는 죄명으로 《한총련》 6기 의장 손준혁학생에게 중형을 들씌웠다. 남조선의 검찰, 경찰당국이 최근 몇달사이에만도 통일운동에 앞장 선 수십명의 《한총련》대의원들과 청년학생들을 《보안법》에 걸어 철창속으로 끌어 갔다.

20일부 《로동신문》은 이번 만행은 그 연장으로서 《한총련》에 대한 또 하나의 계획적인 파쑈적탄압공세의 한 고리이라고 지적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썼다.

남조선검찰, 경찰당국이 애국애족적이며 통일지향적인 《한총련》을 계속 《리적단체》로 몰아 대며 합법적으로 선출된 의장과 대의원들을 비롯한 청년학생들을 령장도 없이 마구 체포, 구속, 처형하는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 합리화될수 없는 반민족, 반통일, 파쑈행위이다.

동족을 따르고 동족과 통일론의를 하며 동족과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이룩하겠다고 하는 《한총련》을 《리적단체》로 몰아 사정없이 칼질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을 등진 파쑈폭군들만이 할수 있는 천추에 용서할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그것은 사실상 우리에 대한 도전이고 6.15북남공동선언에 대한 배신이며 겨레의 통일열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면전에서 우리를 걸고 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한 파쑈폭압의 칼바람을 일으키며 우리를 심히 자극하고 있는데 대해 결코 묵과할수 없다.

6.15공동선언의 정신대로 우리와 손 잡고 자주통일의 길로 나가겠는가, 아니면 외세와 야합하여 그 앞길을 가로 막고 동족을 모해압살하는 반역의 길로 나가겠는가, 전자가 살 길이라면 후자는 파멸의 길이다.

남조선당국은 시대와 민족의 이 엄정한 물음에 똑똑히 대답해야 하며 립장을 명백히 취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1인시위 보고 합니다

어제로 (12월 24일) 국가보안법 폐지 1인 시위 58일 째를 맞았습니다.

정기 국회가 열리는 동안 국가보안법 폐지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1인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정기 국회는 끝났지만 국가보안법은 꿈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지만 국가보안법의 《국》자도, 보안법의 《보》자도 국회에서는 거론되지 않고 보수 정객들은 정쟁으로 날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민중의 통곡 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입니다!!

임동규 선생님을 비롯해서 아직도 120여명이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했다고 해서 창살아래 묶여있고 600여명이 수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 앞 1인 시위는 오는 12월 30일로 접기로 했습니다. 3개월 동안 많은 분들이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 12월 24일에는 대한성공회 노원 나눔의 집 실무자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윤인경씨가 함께 하셨습니다. 윤인경씨가 쓰신 1인시위 소감을 올립니다.

국회앞에서...

드디어 오늘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했습니다.

그곳에 가기 전 최선생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데 그게 뭘까???

그냥 우두커니 서있다가 오게되면 어쩌나.

떨리는 마음으로 국회 앞을 걸었습니다.

조금 일찍 도착한 관계로 높다란 건물구경도 실컷 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드디어 봤다는 것에 동네에 가서 자랑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고(시골 출신임!! ^^), 국회 앞 전경도 보고, ...

몇 분 먼저 가서 다른 모임에서 오신 분들이 들고계신 것들도 한번씩 보고, 어느 자리가 해가 잘 드나도 보고(^^;), 옆에 계신 분과 장갑을 나눠 끼고, ...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간단명료하게 적혀있는 푯말을 들고서...

십분이 지났을까? 딱 하나 궁금해지더라구요.

시커멓고, 좋은 차 뒷자리에 앉아계신 분들은 왜 2초도 똑바로 보지 못하지???

옆자리에 계셨던 분이 그러시더라구요.

우리가 너무 잔인한 것 같다고, 그치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또 어떤 할아버지께서 오시더니 유심이 제가 들고있던 푯말을 뚫어져라 보시더라구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

《왜 여기 있어? 국회에 들어가지!》

아! 최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상황이구나. 나무라시는구나! 헌데...

《할말이 있어서 오는데 누가 막을거야? 들어가서 말하자!》

10분이 또 지났을까?

자연스레 허리와 어깨가 펴지고, 얼굴엔 미소 가득!

왜냐구요? 그치들 앞에서 움추리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고, 그렇게 당당하기에(난 그치들 보다는 그나마 죄를 덜 지었기에...) 미소도 띌 수 있었죠.

국회에서 나오는 차량 운전자와 눈이 마주친지 몇 초 후 자기 아이에게 국가보안법을 설명하는 어떤 엄마의 모습이 보기 좋았고, 앞만 볼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놀랐고, 개중에 아직도 손가락질을 하며 뭐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새삼 놀랐고, ..

칼같이 차가운 바람에 저는 당당하게 서있었습니다.

누군가 또 시작을 하겠지요.

그땐 꼭 다시 하고싶습니다!

간과하고, 묵인하는 죄를 짓고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것도 평생 그렇게 반성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은 자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심정으로, ...

전 개인적으로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이것도 인연인데, 국회 앞에서 뵈었고, 밥까지 사주신 한탄강댐 반대하셨던 분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자원하게 만들어주신 최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하게되면 꼭 저도 시켜주세요!

오는 26일에는 대한성공회 푸드뱅크 강영훈 실장님이 함께 하시기로 했습니다.

오는 27일에는 북부실업자 사업단 노원지부 송제형 사무국장님이 함께 하시기로 했습니다.

오는 28일에는 마들주민회(노원구에 있음) 이지현 대표님과 전교조 북부지회 장영복 선생님이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31일에는 국폐모 회원들이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2001. 12. 25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KAL기 사건 진상규명 1인 시위

오늘(21일) 12시부터 1시까지 잠실역 지하철 안에서 국정원을 규탄하는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구호는 ≪변함없는 안기부 국정원은 민족언론 탄압을 중단하라, 자주민보 언론인 3인 석방하라!≫, ≪87년 KAL기 폭파 김현희 아니다. 20가지 넘는 의혹 국정원은 묵살말고 전면 재조사하라!≫는 두개의 구호를 들고 잠실역과 롯대백화점 사이길에서 서있었습니다. 청원경찰과 보안과 형사들의 간섭이 있었지만 꿋꿋이 하였습니다. 1인시위 앞에 내려놓은 유인물을 시민들이 너도나도 몰려들어 집어가거나, 함께 토론도 하고 ≪진실은 밝혀야 한다≫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어쩔 때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와 1인시위대는 사람들속에 둥그렇게 둘러싸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KAL기 사건에 큰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안기부 규탄 1인시위는 앞으로 주요 거점마다 계속될 예정입니다.



22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잠실역 롯데 백화점 앞에서 87년 칼기 사건 의혹 진상규명과 자주민보 언론탄압 규탄의 구호를 들고 국정원과 반통일 세력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한명이 피켓을 들고 한명이 주변에서 유인물을 나누어 주려 했으나, 경찰들의 제지로 1인 시위자가 한손에 유인물을 들고 있었습니다(쟁반을 들고 있는 웨이터처럼^^).

지나가는 많은 시민분들이 스스로 유인물을 가지고 가시면서 꼼꼼히 읽어 보시는 분, 1인 시위자 앞에 몇 분 동안 서 계시며 깊은 생각을 하시는 시민분, 수고하라며 음료수를 사다 주셨던 분... 정말 좋은 호응 속에 1인 시위 진행하였습니다.

1인 시위지만 5명의 학우가 함께해서 진행하면서 1인 시위의 의의와 반통일 세력 규탄에 대한 교양도 진행해서 지루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돌아오는 2호선 지하철에선 공익의 눈을 피해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였습니다.

당면해서 87년 KAL기 사건이 이북의 테러지원국의 대한 근거가 되고, KAL기 사건을 이유로 김국방위원장의 답방을 막으려는 한나라당을 위시한 반통일 세력의 책동이 있습니다. 더 많은 단위에서 KAL기 진상규명 투쟁으로 국정원과 반통일세력을 규탄하는 투쟁을 적극적으로 진행합시다.

민족고대 반통일세력 단죄규탄 투쟁위원회
2001년 12월 24일

인간말종 윤태식 장세동 반인륜 범죄로 단죄하라

검찰이 발표한 ≪수지 김≫ 피살사건과 ≪윤태식 주가조작·정치권 로비의혹≫은 남편인 윤태식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도 모자라 당시 안기부 등 국가 공권력의 철저한 조작과 은폐 속에 간첩으로 몰린 한 여성과 유가족의 억울하고 한 맺힌 참극상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살인자인 윤태식이 김대중 정부 하에서도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비호하에 성공한 벤처사업가로 변신해 주가조작과 공금횡령을 일삼다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여야정치권과 고위공직자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은 한 살인자의 부도덕성과 국가공권력 타락상의 끝이 어디인가를 보여주었다.

민주노동당은 인간 말종인 윤태식과 국가공권력에 의해 짓밟힌 고인과 유가족 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검찰이 오욕의 역사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장세동 전 안기부장, 최광수 전 외무장관 등 관련 책임자를 반인륜 범죄로 공소시효 없이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윤태식의 배후 비호세력과 정치권 로비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국민 앞에 진상을 밝힐 것을 거듭 촉구한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위원장 이선근



분단역사의 마감과 함께 국정원은 해체되어야 한다

국정원은 수지김사건조작과 최종길교수타살은폐사건의 진상을 밝히라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안기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냉전수구세력의 대표집단으로서 자리메김해온 국정원은 지난 50여년간 벌어진 모든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최근 드러난 수지김사건조작과 최종길교수타살은폐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시대의 흐름은 더 이상 국정원이 철대문 안에 들어앉아 묵묵부답하고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억울한 죽음의 진상들은 국민의 손에 의해서 반드시 밝혀지게 될 것이며 냉전수구집단이 강제해온 역사의 왜곡된 뿌리들을 하나하나 밝혀내 기필코 바로잡을 것이다.

1987년 KAL기사건 조작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라

거대한 민주화의 함성, 6월항쟁이 끝나고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벌어진 칼기사건은 우리의 역사에서 매우 심각한 역할을 했다. 졸속적인 수사종결로 사건당시 제기되었던 수많은 의혹들이 하나도 밝혀지지 않은 채 14년을 묶혀온 역사의 진실을 이제는 말끔히 밝혀야 한다. 칼기사건으로 희생당한 유족들이 역사적인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각오에 찬 투쟁에 들어갔다. 이에 통일연대 등 진보와 통일을 갈망하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유족들과 함께 힘을 합쳐 역사바로 밝히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14년 전 벌어졌던 칼기사건은 평화와 통일이라는 우리 국민 모두의 희망과 깊은 관계가 있다. 바야흐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 더 이상 묶은 의혹을 안고 갈 수는 없다. 50여년 냉전수구세력의 아성으로 군림해온 국정원이 국민대중의 진상규명요구에 답해야 할 것이다.

테러방지법 제정음모 측각 철회하라

설상가상도 유분수지 지긋지긋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도 저 철의 장막, 국정원의 철대문을 넘지 못한단 말인가.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만들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 대한 또 하나의 테러에 다름 아니다. 테러방지법! 절대 안된다.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대중은 물론이고 사회의 양심있는 사람들이라면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제정음모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테러방지법제정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사생결단의 각오라는 표현이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국정원은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또 하나의 파쇼적 악법 테러방지법제정 음모를 즉각 철회하라.

통일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공안집단, 부패집단 국정원은 소멸되어야 한다.

우리 민족은 6.15공동선언 기치를 높이 들고 수구보수의 장벽을 넘어 조국통일로 전진하고 있다. 이 영광스러운 도상에서 50년 역사왜곡과 부패로 점철된 수구보수세력의 아성, 국정원의 존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국정원은 해체되어야 한다. 우리는 오늘을 시작으로 국정원에 대한 투쟁을 선포한다. 이후 우리는 국민들 속에 들어가 국정원이 지난온 50여년 역사동안 저지른 온갖 악행과 왜곡의 행태들을 고발해나갈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국정원의 본질을 만천하에 드러낼 것이다. 국민을 얕잡아보고 사람목숨을 파리목숨 대하듯 가볍게 대하며 역사를 비비꼬아 온 세월이 얼마인가. 인간의 기초적인 권리를 무자비하게 꺽는 것부터 시작하여 국민의 통일의지를 꺽고 냉전사고로 무자비하게 구속해온 것까지 국정원의 죄값은 반드시 치러질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



2001년 12월 19일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쟁취 부산민중연대(준)
국가보안법철폐 부산시민연대

서울 서부지역 민중연대 통일연대 송년의 밤 보고

12월 21일 금요일 민족사학 단결 홍익대학교에서 서부지역 송년의 밤이 열렸습니다. 기간 서부지역 연대, 연합활동을 총화하고 내년 민족사적 대 전환기를 준비하며 2002년 새로운 결의를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가간 연대, 연합을 했던 모든 단위들이 함께 어깨를 거는 자리였습니다. 민주노총 서부지구 협의회 소속 노조단위의 장기파업 사업장과 (페멕스, 시그네틱스. 린나이, 방송사 비정규직노조, 전교조 사립중 서부지회)와 철도노조,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와 민주노동당 서대문, 마포, 은평, 강서, 영등포 갑을 전 지구당과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서부지역 통일연대단체들과 기타 열린사회 시민회와 같은 모든 세력, 단체들이 한자리에 어우러졌습니다.

자리에서 기간 서부지역에서 펼쳐왔던 민중연대 투쟁과 통일투쟁의 성과들을 총화하고 대망의 2002년 민족사적 대 전환기를 투쟁으로 돌파할 것을 결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격동의 21세기, 그 첫해가 이제 서서히 마무리지어 갑니다. 또한 민족사적 대 전환기인 2002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 서울서부지역에서 보다 헌신적으로 모범적으로 열심히 투쟁의 가운데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동지들! 올 한해 투쟁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엔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615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그 길에서 뜨거운 가슴으로 만났으면 합니다.

열심히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부지역 송년한마당 준비위원회가 전국의 동지들께 띄워드립니다.

서울서부지역 송년의 밤 송년사

자본주의가 전세계적으로 판을 치고 탐욕스러운 제국주의의 예속과 굴욕의 20세기를 마감하고, 우리는 민중의 세기, 통일의 세기 21세기의 첫 해를 가슴벅차게 맞이하였다.

우리 민중들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되면서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노예처럼 부려먹혀왔고, 해방이후 현재까지 자본가들에 의해, 그리고 식민지 대리 독재정권과 부패한 정치인들에 의해, 그리고 그들을 통해 조국강토를 유린하고 있는 미제국주의에 의해 이중삼중으로 빼앗기고 짓밟히며 수탈당해 왔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길러왔다. 부정과 억압을 보고서 우리는 분노하였고 그 분노를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조직을 만들고 동지를 찾아나서며 우리의 힘을 키워왔다.

우리는 그 힘으로 미제국주의의 예속을 끊어버리고, 사회의 민주화와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 또 투쟁해 왔었다. 그러한 성과로 우리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역사적인 전진을 이룩할 수 있었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역사를 쓰고 건설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 수 있었다.

자주의 세기, 민중의 세기, 통일의 세기가 될 21세기는 바로 우리 세상이다. 노동자,농민,빈민,청년,학생,지식인,소자산인 등 모든 민중이 함께 사회를 갈아엎고, 새로운 사회건설에 함께 나서자!

최근 서울서부지역에서는 민중연대운동, 통일운동이 이전에 비해 줄기차게, 활발하게 전개해 왔었다. 우리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무수한 모범들을 창출할 수 있었고 이는 함께 했던 우리 모두의 성과이며, 자랑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또한 여기서 자만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의 성과는 전국단위의 튼튼한 전선체를 형성하기 위한 기층단위의 보이지 않게 살아있는 힘이 될 것이란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발해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615남북공동선언 발표이후 통일의 막혔던 물꼬가 트이면서 우리는 새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전환적 국면을 맞이하기 위한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서부지역에서 민중대회 준비위, 통일연대가 광범위한 세력들이 손을 잡으며 함께 싸워나가기로 한 것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 두 수레바퀴를 굴리며 그외 많은 세력들과 함께 손을 잡고 앞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자!

역사는 언제나 진리의 편이었고 투쟁하는 민중들의 뜨거운 가슴에는 언제나 삶을 반영한 진리가 담겨있었다.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세계지배정책을 이 땅에서부터, 바로 이 지역에서부터 박살내고 통일의 이정표 615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하는 성화를 이곳 서울서부지역에서부터 피워나가자!

우리의 기세는 그 어느때보다 드세고 승리는 낙관적이며 확정적이다!

서부지역 민중대회 준비위원회와 서부지역 통일연대를 중심으로 대망의 2002년을 향해 달려나가자!

서부지역 선봉투쟁 미국놈들 몰아내자!
서부지역 단결하여 615선언 실현하고 조국통일 이룩하자!
민중생존권 투쟁 사수하여 민중세상 안아오자!
서부지역 만세!

2001년 12월 21일 서울 서부지역 송년의 밤 참가자 일동

백두산여장군의 숭고한 동지애

구국전선 463호, 주체90(2001)년 12월 21일

참석자
김철호: 본사기자
이영순: ≪태양회≫회원
강정인: 대학교수

시 일
주체90(2001)년 12월18일

김: 12월 24일은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여사의 탄신 84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날을 눈앞에 둔 우리 겨레의 마음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가장 가까운 전우이시고 혁명동지이신 혁명의 어머니 **김정숙**여사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으로 불타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자리를 같이한 것은 숭고한 동지애로 한생을 수놓으신 **김정숙**여사의 고귀한 생애를 놓고 이야기를 좀 나누었으면 해서입니다.

이: 제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다시피 **김정숙**여사의 동지애에서 기본은 원칙적인 사랑과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격구시절 아동단원들과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아동단원들에 대한 **김정숙**여사의 사랑은 단순한 인도주의적 사랑이 아니라 철저히 계급적 자각을 심어주고 의지가 굳센 강의한 혁명가로 키우는 진정한 어버이사랑이었습니다. 여사께서 지도하신 학습과 노동, 군사훈련과 일상생활 그 자체가 바로 그러한 사랑의 연속이었고 동지들에 대한 자기 희생의 나날이었지요. 그 가운데서도 1932년 겨울에 있었던 일 한가지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왕우구유격구에 대한 ≪토벌대≫놈들의 습격을 피해 산으로 오르시던 **김정숙**여사께서는 대열에서 아동단원 한명이 없어진 것을 아시게 되시었습니다. 후에 안 일이지만 대열을 이탈한 그 아동단원은 부모들의 원수를 갚을 생각으로 적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 갔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게 된 **김정숙**여사께서는 즉시 총소리가 울리는 곳으로 내려 가시었는데 그때 그 아동단원은 적의 추격을 받아 기진해 있었습니다. **김정숙**여사께서는 단신으로 무장한 적을 쓸어눕히시고 그 아동단원을 위험에서 구원하시었습니다.

강: 그뿐이 아닙니다. 그해 겨울 공작임무수행을 위해 중보거라자촌으로 가셨을 때에도 적들의 추격을 자신께로 유인하심으로써 함께 갔던 아동단원을 구원해 주셨고 또 위험을 무릅쓰시고 불붙는 집에 뛰어드시어 어린애를 구해내기도 하시었습니다.

김: 네, 얘기를 들으니 후대들을 위해서, 동지들을 위해서 바치신 **김정숙**여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감동을 금할 수 없는데요.

강: 그렇습니다. **김정숙**여사께서는 언제나 동지들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어려운 고난도 달게 여기시었고 한몸의 위험도 돌보지 않으시었습니다. 1934년 늦가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유격구에 적들이 쳐들어 왔는데 **김정숙**여사께서는 그때 죽을 끓이고 계시었습니다. **김정숙**여사께서는 ≪토벌대≫놈들이 달려드는 그 위급한 순간에도 먼저 동지들을 생각하시었습니다. 죽가마를 버리고 간다면 동지들이 굶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신 **김정숙**여사께서는 탄알이 빗발치는 속에서 끓는 죽가마를 머리에 이시고 산고지에 오르시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다음에 보니 **김정숙**여사의 머리는 절반나마 데어서 부풀어 올랐고 머리카락도 타서 정말 성한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김정숙**여사의 머리를 보고 그날 울지 않은 동지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김정숙**여사는 평생 동지만을 위해 사신 분이시었습니다.

이: 그렇습니다. 사실 **김정숙**여사의 동지적 사랑



과 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행군휴식참에는 나어린 신입대원들의 군복을 손질해 주시고 저녁에는 작식을 보장하느라 편히 쉬신 적이 없었습니다. **김정숙**여사께서는 나라가 광복된 후에도 이런 뜨거운 동지애를 지니시고 사시었습니다. 광복후 어느 해인가 만경대혁명학원의 유자녀들이 열병에 걸려 심하게 앓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신 여사께서는 일꾼들에게 아이들이 열병을 앓고 있다고 가보기 꺼려한다면 우리가 무슨 부모구실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고 하시며 주저없이 격리병실로 가시었습니다. 여사께서는 병에 걸린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어머니가 옆에 있어 곧 낫는다, 부모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도 너희들은 병을 고치고 건강한 몸으로 공부해야 한다시며 구체적인 치료대책과 보양대책까지 손수 세워주시었습니다.

김: 정말 감동을 금할 수 없는 얘기들인데요.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이남혁명가들에게 돌려주신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이: 네, 아다시피 조국통일은 **김일성**주석님의 필생의 뜻이자 **김정숙**여사의 평생소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사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해 싸우는 우리 이남혁명가들을 누구보다 극진히 사랑해 주시었습니다. 1948년 9월 이남의 여성혁명가들을 만나주신 여사께서는 그동안 싸우느라 고생이 많았겠다고 하시며 친어머니, 친언니의 심정으로 그들의 생활을 돌봐 주시었습니다. 빨치산투쟁을 하면서 동상입은 그들의 손발을 치료해 주시기도 하셨고 그들의 구미에 맞는 음식을 손수 만들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예의범절까지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었습니다. 참으로 **김정숙**여사께서 보여주신 숭고한 동지애는 우리 여성들은 물론 만민이 따라 배워야 할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김: 네, 하기에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생전에 나는 굶어도 좋고 얼어도 좋고 아파도 좋다, 동지들이 배고프지 않고 춥지 않고 아프지 않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다, 내가 죽는 댓가로 동지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아무런 미련도 없이 웃으면서 죽음의 길을 택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김정숙**여사의 인생관이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두: 예, 그렇습니다.

김: 오늘 이북민중은 **김정숙**여사의 무한한 동지적 사랑과 의리를 그대로 체현하신 **김정일**장군님의 광폭정치, 인덕정치로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요. 이남민중은 이북을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며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조국통일을 위한 여러분의 투쟁에서 성과를 거둘 것을 바라며 오늘 얘기를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운동핵심들의 역할을 높이자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2월 17일~18일

사회자 : 안녕하세요.

김현규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오늘 격변하는 정세의 요구와 민중의 의사에 걸맞게 학생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운동핵심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으면 해서 이렇게 자리 같이했습니다.

김현규 : 아시다시피 학생운동을 발전시키자면 운동핵심들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건 무엇보다도 대중운동에서 핵심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과 관련된다고 보는데요. 일반적으로 운동핵심이라고 하면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싸울 각오와 의지가 투철할뿐 아니라 대중을 의식화하고 조직적으로 각성시키며 투쟁전술을 세우고 대중을 투쟁에로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학생운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고 또 운동의 성공적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운동핵심들이 제 구실을 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사회자 : 그렇죠. 사실상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학생운동이 강화발전되어 온 전 과정은 대중운동에서 운동핵심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는데요. 역대 독재정권의 악랄한 탄압책동속에서도 동요하거나 좌절되지 않고 한총련이 불패의 애국대오로 강화발전되어온 것이라든가 특히 당국의 학생운동분열와해책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를 받으며 제9기 출범의 닻을 올리고 자주민주통일운동을 보다 힘차게 벌이고 있는 것 등은 바로 운동핵심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떠나서 결코 생각할수 없죠.

김현규 : 옳은 말씀입니다. 운동핵심들의 역할을 높이는 건 오늘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는데요.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남과 북사이에는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이와 반면해 6.15공동선언 이행을 방해하는 내외분열주의자들의 책동도 더욱 우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는 학생운동을 더욱 대중화해서 청년학생들이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실은 바로 운동핵심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자기의 역할을 더욱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일부 학생들속에서 투쟁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서 투쟁에 뛰어들지 못하고 또 정치냉소주의에 빠진 학생들이 학생운동과 담을 쌓고 있는 현실은 운동핵심들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그럼 학생운동핵심들의 역할을 높이자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지 그에 관해서 좀 얘기해주시죠.

김현규 : 학생운동핵심들의 역할을 높이자면 무엇보다도 자기의 정치사상의식과 실무자질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운동핵심들이 자신의 정치사상의식수준을 높여야 그 어떤 정세변화속에서도 흔들림없이 학생운동승리를 낙관하며 굴함없이 싸워 나갈수 있고 또 실무자질을 높여야 구체적인 환경에 걸맞게 효율적인 공동전술을 선택하면서 대중을 능숙하게 지휘하고 또 통솔할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핵심들은 우선 자신의 사상의식과 그리고 자질향상에 응분의 힘을 넣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 그리고 운동핵심들이 학생대중과 함께 생활하고 투쟁하는 대중관을 확고히 확립하는 문제도 그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라고 보는데요.

김현규 : 네, 그렇습니다. 학생운동은 학생대중의 요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또 그들의 힘에 의해 전진하고 승리하는 운동입니다. 그런만큼 대중을 떠난 운동핵심은 마치 물을 떠난 고기와 같다고 할수 있죠. 그러므로 운동핵심들은 철저하게 대중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해서 투쟁을 조직하고 전개하는 올바른 입장과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자면 운동핵심들이 대중속으로 들어가자라는 구호를 들고 학생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생활을 같이 하면서 대중의 정서와 요구를 알고 그것을 적극 찾아내어 투쟁방침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대중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그들과의 공감대속에서 실천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사회자 : 옳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운동핵심들이 힘찬 투쟁으로 학생대중을 이끄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실천하지 않고 말만해서는 운동핵심이라고 할수 없죠. 운동핵심들이 말만하지 말고 생활에서나 투쟁에서 솔선수범이 되어야 학생대중이 따르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김현규 : 물론이죠. 그런 의미에서 백마디 말보다 한번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말은 바로 운동핵심들이 명심해야 할 명언이라고 할수 있죠. 운동핵심들은 ≪몸으로 말하라≫는 학생대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말보다 실천행동으로 학생들을 감흥시키고 투쟁에 이끌어내야 합니다.

사회자 : 지금의 현실은 운동핵심들이 학생운동에 한몸 바칠 각오를 가지고 뛰어다닐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중을 조직동원할줄 아는 단련되고 세련된 헌신적인 일군, 실천형의 일군만이 조직과 학우들의 믿음과 기대에 맞게 자신들이 지닌 책무를 남김없이 수행할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김현규 : 감사합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운동핵심들의 역할을 높일데 관해 김현규씨 모시고 얘기 나눠드렸는데요. 모든 대중운동이 그러하듯이 청년학생운동 역시 운동핵심들의 역할에 따라 많이 좌우됩니다. 운동핵심들은 대중운동의 선봉대인 학생운동을 책임졌다는 사명감을 더욱 깊이 자각하고 시대와 역사앞에 지닌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줄 압니다.

방학을 맞는 학생들에게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2월 19일~21일

청년학생여러분, 투쟁을 떠나서는 청춘 그 자체를 말할수 없고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화, 조국통일의 역사적 사명은 우리 청년학생들의 강인하고도 끈질긴 투쟁에 의해서만 이룰수 있는 겁니다. 우리 운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순간도 쉬지 말고 계속 투쟁해야 할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방학을 맞는 학생들에게≫ 이런 제목으로 김현규씨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김현규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이제 대학들에서는 겨울방학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방학을 맞는 학생들에게≫ 이런 제목으로 얘기 나눴으면해서 이렇게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럼 의견 먼저 주시죠.

김현규 : 아시다시피 며칠 있으면 대학들에서 겨울방학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방학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학업의 휴식기이고 심신을 단련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벌써부터 일부학생들은 여행준비를 한다, 교양준비를 한다하며 술렁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투쟁의 길에서 청춘을 빛내이고 애국의 길에서 삶과 희망을 꽃피우는 우리 청년학생들에게 있어서 학업의 휴식기는 있어도 투쟁의 휴식기는 있을수 없습니다.
우리 청년학생들과 각계민중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염원인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실현하지 못했고 또 조국통일을 이루지 못한 조건에서 우리 청년학생들은 방학이라고 해서 결코 투쟁을 멈출수 없는 겁니다. 더욱이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으로 6.15공동선언이행이 진통을 겪고 있는 지금의 환경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청년학생들은 이번 겨울방학을 투쟁속에서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시기로 삼고 방학의 나날을 의의 깊게 보내야 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 : 투쟁을 떠난 청춘, 투쟁을 떠난 희망과 미래에 대해서는 결코 생각할수 없죠. 그럼 이번엔 겨울방학에 우리 청년학생들이 어떤 문제들에 관심을 돌려야 하는지 그에 관해 계속 얘기나누죠.

김현규 : 이번 겨울방학에 청년학생들은 무엇보다도 지난 한해동안에 학생운동을 한번 돌이켜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가 없는 미래가 없듯이 지난 시기를 되돌아보는 건 앞으로의 학생운동발전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올해 학생운동에서 경험적인 것은 무엇이고 교훈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고 개선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국의 소리≫방송에서 나간 2001년 학생운동을 정리해 ************연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훈적인 것은 적극 살리고 부족하거나 아쉬운 점은 대담하게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청년학생들은 이와 함께 새해에 학생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변화된 정세의 요구에도 부응하고 또 대중의 사상의식수준과 감정, 정서에도 걸맞는 참신한 투쟁형식과 방법도 개발하고 학생운동대오의 단합을 이룩하며 조직체계도 정비하고 개편, 완비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 그리고 말이죠. 청년학생들은 방학기간에 자신을 정신무장하기 위한데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몇해동안 학생운동에 대한 당국의 탄압책동으로 일부학생들 속에서는 투쟁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동요하는 현상이 있는가하면 운동권일각에서 표현되고 있는 분파주의, 관료주의 현상도 바로 청년학생들의 준비정도가 부족한 데도 주요한 원인의 하나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극복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규 : 옳은 지적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쟁은 각성된 사람들에 의해 시작되고 진행되는 거잖습니까. 그러므로 투쟁에 나선 사람들은 부단히 자신을 사상정신적으로 수양하고 단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자신을 투철히 정신무장하는데서 기본은 주체사상에 대한 학습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체사상은 인간의 운명개척의 길과 변혁운동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상입니다. 주체사상과 주체의 전략전술로 투철히 정신무장해야 투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 어떤 어려운 시련이 앞을 막아도 동요와 좌절을 모르고 투쟁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고 운동권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는 개량화경향에도 강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년학생들은 주체사상원리 학습을 심도있게 하며 주체의 대중운동이론과 전략전술로 정신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 그런데 말이죠 방학기간에는 학생들이 고향이나 여행길, 사회봉사활동들을 비롯해서 제각기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잖아요. 이런 여건에서 학생들은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걸맞게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의 투쟁을 벌여야하지 않을까요.

김현규 : 그렇죠. 방학기간 청년학생들은 현위치의 여건에 걸맞게 무엇보다도 각계민중 속에 들어가 대민홍보활동을 적극 벌여 하나가 열, 백을 깨우쳐야한다고 봅니다. 홍보활동에서는 주체사상을 각계민중 속에 널리 전파하는데 중점을 두고 6.15공동선언이행을 한사코 방해하는 미국과 이회창을 비롯한 반통일세력들의 책동의 엄중성과 악결과에 대해 널리 폭로함으로써 그들속에서 내외 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도전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기운을 더한층 고조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철폐성, 민주화투쟁의 당위성을 대상의 수준과 의식정도에 걸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홍보해야 할겁니다. 지역주민들이 벌이는 생존권쟁취투쟁에 적극 지지동참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생존권투쟁을 정치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사회자 : 청년학생들은 대학 총학생회장선거가 진행된데 걸맞게 조직을 일사분란하게 정비하고 투쟁계획도 잘 세울 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청년학생들을 투쟁의 장으로 견인해내기 위한 방법론도 견지해야 하겠죠. 이렇게 청년학생들은 방학기간에 학생운동의 발전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새해엔 학생운동조직이 보다 새로운 성숙된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는데 적극 기여해야 할겁니다. 그럼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2001년 청년학생운동

조연택 / 구국전선, 주체90(2001)년 12월 21일



자주, 민주, 통일운동사에 또 하나의 빛나는 장으로 아로새겨진 21세기 첫해인 올해 정의에 과감하고 애국애족에 투철한 우리 청년학생들은 시대와 민족 앞에 지닌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결연히 분기하여 학생운동을 힘차게 전진시켜 왔다.

올해 청년학생들은 유례없는 시련과 난관이 중첩되는 속에서도 합법적 공간을 통한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였다.

공안당국은 학생운동을 근원적으로 말살하기 위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매도하면서 탄압과 폭압의 도수를 높여 왔다.

그러나 청년학생들은 공안당국의 총칼탄압과 회유기만에도 한총련을 고수하고 그 조직력과 단결력, 전투력을 일층 강화해 왔다.

주지하다시피 정초부터 몰아친 공안당국의 학생운동말살한파는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렸다.

지난 5월 교육인적자원부가 각 대학에 한총련 탈퇴를 종용하는 통보문을 보내고 검찰과 경찰이 한총련지도부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선풍을 벌인 것과 같은 구시대적인 파쇼탄압과 회유기만책동이 끊기지 않고 자행됐다.

그런 탄압 속에서 건국대학교 총학생회장 배민규씨, 남총련 제10기 의장 최종은씨 등 수많은 한총련대의원들과 애국학생들이 철창 속으로 끌려 갔다.

그러나 그 어떤 탄압책동도 학생운동의 합법화를 위한 청년학생들의 투쟁의지는 꺾지 못했다.

청년학생들은 공안당국의 학생운동탄압책동에 반격을 가하고 한총련의 위상과 기개를 과시하기 위한 투쟁을 가열차게 벌였다.

지난 2월1일부터 진행된 남총련소속 청년학생들의 단식농성과 5월2일에 발표된 한총련의 기자회견문을 비롯해서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연중 그 어디서나 울려 나왔다.

청년학생들은 올해 정초부터 합법적 공간을 이용하여 희세의 반통일, 반민주악법인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을 줄기차게 벌여 왔다.

이와 함께 ≪집시법≫개정과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철회, 등록금인상반대, 민주운동세력에 대한 탄압중지, 양심수석방 등 민주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온갖 반민주적 행위와 제도적 장치들을 반대배격하는 투쟁을 벌였다.

민주화투쟁의 선봉대로서 불굴의 기개를 떨치며 청년학생들은 공안당국의 탄압을 박차고 지난 4월6일에는 9기 한총련 대의원대회를, 6월3일에는 9기 한총련출범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것은 한총련을 고수하고 학생운동을 자주, 민주, 통일의 한길로 이끌어 나가려는 청년학생들의 불굴의 애국적 의지와 결심을 남김없이 발휘한 애국적 장거라 하겠다.

올해는 청년학생들이 범국민적인 반미투쟁을 앞장에서 이끌어온 투쟁과 전진의 나날이었다.



청년학생들은 《반미자주의 기치 드높이 자주로운 새 세기의 진격로를 개척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지난 1월10일 반미투쟁선포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새 세기 장엄한 투쟁의 첫 자국을 내디뎠다.

이어 3월18일과 5월3일 한총련이 반미투쟁호소문과 《미사일방어》체제구축책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비롯해서 청년학생들이 지펴올린 반미투쟁의 불길은 쉬임없이 타올랐다.

특히 4월18일부터 5월18일까지 전개된 반미구국단식단투쟁과 8월6일부터 20일까지 백악관앞에서 벌인 한총련과 범청학련 남측본부 대표들의 단식농성투쟁은 청년학생들의 반미의지를 과시한 일대 시위였다.

참으로 우리 청년학생들의 반미투쟁은 각계민중을 반미항전에 궐기시키고 미국의 대북강경압살정책과 반통일책동을 분쇄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2001년은 청년학생들이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적 통일운동의 선봉장의 중임을 다해온 투쟁과 헌신의 나날이기도 했다.

청년학생들은 6.15공동선언이행으로 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마련할 의지를 안고 반미성전에 과감히 분기하는 한편 이회창을 비롯한 반통일세력과의 일대 전면전을 벌여 왔다.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려는 청년학생들의 지향은 더없이 숭고하고 깨끗한 것이었다.

그 지향은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로 빛내이기 위한 해내외 청년학생들의 결의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안아 왔다.

그 지향을 안고 청년학생들은 6.15공동선언발표 1돌을 맞으며 고려대학교 구내에 주체사상탑을 본따 만든 모형탑을 세우고 서울대, 고려대 등 여러 대학들에 인공기를 게양하여 기념했다.

그리고 금강산에서 열린 민족통일대토론회와 평양에서 열린 2001년민족통일대축전에도 참가해 한총련의 위상을 과시했다.

지난 1월26일 미국의 무기강매압력에 굴복한 국방부의 반민족적인 공격용 헬기구입책동을 규탄하여 발표한 서총련의 성명은 분열주의, 반통일세력을 끝까지 징벌하려는 청년학생들의 의지를 선언한 것이다.

그 의지는 2월19일 《국가보안법》폐지를 요구하여 한총련 중앙위원들이 발표한 시국선언에도 담겨져 있었고 《30일 반미구국단식단》이 치켜들었던 투쟁구호들에도 비껴 있었다.

그 의지에 받들려 9월7일에는 통일의 원수 이회창을 매장하기 위한 반이회창투쟁의 포문이 열렸고 수구반통일세력의 대변지인 《조선일보》구독거부운동이 대학가와 경향각지를 휩쓸었다.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 운동단체들과의 단합을 강화하고 연대공동투쟁을 적극 벌인 것은 올해 학생운동이 승리를 이룩할 수 있은 중요한 비결의 하나이다.

올해 청년학생들에게 있어서 단합의 표대는 6.15공동선언이었다.

《6.15공동선언에 동의하는 단체와는 언제나 손잡고 나갈 것이다.》이같은 지향을 안고 청년학생들은 3월15일 30여개 시민, 사회단체들과 함께 《통일연대》결성식에도 참여했고 6월3일 40여개 학생, 시민단체들과 《6.15공동선언실천범국민대회》도 가졌다.

그리고 8.15에는 민화협, 통일연대 온 겨레손잡기운동본부 등 재야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을 성대히 개최했다.

이뿐이 아니라 《미국이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반대》,《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6월과 7월에 벌어진 민주노총의 1차, 2차 연대파업, 《신자유주의 개방농정반대》 등 민주생존권쟁취를 위한 노동자, 농민들의 투쟁대오에는 언제나 청년학생들이 함께 서있었다.

지금 이 시각도 우리 청년학생들은 노농운동을 비롯한 당국의 민주운동단체들에 대한 탄압을 반대하는 각계민중의 투쟁에 적극 지지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한총련에 각계민중은 지지와 연대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3백11개 시민, 사회단체들이 《한총련합법화 및 한총련 출범식 안정적 성사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묶고 9기 한총련출범식의 평화적 개최보장을 촉구한 사실만으로도 학생운동을 보는 각계민중의 시각을 잘알 수 있다.

참으로 올해 청년학생운동이 거둔 성과는 자못 크며 괄목할만한 것이다.

이 해를 빛나게 장식한 우리 청년학생들은 민족의 자주적 통일운동사에 또 하나의 빛나는 장으로 아로 새겨질 희망찬 새해 2002년에 조국과 민중의 아들딸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빛나게 완수하여야 할 것이다.

민족자주통일의 궤도를 힘차게 달려온 통일운동

김세찬 / 구국전선, 주체90(2001)년 12월 21일



21세기의 첫해인 2001년은 민족의 태양이시며 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마련해 주신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발표 한돌이 되는 뜻깊은 해였다. 올해 각계민중은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한 투쟁을 벌여 커다란 진전을 이룩하였다.

무엇보다 각계민중은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민족자주통일열기를 비상히 앙양시켰다.

지난 5월 남북 노동자대표 1천여명의 참가하에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남북 노동자 5.1절대회≫가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여기에 참가한 대표들은 남북노동자가 앞장에서서 통일의 문을 열어나갈 것을 힘있게 호소했다.

한편 7월에는 농민대표들과 ≪6.15남북공동선언 실천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를 비롯한 여러 단체 대표들이 참가하여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남북농민통일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서 남북농민들은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굳게 뭉쳐 통일운동을 힘차게 벌여나갈 굳은 결의를 다졌다.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노동자통일대회≫와 ≪남북농민통일대회≫는 외세에 의해 조국이 분열된 후 처음으로 개최된 통일대회로서 남북 노농대중이 6.15공동선언실천투쟁의 주역으로 당당히 등장하였음을 선언하고 굳센 민족자주통일의지를 내외에 힘있게 과시한 획기적인 회합이었다.

또한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발표 1주년을 계기로 지난 6월15일 남과 북, 해외의 각 단체대표들과 각계인사들이 금강산에 모여 ≪6.15공동선언과 민족의 과제≫라는 주제로 민족통일대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 참가한 대표들은 민족자주통일열망을 격조높이 터치었다. 그들은 일치하게 조국통일문제는 주인인 남과 북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며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걸맞게 통일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 드높은 결의들을 표명했다.

각계민중의 민족자주통일열기는 조국광복 56주년을 맞으며 통일의 성도 평양에서 대성황리에 진행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참가를 계기로 비상히 높아졌다.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민족통일대축전에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분열의 장벽을 허물고 민족의 자주통일을 이룩하려는 겨레의 염원을 안고 모인 수백개의 남북, 해외의 정당, 단체 대표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마련해 주신 조국통일3대헌장이 자주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밝힌 민족의 통일대강이라고 지적하면서 6.15공동선언의 기치따라 민족자주통일의 대행진을 힘차게 벌여나갈 불



같은 결의들을 피력했다. 《통일연대》의 한 대표는 《이번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해보니 통일이 눈 앞에 보이는듯 싶다. 안팎의 분열주의세력이 제아무리 발악해도 7천만 겨레의 통일의지는 절대로 꺾지 못한다》고 흥분된 심정을 말했다. 실로 각계 통일운동단체들과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대히 거행된 8.15광복 대축전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과시하고 겨레의 통일의지를 더욱 굳게 해준 민족통일 대회합이었다.

다음으로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가로막아 나서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새로 출범한 미국 부시정권은 《대북강경정책》을 선언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에로 향하던 남북관계를 긴장격화와 대결의 원점으로 되돌려세우려고 악랄하게 획책했다. 이에 맞서 각계민중들 속에서는 미국의 반통일책동을 저지분쇄하기 위한 투쟁들이 힘있게 전개되었다.

대표적인 몇가지 투쟁들만 봐도 《민주노총》, 《참여연대》, 《전국연합》 등 40여개 단체들이 《미사일방어》체제 저지와 평화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벌인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저지파탄투쟁과 주한미군기지철폐투쟁,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가 벌인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의한 6.15공동선언이행 반대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 전국연합이 연중 가열차게 벌인 반미투쟁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6.15선언 방해하는 대북 적대정책으로 한반도 긴장 고조시키는 미국을 반대한다》, 《부시정권은 대북적대정책 포기하고 북미합의 이행하라》, 《주한미군 물러가라》고 하면서 강도높은 반미투쟁을 벌였다.

그리고 6.15공동선언의 암적 존재인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기 위한 투쟁도 연중 계속 가열차게 벌어졌다.

몇가지 사례만 봐도 《전국연합》소속 재야인사, 대학생 등이 국회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구속인사석방과 《보안법》철폐, 정보원해체를 주장한 것과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9개 카톨릭교 관련단체들이 서울 명동카톨릭회관에서 《국보법》폐지를 요구해 나선 사실, 전국의 2백7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개혁실종, 민생파탄, 민주역행의 현상황을 우려하는 민주사회단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국보법》철폐투쟁을 벌인 것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와 《국보법》폐지 국민연대는 《국보법》폐지와 범민련,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철회를 주장하여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12월1일부터 10일까지를 인권주간으로 선포했으며 그 기간에 《보안법》폐지와 범민련, 《한총련》의 《이적》규정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여 집중적인 투쟁을 벌이었다.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가로막아 나서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에서 주목되는 것은 각계 민중이 희세의 친미사대매국노이며 반통일역적인 이회창을 매장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나간 것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이회창을 비롯한 반통일세력들은 외세에 추종하여 6.15공동선언을 무효화시키고 그 이행을 가로막아 남북관계를 과거로 되돌려세워보려고 발악하고 있다. 심지어 《조선일보》와 같은 매문지까지 동원해 사회여론을 오도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처하여 각 민주사회단체들은 반이회창투쟁과 《조선일보》안보기운동을 밀접히 결부시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반이회창투쟁을 줄기차게 벌였다.

참으로 올해 민족자주통일운동은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외세와 그와 야합한 이회창과 같은 반통일세력들의 방해책동을 짓부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자국을 남긴 한해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올해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위한 계층과 여러 단체들사이의 조직적 결집강화, 연대연합을 위한 노력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3월 《전국연합》, 《한통련》 등 30여개 재야 및 학생단체들로 구성된 통일연대가 결성되고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간 것이 주목을 끌었다.

대망의 새해 2002년은 우리 민족사에서 매우 뜻깊은 해이다. 각계층 민중은 총분기하여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통일대행진을 더욱 줄기차게 벌여 2002년을 조국통일을 이룩하는 데서 결정적 전환의 해로 빛나게 장식하여야 할 것이다.

역사적인 12월 24일을 뜻깊게 기념하며

통일여명 편집국 공보 (편집국 보도 28호)

≪**김정일**최고사령관의 선군혁명영도는 조선혁명의 특수한 실정과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역사적 교훈으로 보아도 매우 옳은 정치방식이다. ... 싸운다면 싸우고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산악 같은 배짱, 조선이 없는 지구는 통째로 깨버려야 한다는 도고한 자존심, 힘에는 힘으로 맞서고 총대는 총대로 제압해야 한다는 단호한 결심, 이것은 오늘의 냉전에서 조선인민이 패배를 모르는 승자로 되게 하신 **김정일**동지의 명장다운 기질이다.≫ - 윅또르 꼴리꼬브(러시아국방성 고문인 전 소련국방성 제1부상 겸 바르샤바조약합동군 총 사령관 소련원수)

≪**김정숙**동지의 생애는 비록 짧았지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업의 계승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받들어 올리신 그이의 업적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그이의 불 타는 애민, 헌신의 한생은 근로인민의 기억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것이다.≫ - 니나 안드레예바(전련맹볼쉐비크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오늘 12월 24일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신 10돌과 백두여장군 **김정숙**동지의 탄생 84돌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은 이 역사적인 기념일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하여 그간 새로 입력하고 제작한 자료들을 동지들에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은 ≪21세기 태양≫ 총서를 발간하며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백두천출명장으로서의 위대한 풍모를 10권의 피디에프자료집에 담아 이미 공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제 8권 ≪천출명장≫은 무비의 담력과 신묘한 전략으로 미제국주의와의 대결전을 승리로 영도하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의 사상과 영도, 풍모를 싣고 있습니다. ≪천출명장≫은 우리 편집국이 최고사령관추대기념일을 맞이하여 동지들에게 일독을 권고하는 대표적인 피디에프자료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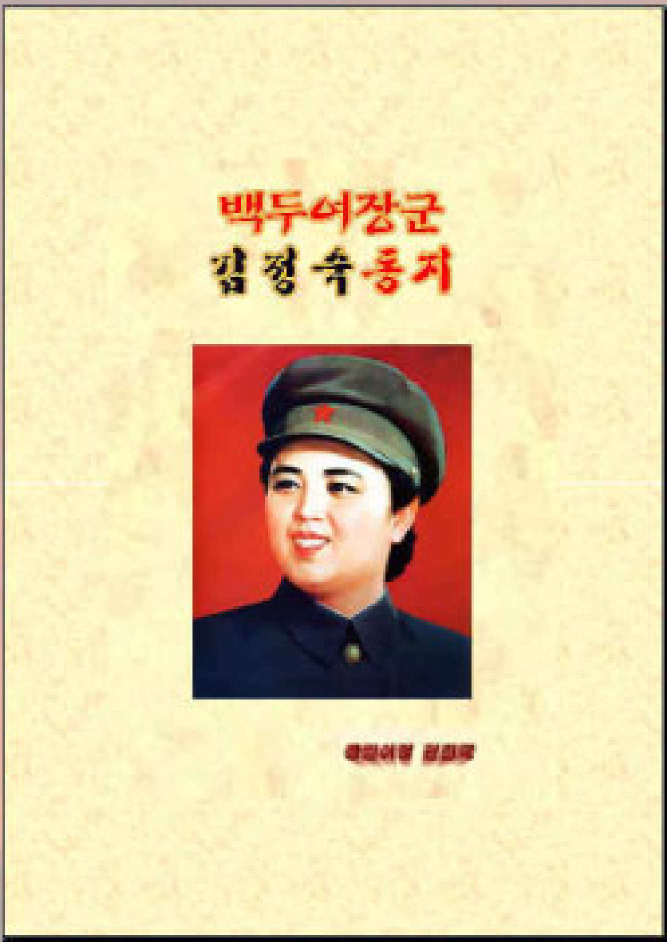
다음,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이시며 백두여장군이신 **김정숙**동지의 혁명적 생애와 사상을 담은 한글자료집 ≪백두여장군 **김정숙**동지≫(≪통일여명≫ 편집국)와 피디에프자료집 ≪백두여장군≫(≪6.15주간≫ 편집부)입니다. 오늘 새로 제작하여 발표하는 이 자료집에는 백두여장군 **김정숙**동지의 혁명사상과 풍모가 전면적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피디에프자료집 ≪백두여장군≫에는 그간 잘 알려지지 않은 존경하는 **김정숙**동지의 고귀한 영상자료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 그간 우리들이 직접 입력한 자료 27권과 통일여명식으로 재편집한 자료 10권을 공개합니다. 재편집한 자료 10권은 최근 통신에 공개되어 화제의 초점이 된 귀한 자료들과 이전에 공개된 자료들로서 동지들이 보기에 편리하도록 하이퍼텍스트로 재편집하여 공개합니다. 이번에 새로 입력하여 공개하는 자료 27권은 미공개 혁명소설이나 전위당의 각종 자료들과 함께 맑스레닌주의원전과 당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의 진수를 계승하고 그 시대적, 사상이론적 한계를 극복한 완성된 공산주의학설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공개하는 맑스레닌주의자료들이 주체사상에 대한 동지들의 인식을 심화발전시키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결국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사상이며 사상사업이야말로 혁명투쟁의 선행공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체의 사상론, 혁명적 붓대중시사상을 틀어쥐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의 굴함 없는 선전투쟁은 향후에도 줄기차게 이어질 것입니다.

≪통일여명≫ 편집국
주체 90(2001)년 12월 24일
서울

목록



HWP자료집
백두여장군
김정숙동지

PDF자료집
백두여장군



주체 90, 12월 16일

서울에 사는 국립의료원의 의사 김모씨가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베푸시는 인덕정치를 높이 찬양했습니다.

한국사회민주주의연합은 국방부가 용산미군기지에 아파트건설계획을 허가하고도 아닌보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13일 성명을 냈습니다.

주한미군기지재배치를 위한 연합토지관련계획과 관련해 미국이 반환키로 한 기지가 20곳이라는 국방부발표와는 달리 주한미군측이 15곳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금과 단체협약 등과 관련해 회사측과 마찰을 빚고 있는 현대자동차노조가 시한부전면파업을 벌였습니다.

기독교방송노조는 14일 새벽 3시부터 기자, 엔지니어 등 전체조합원이 참여하는 24시간 시한부총파업을 벌였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민주노총 관계자 8명은 15일 한나라당사를 방문해 주5일근무제제시, 비정규직노동자보호 등 각종 현안에 대해 협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이회창과의 면담을 통해 주5일근무제를 사업장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할 경우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의 권익이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다면서 내년 7월부터 주5일근무제를 전면실시할수 있도록 입법과정에서 한나라당이 협력해 줄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회장총재는 주5일근무제도입문제를 **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느니 뭐니하며 사실상 반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며 이회창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지하주차장에서 방화로 보이는 불이나 차량 5대가 불에 타고 80여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신 10돌과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여사의 탄생 84돌 기념집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러시아협회의 주최로 지난 11일 모스크바에서 진행됐습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비슈와나스이사장은 지난 10일 성명을 발표해 일본당국의 조총련탄압책동을 규탄했습니다.

주체 90, 12월 17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평안북도내 공업부문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지난 9일 서울 광진구에 살고 있는 퇴역장교 김모씨가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수호자로 높이 찬양했습니다.

최근 각계에서 반미투쟁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제27차 반미연대집회가 진행됐습니다.

한총련과 통일연대 등 500여개 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들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실천단체를 만든데 이어 15일 서울 동대문운동장앞에서 반전집회를 열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전쟁중단을 주장하며 거리행진을 벌였습니다.

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 등 50개 시민단체회원과 학생 70여명은 15일 오전 서울 용산의 북방부정문앞에서 집회를 갖고 지난 13일 국방부가 미군기지의 아파트관리허용방침을 밝힌데 대해 국방부장관은 국민앞에 사죄해야하며 즉각 퇴진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북 선수들이 제13차 아시아여자축구선수권대회에서 제1위를 쟁취해 주체조선의 영예를 자랑스럽게 떨쳤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최근 일본에서 이북을 반대하는 ≪납치의혹≫소동이 또다시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16일 이를 규탄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주체 90, 12월 18일

한총련 대변인은 14일 미국에 보내는 경고장을 발표했습니다.

충청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은 12일 성명을 내고 미군의 영구주둔음모책동을 규탄했습니다.

임금단체협약과 관련해 노사갈등을 계속해오던 현대자동차가 17일 극적으로 임금협상안에 잠정합의했습니다.

각계에서 부정비리의 왕초인 이회창을 지체없이 제거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모변호사는 이회창의 부정비리는 그 수법이나 규모에 있어서 부정비리로 소문났던 선행자들을 훨씬 능가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회창이 서울지방법원판사로 있던 지난 60년대초에 벌써 10여건의 이권에 개입해 당시 돈으로 2억여원을 착복했다는 것과 그 이후 서울고등법원에 근무하는 기간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취급하면서 사례금명복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는 것은 이미 공개된 사실이다. 어디 이뿐인가. 이회창은 서울 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있을 때와 감사원장을 할 때에도 아주 교묘한 수법으로 많은 돈을 부정착복했다. 오죽했으면 당시 항간에서 이회창을 두고 하마보다도 입이 큰 법관, 돈 먹는 불가사리라고 했겠는가. 뿐만 아니라 이회창은 국무총리와 신한국당 총재직을 지내면서도 각종 이권개입과 정치자금명목으로 많은 사람들과 대기업들로부터 1조여원을 뜯어냈다. 이 몇가지 사실만봐도 이회창이 부정비리의 왕초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회창과 같은 부정비리의 왕초가 아직도 정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의 수치이다. 부정비리 왕초 이회창을 지체없이 제거해야한다.≫

서울시 동작구에 사는 재야인사 이모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회창은 기회있을 때마다 청렴결백을 운운하면서 부정비리척결과 부패일소에 대해 떠들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 국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이 아닐수 없다. 이회창이 어떤 자인가. 이회창은 과거 법관시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갖은 권모술수로 많은 돈을 부정착복한 부정비리의 왕초이다. 더욱이 간과할수 없는 것은 이회창이 벌써부터 16대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승리를 운운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비열하고 파렴치한 사기한인가. 이회창이야말로 썩을대로 썩은 오물이며 잡덩굴이다. 이회창과 같은 사기한, 부정비리의 왕초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한국사회는 더이상 **수없는 부정부패의 왕국으로 완전히 전락되고 말 것이다. 부정비리의 왕초 이회창은 국민의 일치한 요구대로 정계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

민주당 김홍일의원은 민주당 각료출신인 최택곤씨가 자신의 명의로 검찰간부들에게 돈봉투를 돌렸다고 보도한 조선일보사를 언론중재위에 고소하겠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김의원은 또 이와 관련해 성명을 낸 한나라당 권철현대변인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혐의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표 전 민주당고문 등이 추진하는 신당이 가칭 푸른정치연합으로 17일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가칭 푸른정치연합은 여의도당사에서 기

자회견을 통해 1인지배정당체제와 부패정치 그리고 지역주의극복 등을 주요 정당정책으로 삼아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해 창당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기업가의 개인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 경제학회가 일반 국민과 대학생, 교수, 기업인인사담당자, 신입사원 등 22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나타났습니다.

재중조선인청년연합회 문태환위원장은 조총련에 대한 일본당국의 탄압책동을 규탄해 지난 10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는 15일 성명을 발표해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일본당국의 반북반조총련책동을 규탄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남측이 이북에 대한 《주적론》을 버리지 않고 정세를 계속 긴장시키면서 악화된 현 남북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려 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지난 17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주체 90, 12월 19일

부산 해운대구 모고등학교의 최모교사가 **김정일**영도자님을 참교육의 화원을 가꾸신 위대한 정치가로 높이 칭송했습니다.

범청학련 남측본부 최승환 한총련의장은 14일 호소문을 발표해 미국의 침략전쟁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 모두가 떨쳐나설 것을 호소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통일연대)는 지난 14일 성명을 발표해 강정구교수에 대한 해임안을 재단이사회에 제출한 동국대학교측의 처사를 규탄했습니다.

청주대학교 교수협의회가 재단비리혐의로 고소된 전 청석학원 이사장의 아들인 김모씨의 제6대 총장후보출마에 반발해 총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철저한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문사유가족들이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해 17일 오전부터 위원장실에서 무기한 점거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에서 철저한 조사의지없이 독단적인 판단을 통해 서둘러 사건을 종결하자고 하고 있다며 위원장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위원회조사권한의 강화와 기간연장 등을 위한 법개정에 착수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새로운 위원장체제가 가동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활동이 중단되는 편이 낫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국회정무위원회는 지난 17일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피해당사자와 유가족에게 교육과 취업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의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법을 의결해 법사위원회에 넘겼습니다.

국회상임위원회에서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법이 의결된 것은 그를 요구해온 우리 민중의 오랜 투쟁이 이루어낸 결실이라 할 것입니다.

공군과 육군이 825억대의 예산을 들여온 미국제 항공기착륙유도용 항공관제레이다가 결함때문에 몇년간 제구실을 못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국방부가 민주당 정대철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군이 지난 94년 미국 가이티사와 계약을 맺고 들여온 고정식 항공관제레이다 4대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처럼 결함이 드러난 뒤에도 공군과 육군은 지난 99년 레이다 3대를 추가로 들여왔으며 역시 고장때문에 16개월이상 정상적으로 운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공군이 1차 사업때 결함을 발견하고도 2차 구매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국방부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무기인줄 뻔히 알면서도 미국의 무기강매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미국군수산업체의 배를 불려주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탈농현상으로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농업인구의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10%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북 외무성대변인은 최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침략행위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18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답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북측본부 대변인은 18일 성명을 발표해 이남에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해 의로운 활동을 벌이고 있는 청년학생들을 탄압하는 폭거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을 규탄했습니다.

주체 90, 12월 20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지난 14일 성명을 발표해 미군의 용산기지내 아파트건설강행을 규탄했습니다.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공동대책위원회와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개정국민행동,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는 미군의 아파트건설추진에 맞장구를 치는 국방부의 사대행위를 규탄해 15일 **으로 된 기자회견문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의회 이동진의원 등 시의원 19명은 19일 서울시 의회에 주한미군의 용산기지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터무니없는 의문공세를 계속할 경우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낙연대변인은 누구든지 실정법을 위반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근거없이 의혹을 만들어 돌리는 일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한나라당과 이회창이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대변인은 또 안기부예산횡령의혹과 국세청을 동원한 대선자금모금의혹 등 한나라당관련의혹조사가 자포상태에 빠져 있다면서 검찰이 전면 재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선후보 경선출마를 선언한 한나라당 박근혜부총재는 한나라당의 현재 경선체제로 후보경선을 치룬다는 것은 무의미하며 공정한 경선을 위해서는 당내 대선주자들은 물론 당내외 중립적 인사들로 **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대선후보경선을 둘러싸고 이회창과 박근혜간의 의견대립으로 한나라당의 내분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신 10돌에 즈음해 14일 러시아의 모스크바평화기금운영위원회의 주최로 조선의 날 기념행사가 진행됐습니다.

2002년 태양절기념 및 2.16경축 핀란드준비위원회가 13일 헬싱키에서 결성됐습니다.

팔레스타인 민족당국수반 야세르 아라파트가 지난 16일 TV방송연설에서 중동지역에서 폭력행위가 계단식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대한 책임은 이스라엘수상 샤론에게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주체 90, 12월 21일

지난 15일 서울의 한 시민단체에서 활

동하고 있는 재야인사 김모씨가 이북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새롭게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접하고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6.15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가 50여명의 대표들과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5일 제2차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범국민행동의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통일연대 상임대표 한상열씨와 전국연합 공동의장 이천재씨 등은 연설을 통해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해 매달 15일에 진행하기로 한 범국민행동의 날 행사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지적하고 이 행사를 앞으로 계속 진행해 공동선언이야말로 반드시 이행해야할 통일의 이정표임을 전국민에게 알려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국가보안법폐지의 정당성에 대해 지적하면서 6.15공동선언실현을 가로막고 있는 보안법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사장에는 이회창과 정보원, 조선일보 등 국가보안법폐지를 가로막고 있는 주범들이 보안법이 폐지됐을때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형상한 모의감옥이 설치되어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범국민의 날 행사는 매달 진행됩니다.

한총련의장 최승환씨가 용산기지내에 아파트건설을 강행하려는 미군의 전횡과 그에 추종하는 국방부의 사대행위를 규탄해 14일 성명을 냈습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미국이 탄도탄요격미사일제한조약에서 탈퇴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14일 성명을 냈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노조원 20여명이 뇌물수수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김영세교육감의 퇴진을 요구하며 19일부터 교육감실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인천 부평구에서 전국 최초로 미군기지이전에 대한 구민투표가 실시됩니다.

부평구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부평미군기지이전에 대한 구민투표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150일이내에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어 늦어도 내년 5월까지 국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개표가 끝나면 투표결과를 한국과 미국 정부에 즉각 통보하게 됩니다.

부평구의회는 도심속에 위치한 미군기지가 구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만큼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 구민투표를 실시할수 있다는 지방자치법규에 따라 구민투표실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0년 신군부에 의한 김대중내란음모사건과 관련해 계엄포고령 위반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가 선고됐던 민주당 한화갑, 김홍일의원 등 6명에게 21년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각계에서 용산미군기지내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주한미군의 파렴치한 처사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김모씨는 주한미군의 부당한 처사에 분격을 금할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산에서 부산 하야리야까지 90여곳 7500만평에 달하는 땅을 불법강점하고 온갖 악을 산생시키고 있는 주한미군이 또다시 기지내에 대규모 아파트신축공사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모욕이며 도저히 용납될수 없는 강도행위이다. 미군이 이 땅을 강점한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이 각종 미군만행의 희생물로 됐으며 우리의 귀중한 토지 또한 얼마나 황폐화됐는가. 그런데도 주한미군이 기지내에 대규모 아파트신축공사를 벌이려하는 것은 날로 높아가는 우리 민중의 통일열망을 짓밟고 이 땅을 영구히 가로타고 앉으려는 흉악한 목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아니할수 없다. 미국은 우리 민중의 견결한 반미의지를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망상에 빠져 영구주둔을 꾀할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을 즉각 철수시키고 미군기지들을 반환해야한다. 각계민중은 오늘의 현실을 똑바로 보고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치켜들고 주한미군철수투쟁에 총궐기해야 할줄 안다.》

서울시 서초구에 사는 재야인사 이모씨는 날로 높아가는 우리 민중의 반미감정을 외면하고 미군의 부당한 행위를 비호묵인하고 있는 군당국의 처사에 실망감을 넘어 분격을 금할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통일의 암적 존재이며 온갖 불행과 악의 화근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미군기지를 철폐하는 것은 반세기 남짓한 동안 주한미군에 의해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한 우리 민중의 일치한 요구이다. 이는 또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일치한 주장이다. 그런데도 군당국이 주한미군의 사기와 복지를 향상시켜야한다느니 뭐니하면서 용산미군기지아파트건설을 허가하고도 기지이전문제협의라는 기만극을 연출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반대하는 각계민중의 투쟁에 도전하는 범죄행위이며 반민족적, 반통일적 매국행위인 것이다. 현당국은 또 사대매국적인 친미굴종자세를 버려야하며 전국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의지를 바로 보고 주한미군철수를 강력히 촉구해야 할줄 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김정일**영도자님의 선군혁명영도업적의 위대성에 대한 기념연구토론회가 20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신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20일 중국 국가라디오, 영화 및 TV총국대표단을 비롯한 외국손님들이 주석님께 경의를 표시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신 10돌에 즈음해 12일 주체사상연구우간다전국위원회에서 뷸레찐을 발행했습니다.

시리아통일사회주의자당은 지난 13일 성명을 발표해 조총련에 대한 일본당국의 탄압책동을 규탄했습니다.

노르웨이공산당기관지 《프리에스텐》 14일자가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때로부터 60년이 되는 것과 관련해 발표한 글에서 일본의 재침책동을 단죄했습니다.

주체 90, 12월 22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12월 21일 조선인민군 제529군부대를 시찰하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한총련은 당국의 교육시장화정책을 반대해 17일 성명을 냈습니다.

민주노총소속 전체 노동자 가운데 88%가 정부의 노동정책을 불신하고 있다는 총투표결과가 나와 노정간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예정입니다.

경찰이 발사한 총에 맞아 숨진 피해자 유가족들과 지역시민단체가 진상규명과 함께 사건을 축소조작한 책임자처벌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를 전담하는 기구를 최근 창설했다는 주장이 지난 20일 제기됐습니다.

재중조선인총연합회가 잡지 《백두-한나》 12월호를 발행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이북 내각에서는 제13차 아시아여자축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해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한 이북 선수들을 위해 21일 저녁 옥류관에서 연회를 차렸습니다.